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조사 결과 자료집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김혜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21-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21-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 : 조사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21-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1-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영(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명수(서울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윤명주(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창호 실장	최보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유춘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국 문 초 록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2012년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2년차 조사이며 2013년까지 총 3번 연속하여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8,745명이었다.

본 설문도구를 구성하는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 영역 중 개인영역은 다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는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들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횡단자료로 축적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정신건강실태, 반복횡단조사, 변화양상, 표집조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 정책수립과 추진방향을 제고하고자 함.
- 반복횡단조사를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의 축적과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함.

3. 주요결과

1) 조사개요

- 2011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2012년 5~7월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모집단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표집 하였음.
-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8,500명으로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로 예상되며, 최종 조사 표본 수는 8,745명이었음.
-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2) 조사결과

- 우울, 불안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줌.
- 게임중독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양부모가정보다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서 높은 점수경향을 나타냄.
-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자살계획은 중학생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높은 점수경향을 보여줌.
- 스트레스 요인별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형제·자매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서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임.
- 비행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양부모 및 조손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양부모가정이 다른 가족구성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는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관계는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더 높게 나타남.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1. 모집단 분석	3
2. 표본 설계	4
1) 표본크기 및 층화	4
2) 표본 배분	5
3) 표본 추출	6
3. 실사 설계	6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6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6
3) 실사 진행	7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7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8
5. 조사내용	10
제 2 장 조사결과	11
1. 개인영역	13
1) 부정적 요인	13
(1) 우울	13
(2) 불안	36
(3) 게임 중독	59
(4) 자살	81
(5) 스트레스	86
(6) 비행	101
2) 긍정적 요인	114
(1) 생활만족도	114
(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정서조절/낙관주의)	125

2. 가족영역	141
1) 부모의 지원	141
2) 가족관계 질	157
3. 지역사회 영역	165
1) 지역사회 지원	167
2) 지역사회 상호작용	170
4. 학교영역	173
1) 학교수업	175
2) 교사관계	178
3) 친구관계	181
4) 학교생활	184
부 록	187

표 목 차

〈표 Ⅰ-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
〈표 Ⅰ-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
〈표 Ⅰ-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5
〈표 Ⅰ-4〉 조사 완료 학교 수	8
〈표 Ⅰ-5〉 조사 표본 수	9
〈표 Ⅰ-6〉 응답자 특성	9
〈표 Ⅰ-7〉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10
〈표 Ⅱ-1〉 2011~2012년도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13
〈표 Ⅱ-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14
〈표 Ⅱ-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15
〈표 Ⅱ-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16
〈표 Ⅱ-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17
〈표 Ⅱ-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18
〈표 Ⅱ-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19
〈표 Ⅱ-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20
〈표 Ⅱ-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21
〈표 Ⅱ-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22
〈표 Ⅱ-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23
〈표 Ⅱ-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24
〈표 Ⅱ-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25
〈표 Ⅱ-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26
〈표 Ⅱ-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27
〈표 Ⅱ-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28
〈표 Ⅱ-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29
〈표 Ⅱ-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30
〈표 Ⅱ-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31

〈표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32
〈표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33
〈표 II-2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34
〈표 II-2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35
〈표 II-24〉 2011~2012년도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36
〈표 II-2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37
〈표 II-26〉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38
〈표 II-27〉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39
〈표 II-28〉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40
〈표 II-29〉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41
〈표 II-30〉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42
〈표 II-31〉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43
〈표 II-32〉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4
〈표 II-33〉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45
〈표 II-34〉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46
〈표 II-35〉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47
〈표 II-36〉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48
〈표 II-37〉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49
〈표 II-38〉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50
〈표 II-39〉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1
〈표 II-40〉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52
〈표 II-41〉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3
〈표 II-42〉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54
〈표 II-43〉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55
〈표 II-44〉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56
〈표 II-45〉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57

〈표 II-46〉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58
〈표 II-47〉 2011~2012년도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59
〈표 II-48〉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60
〈표 II-49〉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61
〈표 II-50〉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62
〈표 II-51〉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63
〈표 II-52〉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64
〈표 II-53〉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65
〈표 II-54〉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6
〈표 II-5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67
〈표 II-56〉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68
〈표 II-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69
〈표 II-5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70
〈표 II-5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71
〈표 II-60〉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72
〈표 II-61〉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73
〈표 II-62〉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	74
〈표 II-63〉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75
〈표 II-64〉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76
〈표 II-65〉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77
〈표 II-66〉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78
〈표 II-67〉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79
〈표 II-68〉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80
〈표 II-69〉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81
〈표 II-70〉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82
〈표 II-71〉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83

〈표 II-72〉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4
〈표 II-73〉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5
〈표 II-74〉 2011~2012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비교	86
〈표 II-7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87
〈표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89
〈표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90
〈표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91
〈표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92
〈표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93
〈표 II-8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94
〈표 II-8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95
〈표 II-8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96
〈표 II-8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97
〈표 II-8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98
〈표 II-8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99
〈표 II-8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100
〈표 II-88〉 2011~2012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비교	101
〈표 II-8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102
〈표 II-9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04
〈표 II-9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05
〈표 II-92〉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06
〈표 II-9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07
〈표 II-9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08
〈표 II-95〉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표 II-9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표 II-97〉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111

〈표 II-98〉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12
〈표 II-9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13
〈표 II-100〉 2011~2012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비교	114
〈표 II-1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115
〈표 II-10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7
〈표 II-10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18
〈표 II-10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9
〈표 II-10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0
〈표 II-106〉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1
〈표 II-107〉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2
〈표 II-10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123
〈표 II-109〉 건강에 대한 만족도	124
〈표 II-110〉 2011~2012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125
〈표 II-111〉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126
〈표 II-11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7
〈표 II-11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28
〈표 II-11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29
〈표 II-1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0
〈표 II-1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31
〈표 II-11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32
〈표 II-11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33
〈표 II-11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4
〈표 II-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35
〈표 II-12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36
〈표 II-12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37
〈표 II-12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38

〈표 II-12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39
〈표 II-12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40
〈표 II-126〉 2011~2012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141
〈표 II-12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142
〈표 II-12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43
〈표 II-12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44
〈표 II-13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45
〈표 II-131〉 고민을 들어 주신다	146
〈표 II-13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47
〈표 II-13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48
〈표 II-13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49
〈표 II-13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50
〈표 II-13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51
〈표 II-13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152
〈표 II-138〉 용돈을 주신다	153
〈표 II-13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54
〈표 II-14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55
〈표 II-141〉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56
〈표 II-142〉 2011~2012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비교	157
〈표 II-143〉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158
〈표 II-144〉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60
〈표 II-145〉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61
〈표 II-146〉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62
〈표 II-147〉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63
〈표 II-14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64
〈표 II-149〉 2011~2012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165

〈표 II-150〉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66
〈표 II-15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67
〈표 II-15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168
〈표 II-15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169
〈표 II-15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	170
〈표 II-15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71
〈표 II-15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72
〈표 II-157〉 2011~2012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173
〈표 II-15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74
〈표 II-15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5
〈표 II-16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76
〈표 II-161〉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77
〈표 II-16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78
〈표 II-16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79
〈표 II-16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0
〈표 II-165〉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81
〈표 II-166〉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82
〈표 II-167〉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83
〈표 II-168〉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84
〈표 II-169〉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85
〈표 II-170〉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86

그 림 목 차

【그림 II-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15
【그림 II-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16
【그림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17
【그림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18
【그림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19
【그림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20
【그림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21
【그림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22
【그림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23
【그림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24
【그림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25
【그림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26
【그림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27
【그림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28
【그림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29
【그림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30
【그림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31
【그림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32
【그림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33
【그림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34
【그림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35
【그림 II-22】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	38
【그림 II-23】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39
【그림 II-24】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40
【그림 II-25】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41
【그림 II-26】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42

【그림 II-27】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43
【그림 II-28】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4
【그림 II-29】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45
【그림 II-30】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46
【그림 II-31】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47
【그림 II-32】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48
【그림 II-33】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49
【그림 II-34】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50
【그림 II-35】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1
【그림 II-36】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52
【그림 II-37】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3
【그림 II-38】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54
【그림 II-39】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55
【그림 II-40】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56
【그림 II-41】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57
【그림 II-42】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58
【그림 II-43】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61
【그림 II-4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62
【그림 II-45】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63
【그림 II-46】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64
【그림 II-47】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65
【그림 II-48】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6
【그림 II-49】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67
【그림 II-50】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68
【그림 II-5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69
【그림 II-5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	70

【그림 II-53】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71
【그림 II-54】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72
【그림 II-55】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73
【그림 II-56】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74
【그림 II-57】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75
【그림 II-58】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76
【그림 II-5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77
【그림 II-60】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78
【그림 II-61】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79
【그림 II-6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80
【그림 II-63】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81
【그림 II-64】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82
【그림 II-65】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83
【그림 II-66】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4
【그림 II-67】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5
【그림 II-68】 2011~2012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86
【그림 II-6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89
【그림 II-7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90
【그림 II-7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91
【그림 II-7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92
【그림 II-7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93
【그림 II-7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94
【그림 II-7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95
【그림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96
【그림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97
【그림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98

【그림 Ⅱ-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99
【그림 Ⅱ-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100
【그림 Ⅱ-81】 2011~2012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101
【그림 Ⅱ-8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04
【그림 Ⅱ-83】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05
【그림 Ⅱ-84】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06
【그림 Ⅱ-8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07
【그림 Ⅱ-86】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08
【그림 Ⅱ-87】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그림 Ⅱ-8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그림 Ⅱ-8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111
【그림 Ⅱ-90】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12
【그림 Ⅱ-91】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13
【그림 Ⅱ-92】 2011~2012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114
【그림 Ⅱ-93】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7
【그림 Ⅱ-94】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18
【그림 Ⅱ-9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9
【그림 Ⅱ-96】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0
【그림 Ⅱ-97】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1
【그림 Ⅱ-98】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2
【그림 Ⅱ-99】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123
【그림 Ⅱ-100】 건강에 대한 만족도	124
【그림 Ⅱ-101】 2011~2012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평균 ..	125
【그림 Ⅱ-10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27
【그림 Ⅱ-10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28
【그림 Ⅱ-10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29

【그림 II-1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0
【그림 II-10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31
【그림 II-10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32
【그림 II-10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33
【그림 II-10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4
【그림 II-11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35
【그림 II-11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36
【그림 II-11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37
【그림 II-11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38
【그림 II-1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39
【그림 II-11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	140
【그림 II-116】 2011~2012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평균	141
【그림 II-117】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43
【그림 II-118】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44
【그림 II-119】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45
【그림 II-120】 고민을 들어 주신다	146
【그림 II-121】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47
【그림 II-122】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48
【그림 II-12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49
【그림 II-124】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50
【그림 II-125】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51
【그림 II-126】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152
【그림 II-127】 용돈을 주신다	153
【그림 II-12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54
【그림 II-129】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55
【그림 II-130】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56

【그림 II-131】 2011~2012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157
【그림 II-132】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60
【그림 II-133】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61
【그림 II-134】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62
【그림 II-135】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63
【그림 II-13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64
【그림 II-137】 2011~2012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165
【그림 II-138】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67
【그림 II-139】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68
【그림 II-140】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169
【그림 II-141】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170
【그림 II-142】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71
【그림 II-143】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72
【그림 II-144】 2011~2012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평균	173
【그림 II-14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5
【그림 II-14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76
【그림 II-147】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77
【그림 II-148】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78
【그림 II-149】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	179
【그림 II-150】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0
【그림 II-15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81
【그림 II-152】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82
【그림 II-15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83
【그림 II-154】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84
【그림 II-155】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85
【그림 II-156】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86

제 I 장

조사개요

1. 모집단 분석
2. 표본 설계
3. 실사 설계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5. 조사내용

제 I 장) 조사개요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 5~6월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6개 광역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5,548,299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715,619명(30.9%), 중학교 1,898,699명(34.2%), 고등학교 1,934,011명(34.9%)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1,486,941명(26.8%), 전문계 고등학교 447,070명이다(8.1%).

표 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972,475	88,935	102,143	100,759	104,543	110,836	113,083	98,589	98,428	98,593	19,304	18,657	18,605
부산	355,440	31,439	35,701	35,830	38,119	40,428	42,673	31,867	32,838	33,471	11,847	10,312	10,915
대구	298,066	26,763	30,498	31,123	31,949	34,572	35,451	29,197	28,181	28,435	7,536	7,215	7,146
인천	311,455	29,163	32,882	32,992	33,879	36,164	36,542	29,287	28,891	28,578	7,607	7,602	7,868
광주	197,467	18,722	21,442	21,146	22,232	23,220	22,976	18,547	17,569	17,111	4,958	4,734	4,810
대전	183,407	17,360	19,593	19,401	20,414	21,267	21,601	18,195	17,384	17,218	3,910	3,514	3,550
울산	144,355	13,017	14,904	15,036	15,825	16,719	17,122	14,024	13,567	13,600	3,656	3,452	3,433
경기	1,370,560	136,168	154,011	150,814	153,826	158,200	157,711	122,638	117,993	114,314	36,162	34,118	34,605
강원	164,825	15,869	17,877	17,842	18,751	19,190	19,048	11,451	11,000	10,635	8,073	7,533	7,556
충북	176,156	17,030	18,888	18,863	19,743	20,545	20,830	13,752	13,329	13,495	6,799	6,423	6,459
충남	226,148	22,555	25,095	24,500	25,341	25,870	25,873	20,018	19,176	18,722	6,708	6,192	6,098
전북	215,694	20,408	23,008	22,661	24,230	24,756	25,274	17,069	16,816	16,647	8,712	8,111	8,002
전남	207,257	19,449	22,319	22,344	23,033	23,898	24,314	17,250	16,219	16,040	7,654	7,442	7,295
경북	275,191	26,008	29,799	29,791	29,729	31,914	31,795	23,155	22,779	22,367	9,609	9,018	9,227
경남	378,598	36,461	41,066	40,866	42,325	43,667	44,807	35,043	33,420	33,304	9,498	9,220	8,921
제주	71,205	7,220	8,056	7,802	7,880	8,307	8,197	5,688	5,584	5,467	2,479	2,317	2,208
합계	5,548,299	526,567	597,282	591,770	611,819	639,553	647,297	505,770	493,174	487,997	154,512	145,860	146,698

1) 이 장은 최인재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표본 설계

1) 표본크기 및 층화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표 I -2>와 같이 8,5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이다.

층화의 경우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1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광역시·도, 16개)과 학교구분(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등 4개)을 학년(초 4~6학년, 중·고 1~3학년) 3개를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I-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526,567	1,751,619 (30.9%)		2,628 (30.9%)	
		5	597,282				
		6	591,770				
중학교	중학교	1	611,819	1,898,669 (34.2%)		2,909 (34.2%)	
		2	639,553				
		3	647,297				
고등학교	일반계고	1	505,770	1,486,941 (26.8%)	1,934,011 (34.9%)	2,278 (26.8%)	2,963 (34.9%)
		2	493,174				
		3	487,997				
	전문계고	1	154,512	447,070 (8.1%)	685 (8.1%)		
		2	145,860				
		3	146,698				
합계				5,548,299 (100.0%)		8,500 (100.0%)	

2) 표본 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 -3>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 -3>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이 경우 필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학교 수가 1개가 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소 3개 학교가 배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학년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표본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지역별로 학년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되, 3개 학교 미만으로 할당된 경우는 2학년을 우선적으로 할당되도록 한다²⁾.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 수가 300개가 되도록 한다.

표 I-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서울	1,505	462	509	448	86	47.2	16.8	14.9	12.4	3.1
부산	556	165	191	151	51	18.5	6.6	5.8	4.3	1.9
대구	460	138	159	128	33	14.2	5.1	4.4	3.5	1.1
인천	482	150	166	131	36	16.0	6.2	4.7	3.9	1.2
광주	300	96	103	78	21	9.1	3.6	2.8	2.1	0.6
대전	281	88	97	79	17	9.0	3.4	2.8	2.2	0.6
울산	223	69	77	61	16	7.1	2.7	2.3	1.6	0.5
경기	2,076	685	709	518	163	64.9	25.7	20.2	14.0	5.0
강원	252	82	86	49	36	12.0	5.2	3.5	1.8	1.5
충북	268	85	92	61	28	10.7	4.5	3.4	1.8	0.9
충남	341	113	115	85	28	14.1	6.3	4.1	2.7	1.1
전북	329	105	113	75	37	15.2	6.5	4.7	2.5	1.5
전남	319	103	109	73	34	15.1	6.5	4.5	2.5	1.6
경북	423	135	144	101	43	19.3	8.1	6.1	3.4	1.7
경남	578	188	200	148	44	23.0	9.5	7.2	4.6	1.6
제주	108	36	37	24	12	4.0	1.7	1.2	0.7	0.4
합계	8,500	2,698	2,908	2,208	687	299.4	118.5	92.6	64.1	24.2

2) 1학년은 학교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3학년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음.

3) 표본 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 -3>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3. 실사 설계³⁾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실사 진행을 위해 먼저 학교별 리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학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의 누락 여부 및 휴교중인 학교 등 조사 대상학교의 적절성, 조사 대상 학교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였다. 이후 조사 협조도 제고를 위해 조사 협조 경험이 높은 면접원을 위주로 투입하여 면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 학교의 교감 선생님 앞으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후 사전 접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하도록 하여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원을 선발하기 위해, 2011년도 조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사 담당 연구원이 각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로 집체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촉 면접원,

3) 실사 설계 부문은 본원의 통합조사의 수행을 맡은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기술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학교 방문 면접원, 코딩 및 에디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학교 접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실사 진행

사전 접촉 시 지정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았으며, 방문 조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학생들을 통솔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원은 학교의 교급에 따라 2인 1조의 시스템과 1인 1조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도와 이해력이 낮아 학생들을 충분히 통제하기 위해 면접원 2인이 1조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함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제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 면접원 1인이 1개 학급의 조사를 진행함

1개 학교에서 완료해야 하는 모든 과제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만 해당 샘플의 조사 완료로 보고, 일부 과제의 누락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 조사 대상 학급 학생들의 30% 이상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설문지를 폐기하고,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한편 사전 접촉을 통해 조사 협조해 주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학교 사정 등으로 조사 협조를 철회하는 경우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조사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 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학급을 떠나기 전에 검토하고, 3차 검증은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더블펀치를 실시하여 입력 에러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료 입력 시 설문 로직 등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하여 자료 입력 과정에서 설문지 기입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표를 확인하고, 문항 간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앞서 <표 I-2>와 같이 8,500명으로 결정하였으나, 목표 표본 크기에 따라 단순비례배분에 의해 표본 크기를 할당하였다. 이후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에 따라 학교별 1개 학년 1개 학급의 학생 전원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실제 목표로 삼은 크기보다 많은 표본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완료된 최종 학교 수와 조사 표본 수는 <표 I-4>와 <표 I-5>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사 완료 학교 수는 총 300개이며, 조사표본수는 총 8,745명이었다.

한편 최종 조사 표본 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I-6>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조사 표본 수 중 남자가 4,494명(51.4%)이었고, 여자는 4,251명(48.6%)이었다. 또한 초등학생은 3,185명(36.4%), 중학생은 2,986명(34.1%), 고등학생은 2,574명(29.4%)이었다.

표 I-4 조사 완료 학교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조사대상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300	39	41	39	31	31	31	21	22	21	8	8	8
서울	47	5	6	6	5	5	5	4	4	4	1	1	1
부산	19	2	2	3	2	2	2	1	1	2	0	1	1
대구	14	1	2	2	1	1	2	1	1	2	0	1	0
인천	16	2	2	2	2	1	2	1	1	2	1	0	0
광주	10	1	2	1	1	1	1	1	1	0	0	1	0
대전	9	1	1	1	1	1	1	1	1	0	0	1	0
울산	8	1	1	1	1	1	0	1	1	0	1	0	0
경기	65	9	8	9	7	6	7	5	4	5	2	1	2
강원	12	2	2	1	1	2	1	1	1	0	0	1	0
충북	11	2	2	1	1	1	1	0	1	1	0	0	1
충남	14	2	2	2	1	2	1	1	1	1	0	1	0
전북	15	2	2	3	2	2	1	0	1	1	0	0	1
전남	14	2	2	2	2	1	2	1	1	0	1	0	0
경북	19	3	3	2	2	2	2	1	1	1	1	0	1
경남	22	3	3	3	2	2	3	2	1	2	0	0	1
제주	5	1	1	0	0	1	0	0	1	0	1	0	0

표 I-5 조사 표본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8,745	1,033	1,099	1,053	992	962	1,032	631	687	672	204	184	196
서울	1,300	121	157	144	163	136	148	113	130	117	23	30	18
부산	552	50	53	77	58	66	63	36	31	75	0	16	27
대구	426	22	53	57	30	37	78	23	34	74	0	18	0
인천	446	47	55	41	62	21	69	28	36	59	28	0	0
광주	293	26	51	31	34	33	32	35	31	0	0	20	0
대전	247	26	19	33	32	30	28	25	33	0	0	21	0
울산	221	22	25	27	33	30	0	41	19	0	24	0	0
경기	2,034	260	228	266	237	195	254	164	129	157	54	29	61
강원	343	52	53	30	34	55	32	38	27	0	0	22	0
충북	314	45	53	27	32	26	27	0	37	41	0	0	26
충남	415	63	53	57	24	69	32	27	27	35	0	28	0
전북	426	57	57	81	52	67	32	0	40	22	0	0	18
전남	390	51	57	47	68	38	69	24	20	0	16	0	0
경북	561	80	79	52	66	65	67	22	34	37	28	0	31
경남	633	80	77	83	67	63	101	55	37	55	0	0	15
제주	144	31	29	0	0	31	0	0	22	0	31	0	0

표 I-6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8,745)	100.0
성별	남자	(4,494)	51.4
	여자	(4,251)	48.6
학교급	초등학교	(3,185)	36.4
	중학교	(2,986)	34.1
	고등학교 ⁴⁾	(2,574)	29.4
학교소재지	서울	(1,300)	14.9
	광역시	(2,185)	25.0
	시군	(5,260)	6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7,681)	87.8
	한부모가정	(709)	8.1
	조손가정	(147)	1.7
	기타	(178)	2.0
	무응답	(30)	0.3

4) 고등학교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합한 수치임

5. 조사내용

2011년에 활용된 도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2011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자살관련 문항의 경우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문항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다.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 영역 중 개인영역은 다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는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들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표 I-7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α
개인 영역	부정적 요인	우울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정도	21	.904
		불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불안의 정도	21	.908
		게임중독	게임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 경향성	20	.933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시도 경험	3	-
		스트레스	부모, 형제자매, 외모, 건강, 경제, 친구, 이성, 선·후배, 선생님 관계, 진로, 학업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2	.862
		비행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도박, 공공기물 파손 경험	10	.785
	긍정적 요인	생활만족도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여가 생활,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의 만족도 정도	8	.876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5	.920
		자기효능감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	3	.884
		정서조절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3	.834
		낙관주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고, 또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3	.825
가족영역	부모의 지원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	14	.946
	가족관계 질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	5	.933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	3	.840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3	.771
학교영역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정도	3	.846
	교사관계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3	.903
	친구관계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3	.872
	학교생활		학교시설과 물건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	3	.754

* 주: 각 변인에 대한 세부 문항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제 II 장

조사결과

1. 개인영역

- 1) 부정적 요인
- 2) 긍정적 요인

2. 가족영역

- 1) 부모의 지원
- 2) 가족관계 질

3. 지역사회 영역

- 1) 지역사회 지원
- 2) 지역사회 상호작용

4. 학교영역

- 1) 학교수업
- 2) 교사관계
- 3) 친구관계
- 4) 학교생활

제 II 장⁵⁾ 조사개요

1. 개인영역

1) 부정적 요인

(1) 우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우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정서적 표현/부정적 인지(M=0.4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M=0.38)’, ‘죄책감/자기혐오(M=0.37)’, ‘신체적 측면(M=0.36)’의 순이었음.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우울 평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II-1 2011~2012년도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죄책감 /자기혐오	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슬픔	0.31	0.29
	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실패	0.35	0.34
	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죄책감	0.31	0.29
	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벌	0.44	0.40
	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0.48	0.45
	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책	0.47	0.42
	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살	0.46	0.41
소계			0.40	0.37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 지연	1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0.38	0.36
	1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결정	0.55	0.50
	1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0.51	0.46
	1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할 의욕	0.40	0.34
	2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성욕	0.27	0.26
소계			0.42	0.38
신체적 측면	1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잠	0.33	0.33
	1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피곤함	0.74	0.72
	1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식욕	0.32	0.30
	1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체중변화	0.22	0.22
	2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0.24	0.21
소계			0.37	0.36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0.42	0.41
	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0.55	0.50
	1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울기	0.24	0.23
	1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짜증	0.69	0.66
소계			0.48	0.45
우울 영역(전체)			0.41	0.38

5) 이 장은 최인재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혜인 위촉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작업 하였음.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우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인 죄책감/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모두에서 거주지 변수를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수의 각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세부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나타나, 거주지 변수를 제외한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죄책감 /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우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494)	0.33 (0.40)	-9.914 ***	0.36 (0.43)	-4.663 ***	0.33 (0.38)	-6.331 ***	0.38 (0.44)	-15.047 ***	0.35 (0.35)	-10.286 ***
	여자 (n=4,251)	0.42 (0.46)		0.41 (0.44)		0.38 (0.38)		0.53 (0.52)		0.43 (0.39)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0.25 (0.36)	221,052 *** (ab,ac, bc)	0.29 (0.39)	131,734 *** (ab,ac, bc)	0.28 (0.34)	122,596 *** (ab,ac, bc)	0.32 (0.42)	184,167 *** (ab,ac, bc)	0.28 (0.31)	235,763 *** (ab,ac, bc)
	중학교 (n=2,986)	0.42 (0.46)		0.42 (0.44)		0.39 (0.39)		0.50 (0.50)		0.42 (0.38)	
	고등학교 (n=2,574)	0.47 (0.46)		0.46 (0.45)		0.42 (0.39)		0.55 (0.50)		0.47 (0.38)	
거주지	서울 (n=1,300)	0.36 (0.42)	0.819	0.36 (0.42)	2.880	0.36 (0.40)	0.623	0.44 (0.47)	1.582	0.38 (0.36)	1.268
	광역시 (n=2,185)	0.36 (0.41)		0.37 (0.42)		0.35 (0.37)		0.44 (0.47)		0.38 (0.35)	
	사군 (n=5,260)	0.38 (0.45)		0.39 (0.44)		0.36 (0.38)		0.46 (0.50)		0.39 (0.3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0.36 (0.43)	14,489 *** (gh)	0.38 (0.43)	12,320 *** (gh)	0.35 (0.37)	13,030 *** (gh)	0.44 (0.48)	11,792 *** (gh)	0.38 (0.36)	17,726 *** (gh)
	한부모가정 (n=709)	0.45 (0.46)		0.45 (0.46)		0.42 (0.43)		0.53 (0.50)		0.46 (0.40)	
	조손가정 (n=147)	0.41 (0.45)		0.44 (0.49)		0.37 (0.40)		0.48 (0.53)		0.41 (0.38)	
전체 M(SD)		0.37(0.44)		0.38(0.43)		0.36(0.38)		0.45(0.49)		0.38(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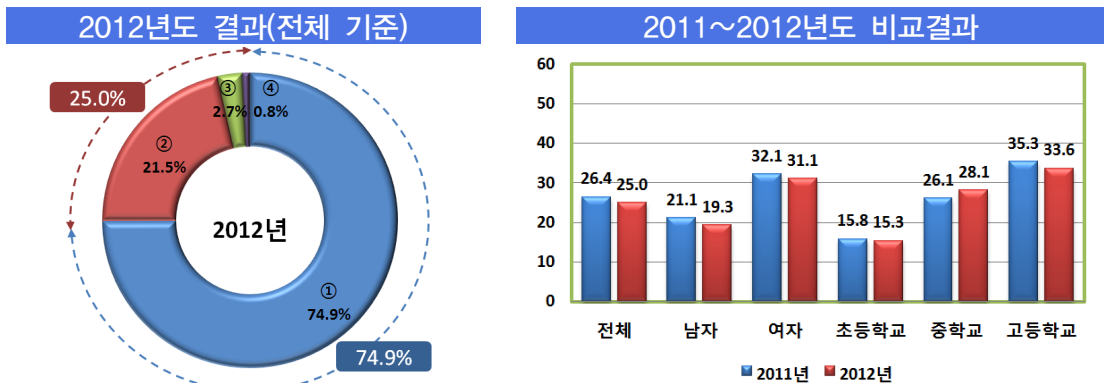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5.0%가 '슬프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 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5.0%가 '슬프다' 라고 응답하였고, 74.9%는 '슬프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슬프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31.1%)이 남학생(19.3%) 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33.6%로 중학생(28.1%) 및 초등학생 (15.3%)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1년(26.4%)에 비해 2012년은 25.0%로 위 문항에 대해 1.4%p 낮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26.1%)에 비해 2012년의 응답률(28.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표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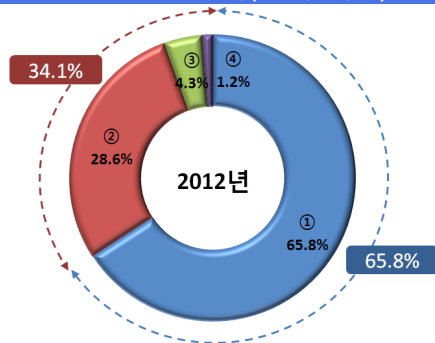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 슬프지 않다	② 슬프다	③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무응답	사례수	① 슬프지 않다	② 슬프다	③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무응답	
전체	9,435	73.5	22.8	2.7	0.9	0.0	8,745	74.9	21.5	2.7	0.8	0.0	
성별	남	4,874	78.9	17.6	2.5	1.0	0.0	4,494	80.7	16.5	2.0	0.8	0.0
	여	4,561	67.8	28.3	2.9	0.9	0.0	4,251	68.8	26.8	3.5	0.8	0.0
교급	초	2,943	84.1	13.1	1.7	1.0	0.0	3,185	84.6	13.1	1.6	0.6	0.0
	중	2,844	73.8	23.1	2.3	0.7	0.0	2,986	71.9	23.9	3.3	0.9	0.0
	고	3,648	64.7	30.3	3.9	1.1	0.1	2,574	66.4	29.1	3.5	1.0	0.0

(1)-②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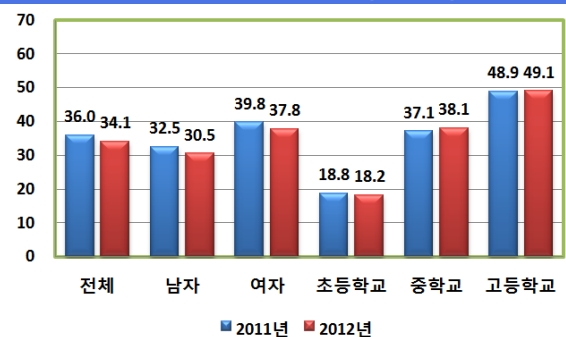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4.1%가 ‘절망적이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4.1% ‘절망적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5.8%는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절망적이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0.5%)보다 여학생(37.8%)이 절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2%)에서 고등학생(49.1%)으로 올라갈수록 앞날에 대해 더 절망적으로 느꼈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절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9%p 낮아졌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만 낮아졌을 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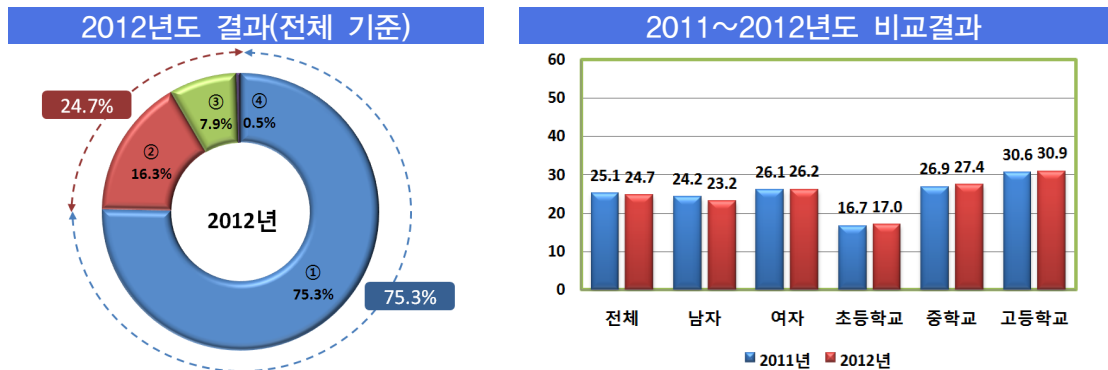
표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 례 수	①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무 응답	사 례 수	①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무 응답	
전체	9,435	64.0	30.7	4.3	1.0	0.1	8,745	65.8	28.6	4.3	1.2	0.2	
성 별	남	4,874	67.5	26.8	4.4	1.3	0.1	4,494	69.3	25.2	3.9	1.4	0.2
	여	4,561	60.2	34.8	4.3	0.7	0.0	4,251	62.1	32.2	4.7	0.9	0.1
교 급	초	2,943	81.1	14.2	3.6	1.0	0.1	3,185	81.7	13.5	3.3	1.4	0.2
	중	2,844	62.9	31.3	4.7	1.1	0.1	2,986	61.8	32.2	5.0	0.9	0.2
	고	3,648	51.0	43.4	4.6	0.9	0.1	2,574	50.7	43.1	4.7	1.3	0.2

(1)-③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7%가 ‘실패자’라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4.7%가 ‘실패자이다’라고 응답하였고, 75.3%는 ‘실패자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3.2%)보다 여학생(26.2%)이 실패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7.0%)에서 중학생(27.4%), 고등학교(30.9%)로 올라갈수록 더 실패자라고 느꼈다.
- 연도별 비교결과를 보면, 2011년(25.1%)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실패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0.4%p 더 낮아졌고,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011년에 비해 1.0%p 더 낮아졌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조금씩 더 높아졌다.



【그림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표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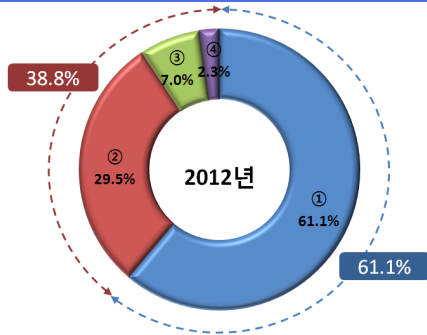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 실패자 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다	④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이다	무 응답	사례수	① 실패자 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다	④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이다	무 응답
전체		9,435	74.8	15.8	8.6	0.7	0.1	8,745	75.3	16.3	7.9	0.5	0.1
성 별	남	4,874	75.7	16.4	6.9	0.9	0.1	4,494	76.8	16.2	6.4	0.6	0.0
	여	4,561	73.8	15.2	10.5	0.4	0.0	4,251	73.7	16.3	9.5	0.4	0.1
교 급 별	초	2,943	83.2	12.7	3.5	0.5	0.1	3,185	83.0	13.1	3.4	0.5	0.0
	중	2,844	73.0	18.2	8.0	0.7	0.0	2,986	72.5	18.6	8.2	0.6	0.1
	고	3,648	69.4	16.5	13.3	0.8	0.1	2,574	68.9	17.4	13.0	0.5	0.1

(1)-④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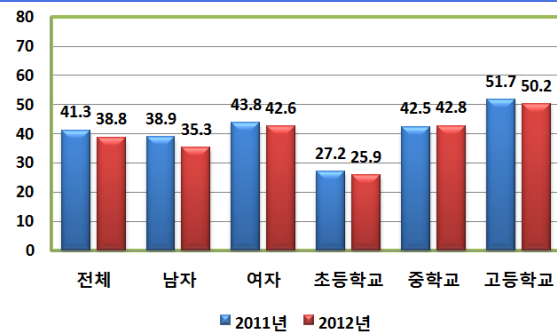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8.8%가 ‘불만족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 관련 문항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38.8%가 ‘불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61.1%는 ‘만족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 ‘불만족한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5.3%)보다 여학생(42.6%)이 일상생활에 더 불만족 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50.2%로 중학생(42.8%) 및 초등학생(25.9%)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비교 결과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p 더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성별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슷한 응답률이었고 초·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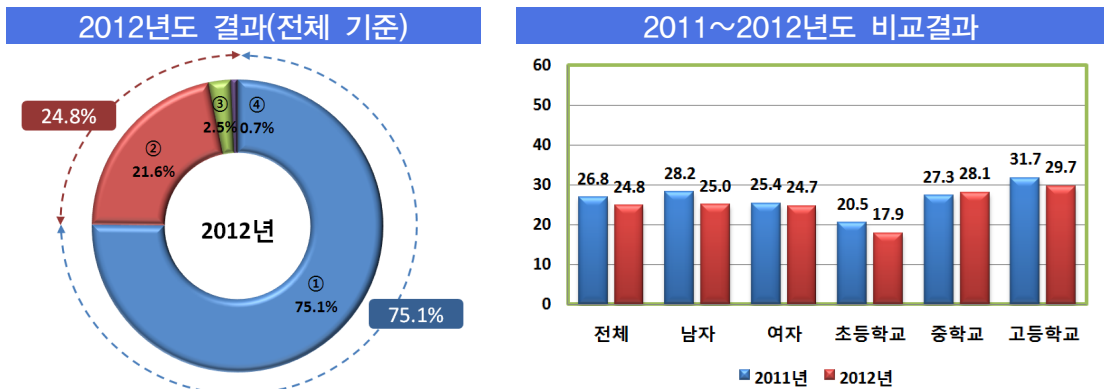
표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③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실증난다	무응답	사례 수	①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③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실증난다	무응답
전체	9,435	58.6	30.4	8.5	2.4	0.1	8,745	61.1	29.5	7.0	2.3	0.1
성별	남	4,874	60.9	30.0	6.7	2.2	4,494	64.6	28.0	5.7	1.6	0.1
	여	4,561	56.1	30.8	10.3	2.7	4,251	57.4	31.1	8.5	3.0	0.1
교급	초	2,943	72.6	21.8	3.5	1.9	3,185	74.1	21.5	3.2	1.2	0.0
	중	2,844	57.3	32.1	7.8	2.6	2,986	57.1	32.6	7.3	2.9	0.1
	고	3,648	48.2	36.0	13.0	2.7	2,574	49.7	35.8	11.5	2.9	0.2

(1)-⑤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8%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을 느낀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24.8%는 ‘죄책감을 느낀다’ , 75.1%는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24.7%)과 남학생(25.0%)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7.9%)에서 중학생(28.1%), 고등학생(29.7%)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죄책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p 더 낮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만 2011년에 비해 0.8%p 더 높아졌을 뿐 초·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표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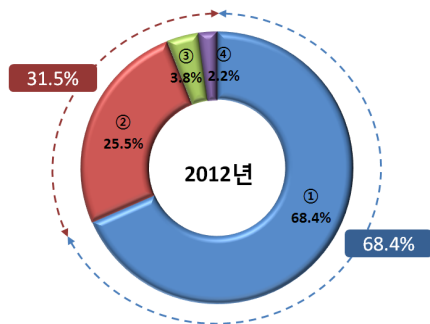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무 응답	사례 수	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무 응답	
전체	9,435	73.0	23.6	2.5	0.7	0.1	8,745	75.1	21.6	2.5	0.7	0.1	
성 별	남	4,874	71.7	24.8	2.7	0.7	0.1	4,494	74.9	22.1	2.2	0.7	0.1
	여	4,561	74.5	22.4	2.3	0.7	0.0	4,251	75.2	21.2	2.8	0.7	0.1
교 급	초	2,943	79.4	18.3	1.8	0.4	0.1	3,185	82.0	16.0	1.2	0.7	0.1
	중	2,844	72.5	24.1	2.4	0.8	0.1	2,986	71.8	24.3	3.1	0.7	0.1
	고	3,648	68.3	27.6	3.2	0.9	0.0	2,574	70.2	25.5	3.4	0.8	0.0

(1)-⑥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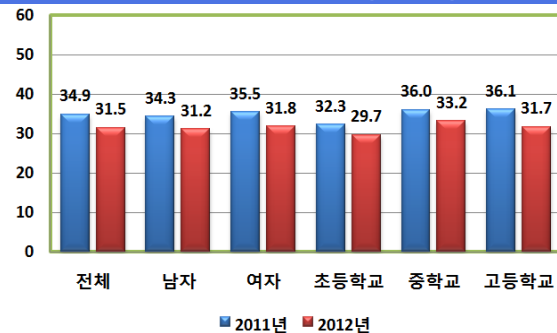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벌’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벌을 받고 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벌에 대한 느낌’ 관련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1.5%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하였고, 68.4%는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1.2%)보다 여학생(31.8%)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률이 0.6%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33.2%)의 응답률이 고등학생(31.7%) 및 초등학생(29.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34.9%)에 비해 2012년(31.5%)의 경우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4%p 더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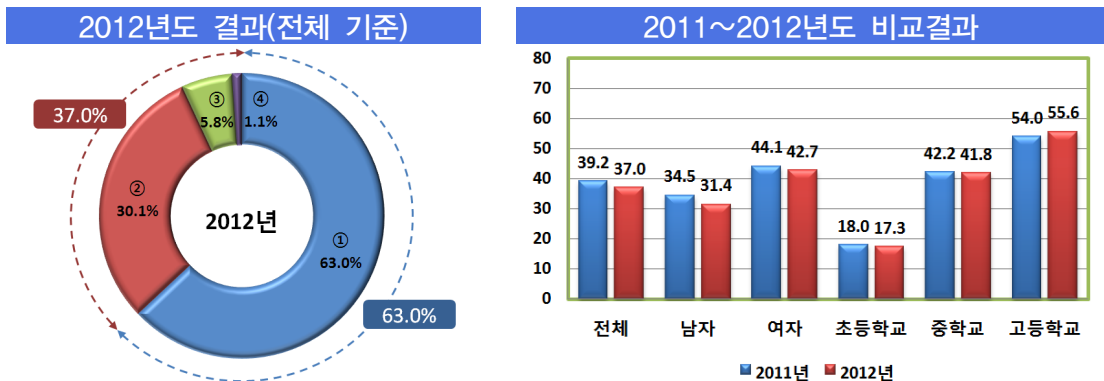
표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③벌을 받을 것 같다	④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무응답	사례수	①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③벌을 받을 것 같다	④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무응답	
전체	9,435	65.0	28.3	3.9	2.7	0.1	8,745	68.4	25.5	3.8	2.2	0.1	
성별	남	4,874	65.6	27.8	3.9	2.6	0.1	4,494	68.6	25.5	3.9	1.8	0.1
	여	4,561	64.3	28.9	3.9	2.7	0.1	4,251	68.1	25.5	3.6	2.7	0.1
교급별	초	2,943	67.6	26.6	3.7	2.0	0.1	3,185	70.2	25.3	2.9	1.5	0.0
	중	2,844	63.8	29.0	4.4	2.6	0.1	2,986	66.6	26.3	4.5	2.4	0.1
	고	3,648	63.8	29.2	3.7	3.2	0.1	2,574	68.1	24.7	4.0	3.0	0.1

(1)-⑦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0.7%가 ‘자신에게 실망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0.7%가 ‘자신에게 실망한다’라고 응답하였고, 63.0%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스스로에게 실망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42.7%)이 남학생(31.4%)보다 자신에게 실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17.3%)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41.8%로 급격히 높아졌고, 고등학생이 5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 연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스스로에게 실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p 더 낮아졌고 이런 추세는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54.0%)에 비해 2012년(55.6%)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표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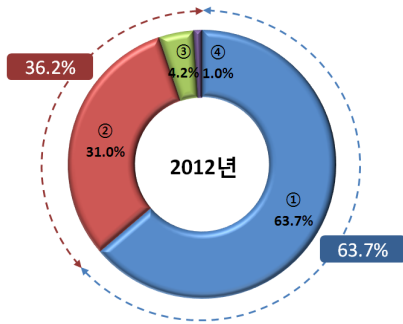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 자신에 게 화가 난다	④ 나 자신을 증오한다	무응 답	사례수	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 자신에 게 화가 난다	④ 나 자신을 증오한다	무응 답
전체		9,435	60.7	31.9	6.3	1.0	0.1	8,745	63.0	30.1	5.8	1.1	0.1
성별	남	4,874	65.3	28.1	5.3	1.1	0.1	4,494	68.5	26.0	4.2	1.2	0.1
	여	4,561	55.8	35.8	7.4	0.9	0.0	4,251	57.1	34.4	7.4	0.9	0.1
연령	초	2,943	81.8	14.2	3.1	0.7	0.1	3,185	82.6	14.7	1.7	0.9	0.1
	중	2,844	57.7	34.5	6.5	1.2	0.1	2,986	58.1	33.4	7.1	1.3	0.1
	고	3,648	46.0	44.1	8.8	1.1	0.0	2,574	44.4	45.3	9.2	1.1	0.0

(1)-⑧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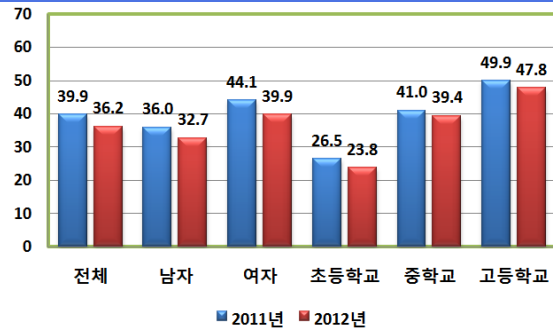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2%가 '내 탓이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감'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6.2%는 '내 탓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63.7%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39.9%)이 남학생(32.7%)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책하고 있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3.8%)에서 중학생(39.4%), 고등학교(47.8%)으로 올라갈수록 자책에 대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내 탓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p 더 낮아졌으며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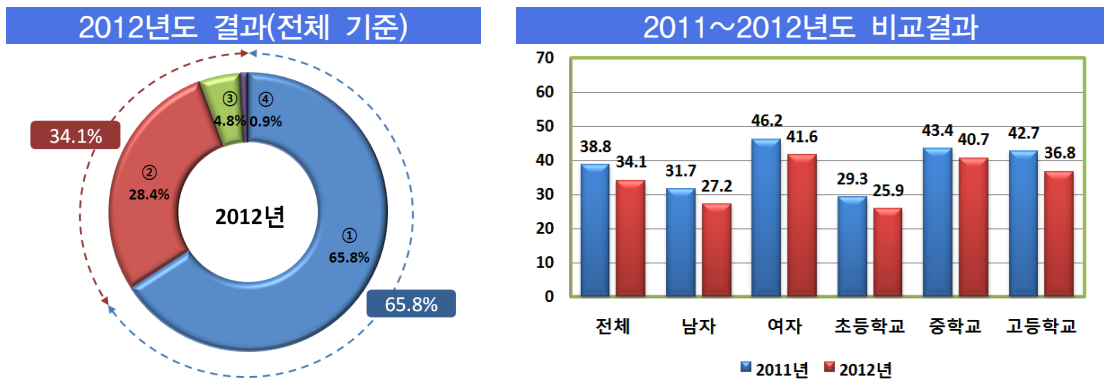
표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약점이 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 이 잘못 되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탓이다	무응답	사례수	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약점이 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 이 잘못 되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탓이다	무응답
전체	9,435	60.0	33.7	5.0	1.2	0.1	8,745	63.7	31.0	4.2	1.0	0.1
성별												
남	4,874	64.0	30.4	4.5	1.1	0.1	4,494	67.3	28.6	3.3	0.8	0.1
여	4,561	55.7	37.3	5.5	1.3	0.1	4,251	59.9	33.5	5.2	1.2	0.2
교급												
초	2,943	73.3	22.2	3.1	1.2	0.1	3,185	76.2	21.0	1.9	0.9	0.1
중	2,844	59.0	35.1	4.8	1.1	0.1	2,986	60.4	34.0	4.4	1.0	0.2
고	3,648	49.9	41.9	6.7	1.3	0.1	2,574	52.0	39.9	6.8	1.1	0.2

(1)-⑨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살’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4.1%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살’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4.1%는 ‘자살을 생각한다’, 65.8%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41.6%)이 남학생(27.2%)보다 자살 생각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40.7%)이 고등학생(36.8%) 및 초등학생(25.9%)보다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7%p 더 낮아졌으며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2011년에 비해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표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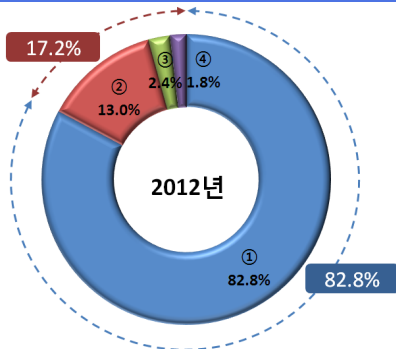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자살 같은건 생각하지 않는다	②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 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무응답	사례 수	① 자살 같은건 생각하지 않는다	②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 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무응답
전체	9,435	61.2	32.5	4.9	1.4	0.1	8,745	65.8	28.4	4.8	0.9	0.0
성 별	남	4,874	68.2	26.8	3.8	1.1	4,494	72.8	23.5	3.0	0.7	0.0
	여	4,561	53.7	38.5	6.1	1.6	4,251	58.4	33.6	6.8	1.2	0.0
교 급 별	초	2,943	70.7	24.3	4.1	0.9	3,185	74.1	21.9	3.4	0.6	0.1
	중	2,844	56.6	36.4	5.5	1.5	2,986	59.4	33.1	6.3	1.3	0.0
	고	3,648	57.2	36.0	5.1	1.6	2,574	63.1	30.8	5.0	1.0	0.0

(1)-⑩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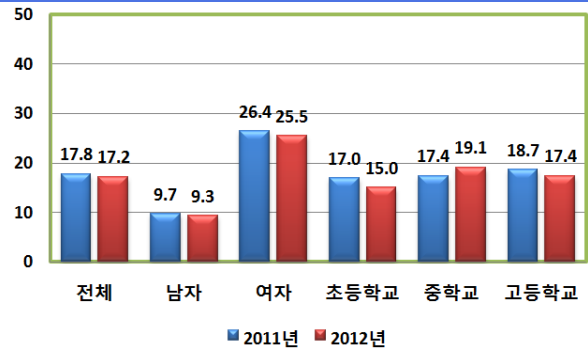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7.2%가 '많이 운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7.2%가 '많이 운다' 라고 응답하였고, 82.8%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더 많이 운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9.3%)보다 여학생(25.5%)이 평소보다 더 많이 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많이 운다는 응답률이 19.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7.4%), 초등학생(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더 많이 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0.6%p 더 낮아졌으며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은 조금 더 낮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표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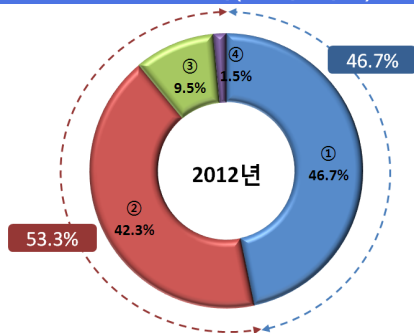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평소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요즈음 항상 운다	④ 전에는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 기력조차 없다	무응답	사례 수	① 평소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요즈음 항상 운다	④ 전에는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 기력조차 없다	무응답
전체		9,435	82.1	13.2	2.6	2.0	0.1	8,745	82.8	13.0	2.4	1.8	0.0
성별	남	4,874	90.2	6.7	1.3	1.7	0.1	4,494	90.7	6.9	1.0	1.4	0.0
	여	4,561	73.6	20.1	4.0	2.3	0.0	4,251	74.4	19.5	3.8	2.2	0.1
교급	초	2,943	82.9	12.4	2.9	1.7	0.1	3,185	85.0	11.4	1.8	1.8	0.0
	중	2,844	82.5	13.6	2.4	1.4	0.1	2,986	80.7	14.1	3.4	1.6	0.1
	고	3,648	81.2	13.4	2.5	2.8	0.1	2,574	82.5	13.8	1.7	1.9	0.1

(1)-⑪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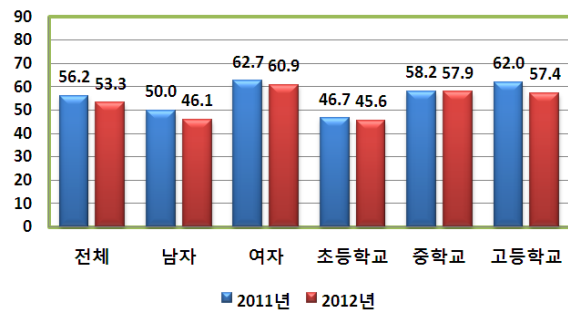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짜증’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3%가 ‘짜증이 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짜증’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전보다 더 짜증이 난다’라고 응답하였고, 46.7%는 ‘평소보다 짜증을 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60.9%)이 남학생(46.1%)보다 전보다 짜증이 더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57.9%)의 응답률이 고등학생(57.4%) 및 초등학생(4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56.2%)에 비해 2012년(53.3%)의 경우 전보다 더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9%p 더 낮아졌으며,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2011년에 비해 응답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표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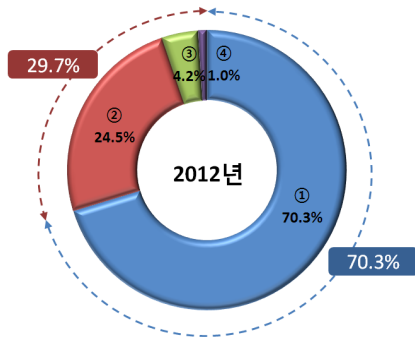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전보다 더 쉽게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③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 수	①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전보다 더 쉽게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③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43.8	45.1	9.4	1.7	0.1	8,745	46.7	42.3	9.5	1.5	0.0	
성 별	남	4,874	49.9	41.3	7.4	1.3	0.1	4,494	53.9	38.1	6.6	1.4	0.0
	여	4,561	37.3	49.1	11.5	2.1	0.0	4,251	39.0	46.7	12.5	1.7	0.0
교 급 별	초	2,943	53.3	38.7	6.7	1.3	0.0	3,185	54.3	38.6	5.9	1.1	0.0
	중	2,844	41.6	47.2	9.6	1.4	0.1	2,986	42.1	44.3	11.9	1.7	0.1
	고	3,648	37.9	48.5	11.3	2.2	0.0	2,574	42.5	44.4	11.1	1.9	0.1

(1)-⑫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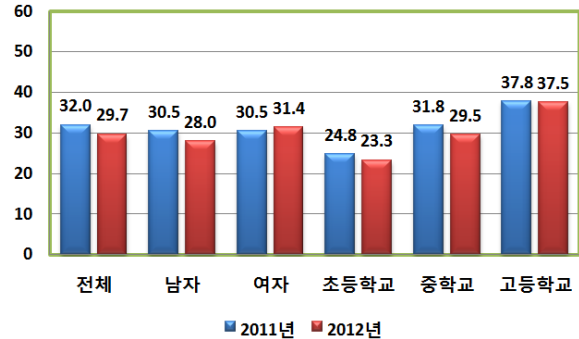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7%가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 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29.7%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70.3%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28.0%)보다 여학생(31.4%)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23.3%)에서 고등학생(37.5%)으로 올라갈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위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약 2.3%p 더 낮아졌으며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5%p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1년보다 0.9%p 더 높은 응답률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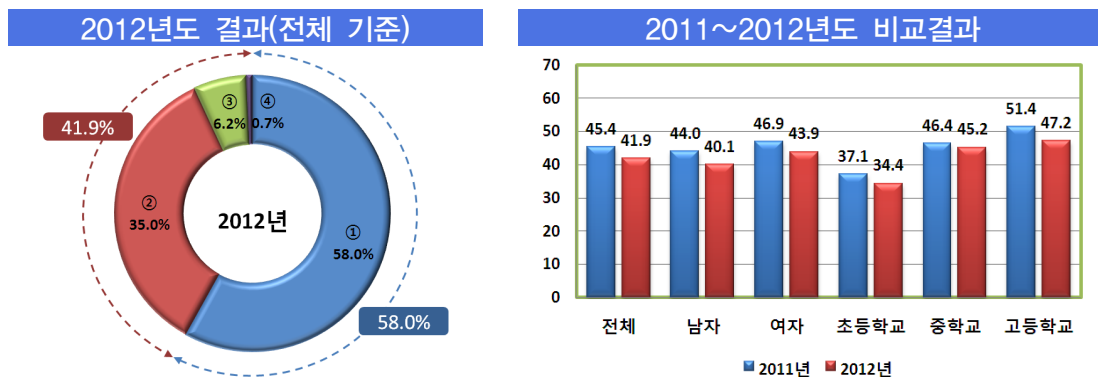
표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전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사람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사례 수	①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전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사람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전체	9,435	68.0	27.3	3.9	0.8	0.1	8,745	70.3	24.5	4.2	1.0	0.1	
성별	남	4,874	69.3	26.2	3.4	0.9	0.1	4,494	72.0	22.8	4.0	1.2	0.0
	여	4,561	69.3	26.2	3.4	0.9	0.1	4,251	68.6	26.3	4.4	0.7	0.1
교급별	초	2,943	75.1	20.8	3.0	1.0	0.1	3,185	76.6	19.4	3.1	0.8	0.1
	중	2,844	68.0	27.6	3.5	0.7	0.1	2,986	70.5	24.8	3.8	0.9	0.0
	고	3,648	62.2	32.2	4.9	0.7	0.1	2,574	62.4	30.4	5.9	1.2	0.1

(1)-⑬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결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1.9%가 ‘결정을 못 내린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결정’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1.9%는 ‘평소보다 결정을 잘 못 내린다’, 58.0%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0.1%)보다 여학생(43.9%)이 결정을 잘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4%)에서 중학생(45.2%), 고등학교(47.2%)으로 올라갈수록 평소보다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느꼈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45.4%)에 비해 2012년(41.9%)의 경우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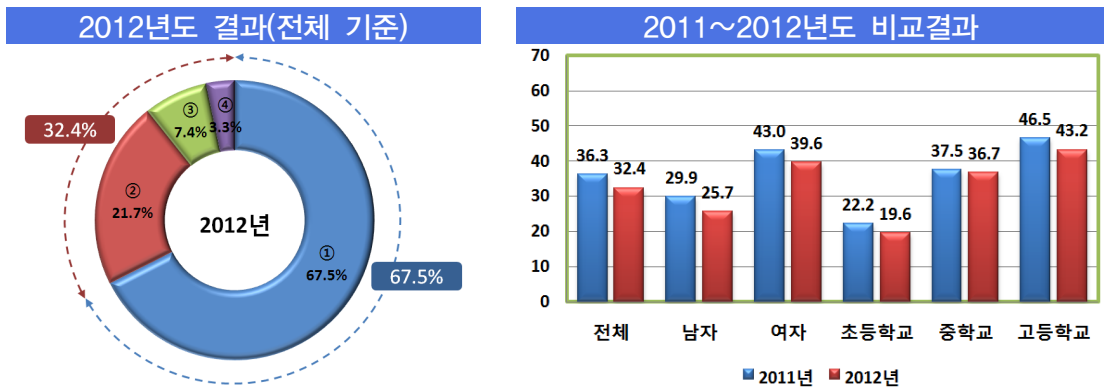
표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④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무응답	사례 수	①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④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무응답	
전체	9,435	54.5	37.1	7.6	0.7	0.1	8,745	58.0	35.0	6.2	0.7	0.1	
성별	남	4,874	55.8	37.3	5.8	0.9	0.1	4,494	59.9	34.4	4.9	0.8	0.1
	여	4,561	53.1	36.8	9.5	0.6	0.1	4,251	56.1	35.6	7.6	0.7	0.0
교급별	초	2,943	62.8	31.1	4.9	1.1	0.1	3,185	65.5	30.1	3.5	0.8	0.1
	중	2,844	53.6	38.7	7.1	0.6	0.1	2,986	54.7	37.6	6.8	0.8	0.0
	고	3,648	48.6	40.6	10.3	0.5	0.1	2,574	52.7	37.9	8.7	0.6	0.1

(1)-⑭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4%가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 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4%가 ‘매력이 없어졌다’ 라고 응답한 반면, 67.5%는 ‘내 모습이 나빠지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였다.
- ‘매력이 없어졌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9.6%)이 남학생(25.7%)보다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9.6%)에서 중학생(36.7%), 고등학생(43.2%)으로 올라갈수록 관련 응답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36.3%)에 비해 2012년(32.4%)의 경우 자신의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9%p 더 낮아졌고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2012년의 응답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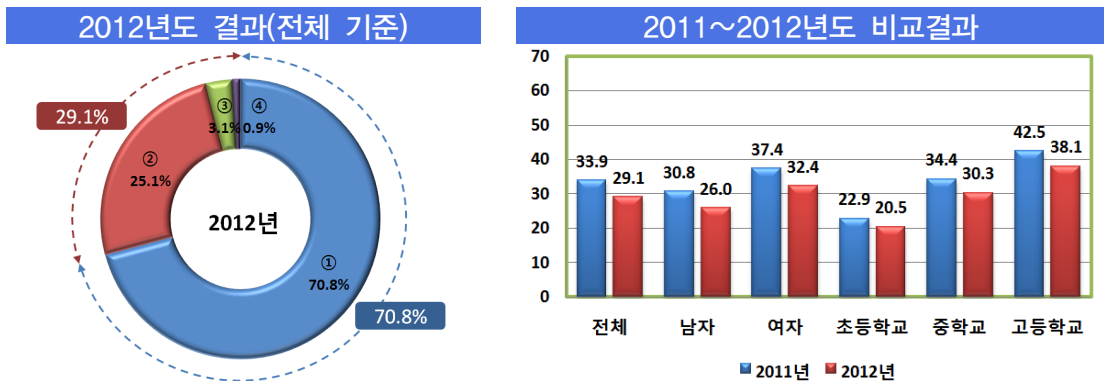
표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무 응답	사례 수	①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무 응답
전체	9,435	63.6	24.4	8.6	3.3	0.1	8,745	67.5	21.7	7.4	3.3	0.1
성 별	남	4,874	69.9	21.3	6.0	2.6	4,494	74.2	17.9	5.2	2.6	0.2
	여	4,561	57.0	27.7	11.3	4.0	4,251	60.3	25.7	9.9	4.0	0.1
교 급 별	초	2,943	77.6	15.7	4.3	2.2	3,185	80.3	13.6	4.3	1.7	0.1
	중	2,844	62.3	26.2	7.9	3.4	2,986	63.2	24.2	8.4	4.1	0.1
	고	3,648	53.4	30.0	12.5	4.0	2,574	56.6	28.7	10.3	4.2	0.2

(1)-⑮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1%가 ‘일 할 의욕이 없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 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29.1%는 ‘일 할 의욕이 없다’ , 대다수인 70.8%는 ‘전처럼 일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32.4%)이 남학생(26.0%)보다 일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의 경우 초등학생(20.5%)에서 고등학생(38.1%)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일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경우 전 보다 일할 의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8%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표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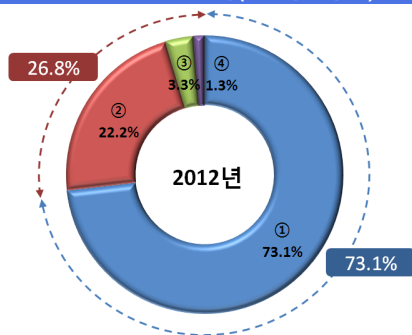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전처럼 일할 수 있다	②어떤 시작하 는데 전보다 많은 노력이 든다	③무슨 일이든 하려면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 한다	④전혀 일도 아무 할 수 없다	무응답	사례 수	①전처럼 일할 수 있다	②어떤 시작하 는데 전보다 많은 노력이 든다	③무슨 일이든 하려면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 한다	④전혀 일도 아무 할 수 없다	무응답	
전체	9,435	65.9	29.4	3.6	0.9	0.1	8,745	70.8	25.1	3.1	0.9	0.1	
성 별	남	4,874	69.1	26.7	3.3	0.8	0.2	4,494	74.0	22.5	2.7	0.8	0.1
	여	4,561	62.6	32.2	4.1	1.1	0.0	4,251	67.5	27.8	3.6	1.0	0.1
교 급 별	초	2,943	77.0	20.4	1.8	0.7	0.1	3,185	79.4	18.4	1.4	0.7	0.1
	중	2,844	65.4	30.5	3.2	0.7	0.1	2,986	69.5	26.4	2.9	1.0	0.1
	고	3,648	57.5	35.7	5.5	1.3	0.1	2,574	61.7	31.7	5.4	1.0	0.1

(1)-⑯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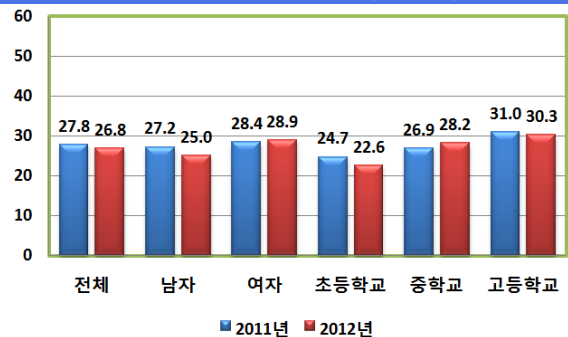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잠’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6.8%가 ‘잠을 잘 못 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숙면 여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6.8%가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응답하였고, 73.1%는 ‘잠을 잘 잔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5.0%)보다 여학생(28.9%)이 잠을 잘 못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22.6%)에서 중학생(28.2%), 고등학생(30.3%)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잠을 잘 못 잔다는 응답률이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체의 경우 2011년(27.8%)에 비해 2012년(26.8%)의 경우 잘 못 잔다는 응답률이 약 1.0%p 더 낮아졌고,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조금 더 높아졌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1.3%p 더 높아졌고 초·고등학생은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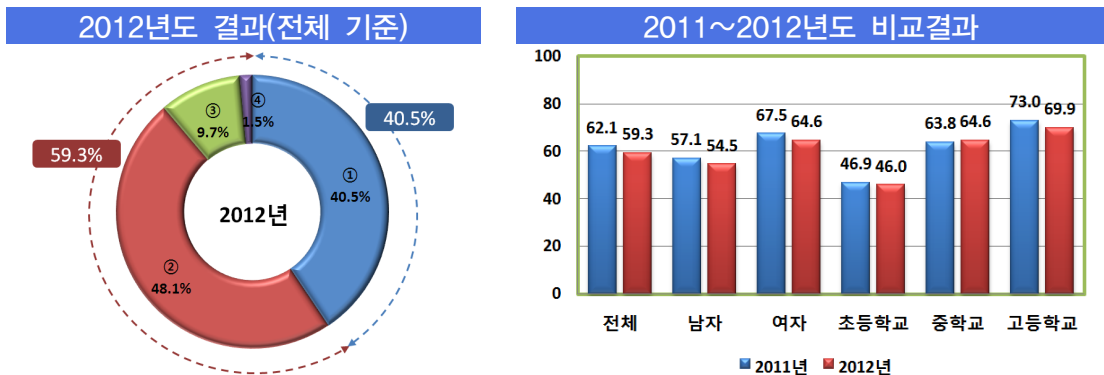
표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평소 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무 응답	사례 수	①평소 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무 응답	
전체	9,435	72.2	23.6	3.2	1.0	0.1	8,745	73.1	22.2	3.3	1.3	0.1	
성 별	남	4,874	72.7	22.5	3.5	1.2	0.1	4,494	75.1	20.8	3.0	1.2	0.0
	여	4,561	71.6	24.8	2.9	0.7	0.0	4,251	71.0	23.8	3.7	1.4	0.1
교 급	초	2,943	75.3	19.0	4.2	1.5	0.1	3,185	77.4	18.2	3.0	1.4	0.1
	중	2,844	73.0	23.6	2.5	0.8	0.1	2,986	71.7	23.4	3.4	1.4	0.0
	고	3,648	68.9	27.3	3.0	0.7	0.1	2,574	69.4	25.8	3.5	1.0	0.2

(1)-⑰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피곤함’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9.3%가 ‘피곤하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피곤함’ 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59.3%가 ‘전보다 피곤하다’ 라고 응답한 반면, 40.5%는 ‘평소보다 피곤하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54.5%)보다 여학생(64.6%)이 피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1%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46.0%)에서 중학생(64.6%)으로 올라가면서 관련 응답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등학생(69.9%)의 경우 피곤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피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8%p 더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만 2011년에 비해 0.8%p 더 높아졌을 뿐 초·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표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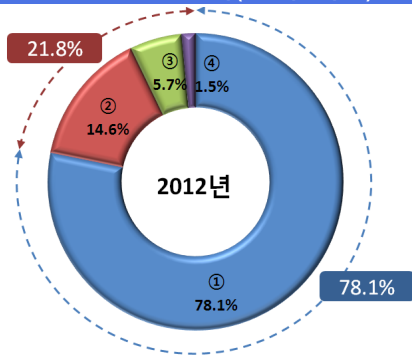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사례 수	①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전체	9,435	37.7	51.8	9.1	1.2	0.1	8,745	40.5	48.1	9.7	1.5	0.2
성별	남	4,874	42.6	48.3	7.7	1.1	4,494	45.3	45.3	7.7	1.5	0.2
	여	4,561	32.5	55.6	10.6	1.3	4,251	35.4	51.2	11.9	1.5	0.1
교급	초	2,943	52.9	42.0	4.3	0.6	3,185	53.9	40.0	5.1	0.9	0.2
	중	2,844	36.0	54.0	8.7	1.1	2,986	35.2	51.2	11.6	1.8	0.2
	고	3,648	26.8	58.0	13.2	1.8	2,574	30.0	54.6	13.4	1.9	0.2

(1)-⑱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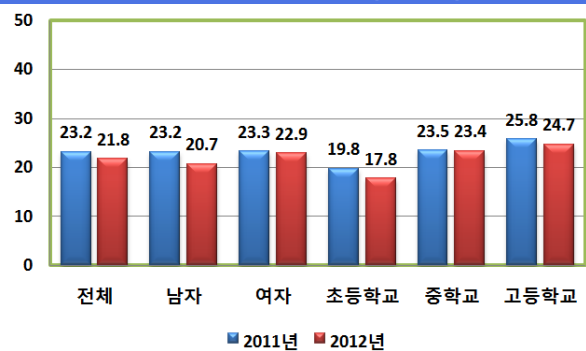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식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1.8%가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식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1.8%는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78.1%는 '식욕이 평소와 다름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 먼저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여학생(22.9%)이 남학생(20.7%)보다 식욕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7.8%)에서 중학생(23.4%), 고등학교(24.7%)으로 올라갈수록 식욕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4%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성별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미미했고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응답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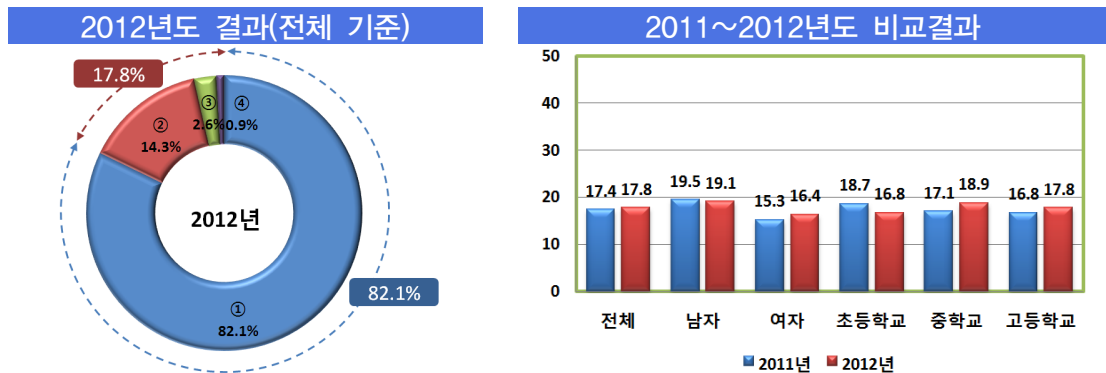
표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줄지 않다	③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요즈음 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무 응답	사례수	①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줄지 않다	③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요즈음 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무 응답
전체	9,435	76.7	16.0	5.8	1.4	0.1	8,745	78.1	14.6	5.7	1.5	0.1
성별	남	4,874	76.6	16.0	5.9	1.3	4,494	79.2	14.0	5.2	1.5	0.1
	여	4,561	76.7	16.0	5.7	1.6	4,251	76.9	15.2	6.3	1.4	0.1
연령	초	2,943	80.0	13.5	4.4	1.9	3,185	82.0	12.3	4.0	1.5	0.2
	중	2,844	76.4	15.8	6.5	1.2	2,986	76.5	15.6	6.4	1.4	0.1
	고	3,648	74.2	18.2	6.3	1.3	2,574	75.2	16.2	7.1	1.4	0.2

(1)-㉑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체중변화’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7.8%가 ‘평소보다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체중변화’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7.8%는 ‘평소보다 체중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2.1%는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 ‘체중이 줄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19.1%)이 여학생(16.4%)보다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18.9%)의 경우가 관련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7.8%), 초등학생(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경우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0.4%p 더 높아졌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조금 더 낮은 응답률이었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만 낮아졌을 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높아졌다.



【그림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표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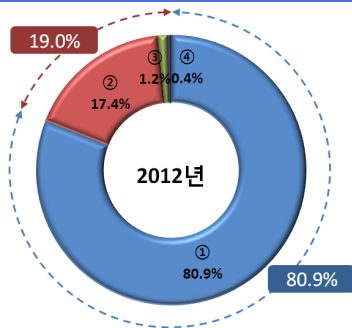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 례 수	①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무응 답	사 례 수	①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무응 답	
전체	9,435	82.5	13.7	2.7	1.0	0.1	8,745	82.1	14.3	2.6	0.9	0.1	
성별	남	4,874	80.4	14.2	3.7	1.6	0.1	4,494	80.8	14.6	3.2	1.3	0.1
	여	4,561	84.7	13.2	1.7	0.4	0.0	4,251	83.6	13.9	2.0	0.5	0.1
교급별	초	2,943	81.2	14.9	2.9	0.9	0.0	3,185	83.2	13.9	2.2	0.7	0.1
	중	2,844	82.8	13.7	2.6	0.8	0.1	2,986	81.1	15.0	2.8	1.1	0.0
	고	3,648	83.2	12.7	2.7	1.4	0.0	2,574	82.1	13.9	2.9	1.0	0.2

(1)-㉔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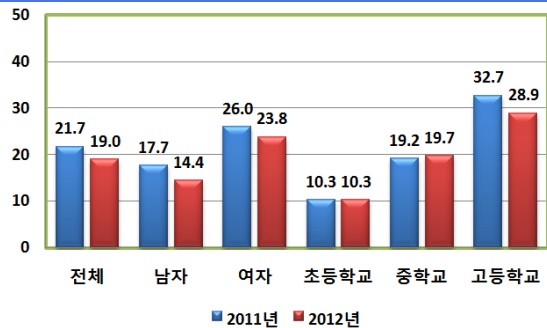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건강에 대한 염려'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9.0%가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건강에 대한 염려'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중 19.0%는 '건강이 염려된다'라고 응답하였고, 80.9%는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14.4%)보다 여학생(23.8%)이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10.3%)에서 중학생(19.7%), 고등학생(28.9%)으로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7%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없고, 중학생은 0.5%p 더 높아졌으며, 고등학생은 3.8%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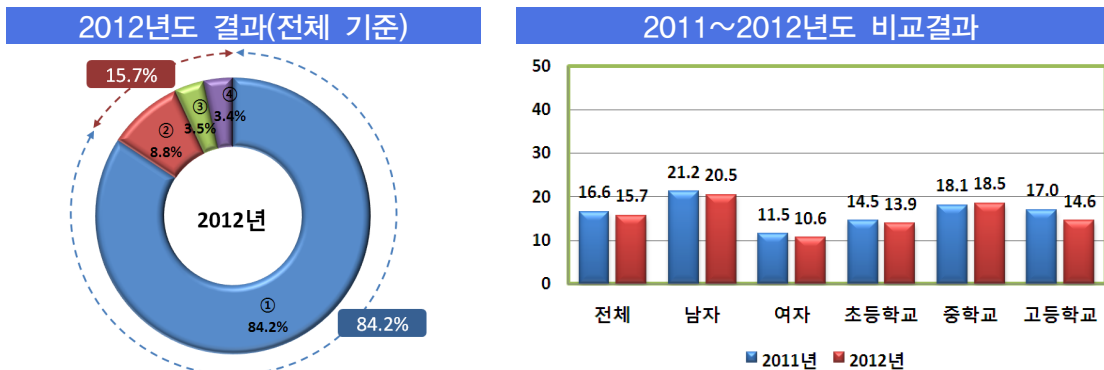
표 II-2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 수	①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여러 통증, 소화불 량, 변 비 등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 고 있다	③건강이 너무 염려되 어 다른 일을 생각하 기 힘들다	④건강이 너무 염려되 어 아무 것도 생각하 지 않다	무응 답	사례 수	①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여러 통증, 소화불 량, 변 비 등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 고 있다	③건강이 너무 염려되 어 다른 일을 생각하 기 힘들다	④건강이 너무 염려되 어 아무 것도 생각하 지 않다	무응 답	
전체	9,435	78.1	19.9	1.3	0.5	0.3	8,745	80.9	17.4	1.2	0.4	0.2	
성별	남	4,874	81.9	15.4	1.6	0.7	0.4	4,494	85.4	12.6	1.3	0.5	0.2
	여	4,561	73.9	24.6	1.1	0.3	0.1	4,251	76.1	22.4	1.2	0.2	0.2
교급별	초	2,943	89.4	8.6	1.2	0.5	0.3	3,185	89.5	9.0	1.0	0.3	0.2
	중	2,844	80.3	18.1	0.9	0.2	0.4	2,986	80.2	17.9	1.4	0.4	0.2
	고	3,648	67.2	30.3	1.8	0.6	0.2	2,574	71.0	27.1	1.3	0.5	0.1

(1)-㉔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성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5.7%가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성에 대한 욕구'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5.7%는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라고 응답하였고, 84.2%는 '변화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 먼저 성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10.6%)보다 남학생(20.5%)에게서 성에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8.5%)의 경우 관련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4.6%), 초등학생(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결과를 비교하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약 0.9%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0.4%p 더 높아진 반면 초고등학생은 응답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표 II-2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①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무응 답	사례수	①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무응 답
전체		9,435	83.3	9.4	3.8	3.4	0.2	8,745	84.2	8.8	3.5	3.4	0.1
성별	남	4,874	78.5	12.1	5.1	4.0	0.3	4,494	79.3	11.3	4.9	4.3	0.2
	여	4,561	88.3	6.4	2.3	2.8	0.1	4,251	89.3	6.1	2.1	2.4	0.1
교급별	초	2,943	85.3	7.4	2.5	4.6	0.1	3,185	86.0	6.3	2.9	4.7	0.1
	중	2,844	81.5	9.1	5.3	3.7	0.4	2,986	81.3	10.1	4.7	3.7	0.1
	고	3,648	83.0	11.2	3.5	2.3	0.1	2,574	85.2	10.2	3.0	1.4	0.2

(2) 불안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불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M=0.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불안요인(M=0.39)’,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M=0.38)’, ‘공황적 불안요인(M=0.22)’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4개의 모든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 불안 수준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II-24 2011~2012년도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45	0.41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50	0.49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69	0.64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0.60	0.53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0.26	0.25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0.27	0.26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11	0.09
소계			0.41	0.38
주관적 불안요인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45	0.40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53	0.49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57	0.55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0.51	0.44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7	0.16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0.33	0.31
소계			0.43	0.39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39	0.34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52	0.47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33	0.31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0.85	0.79
소계			0.52	0.48
공황적 불안요인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51	0.46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0.16	0.13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0.20	0.18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3	0.12
소계			0.25	0.22
불안 영역(전체)			0.40	0.3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불안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및 세부요인을 합산한 불안 전체의 경우 거주지 특성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의 경우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공황적 불안요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서울이 광역시보다,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공황적 불안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사후검증결과가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공황적 불안요인		불안(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i>n</i> =4,494)	0.35 (0.40)	-6.284 ***	0.33 (0.46)	-11.710 ***	0.47 (0.47)	-0.655	0.20 (0.36)	-6.513 ***	0.34 (0.36)	-7.943 ***
	여자 (<i>n</i> =4,251)	0.41 (0.43)		0.45 (0.55)		0.48 (0.50)		0.25 (0.41)		0.40 (0.41)	
교급별	초등학교 (<i>n</i> =3,185)	0.28 (0.36)	166.077 *** (ab,ac)	0.29 (0.45)	100.461 *** (ab,ac, bc)	0.40 (0.44)	77.858 *** (ab,ac, bc)	0.16 (0.32)	73.154 *** (ab,ac)	0.28 (0.33)	149.323 *** (ab,ac, bc)
	중학교 (<i>n</i> =2,986)	0.43 (0.44)		0.42 (0.52)		0.49 (0.50)		0.25 (0.40)		0.40 (0.40)	
	고등학교 (<i>n</i> =2,574)	0.45 (0.43)		0.47 (0.55)		0.56 (0.51)		0.27 (0.42)		0.44 (0.41)	
거주지	서울 (<i>n</i> =1,300)	0.40 (0.45)	1.925	0.38 (0.52)	0.248	0.50 (0.50)	2.267	0.24 (0.42)	3.917* (de)	0.38 (0.41)	1.027
	광역시 (<i>n</i> =2,185)	0.37 (0.40)		0.39 (0.50)		0.46 (0.47)		0.20 (0.35)		0.36 (0.37)	
	시군 (<i>n</i> =5,260)	0.38 (0.41)		0.39 (0.51)		0.48 (0.49)		0.23 (0.39)		0.37 (0.3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i>n</i> =7,681)	0.37 (0.41)	12.233 *** (gh)	0.38 (0.50)	9.101 *** (gh)	0.47 (0.48)	7.752 ** (gh)	0.22 (0.38)	10.690 *** (gh)	0.36 (0.38)	13.515 *** (gh)
	한부모가정 (<i>n</i> =709)	0.45 (0.46)		0.47 (0.57)		0.55 (0.52)		0.29 (0.44)		0.44 (0.44)	
	조손가정 (<i>n</i> =147)	0.42 (0.42)		0.43 (0.57)		0.46 (0.49)		0.23 (0.41)		0.40 (0.41)	
전체 <i>M</i> (<i>SD</i>)		0.38(0.42)		0.39(0.51)		0.48(0.48)		0.22(0.39)		0.37(0.39)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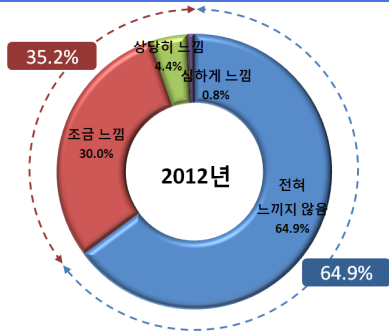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①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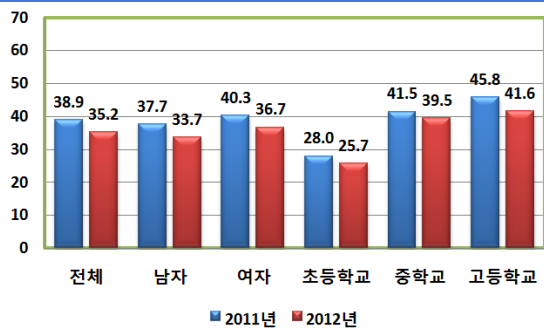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5.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4.9%로 응답**

-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5.2%가 ‘느낀다’, 64.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6.7%)이 남학생(33.7%)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25.7%)에서 중학생(39.5%), 고등학교(41.6%)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38.9%)에 비해 2012년(35.2%)의 경우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3.7%p 더 낮아졌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2】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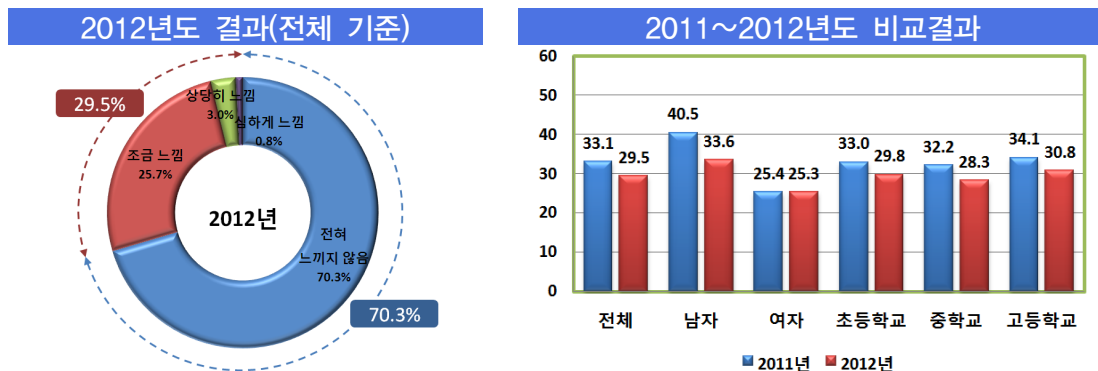
표 II-26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1.0	33.8	4.3	0.8	0.0	8,745	64.9	30.0	4.4	0.8	0.0
성 별	남	4,874	62.3	32.6	4.1	1.0	0.0	4,494	66.4	29.1	3.8	0.8	0.0
	여	4,561	59.7	35.1	4.5	0.7	0.0	4,251	63.3	30.9	5.0	0.8	0.0
교 급 별	초	2,943	72.0	24.7	2.6	0.7	0.0	3,185	74.3	22.5	2.5	0.7	0.0
	중	2,844	58.5	36.4	4.4	0.7	0.0	2,986	60.5	33.0	5.7	0.8	0.0
	고	3,648	54.1	39.1	5.6	1.1	0.0	2,574	58.4	35.7	5.1	0.8	0.1

(2)-②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9.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0.3%로 응답

-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5%가 ‘느낀다’ 고 응답하였고, 70.3%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서는 남학생(33.6%)이 여학생(25.3%)보다 자신이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3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초등학생(29.8%), 중학생(28.3%)의 순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29.5%)이 2011년(33.1%)에 비해 상기증상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3.6%p 더 낮아졌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2011년에 비해 6.9%p나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자신이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3】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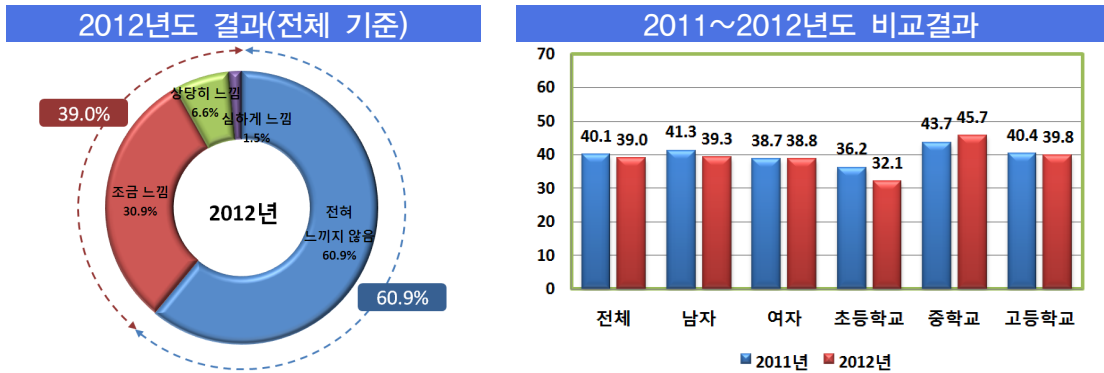
표 II-27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6.8	28.6	3.7	0.8	0.1	8,745	70.3	25.7	3.0	0.8	0.1
성별	남	4,874	59.4	34.4	4.8	1.3	0.1	4,494	66.3	29.0	3.6	1.0	0.0
	여	4,561	74.6	22.5	2.5	0.4	0.1	4,251	74.6	22.3	2.4	0.6	0.1
교급별	초	2,943	66.8	28.7	3.5	0.8	0.0	3,185	70.1	26.0	3.1	0.7	0.1
	중	2,844	67.8	28.0	3.6	0.6	0.2	2,986	71.6	24.8	2.7	0.8	0.1
	고	3,648	66.0	29.1	3.9	1.1	0.0	2,574	69.2	26.4	3.3	1.1	0.0

(2)-③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9.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0.9%로 응답**

-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9.0%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60.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9.3%)이 여학생(38.8%)보다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45.7%)의 경우에서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39.8%), 초등학생(32.1%)의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39.0%)이 2011년(40.1%)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는 비율이 1.1%p 더 낮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만 2011년과 비교해서 2.0%p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II-24】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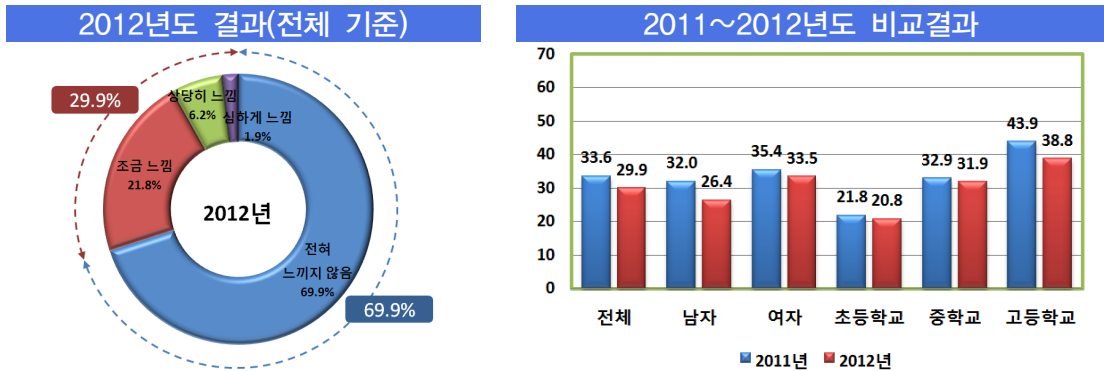
표 II-28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59.7	31.6	6.9	1.6	0.2	8,745	60.9	30.9	6.6	1.5	0.1	
성 별	남	4,874	58.4	32.1	7.5	1.7	0.3	4,494	60.6	30.9	6.8	1.6	0.1
	여	4,561	61.2	31.0	6.2	1.5	0.1	4,251	61.2	31.0	6.4	1.4	0.1
교 급 별	초	2,943	63.5	29.3	5.5	1.4	0.3	3,185	67.7	26.3	4.8	1.0	0.2
	중	2,844	56.0	33.6	8.2	1.9	0.2	2,986	54.2	35.1	8.9	1.7	0.1
	고	3,648	59.6	31.8	7.0	1.6	0.1	2,574	60.1	31.9	6.1	1.8	0.1

(2)-④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편하게 쉴 수가 없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9.9%,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9.9%로 응답**

- ‘나는 편하게 쉴 수가 없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9%가 ‘느낀다’ 라고 응답하였고, 69.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느낀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3.5%)이 남학생(26.4%)보다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20.8%), 중학생(31.9%), 고등학생(38.8%)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상기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29.9%)이 2011년(33.6%)에 비해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림 II-25】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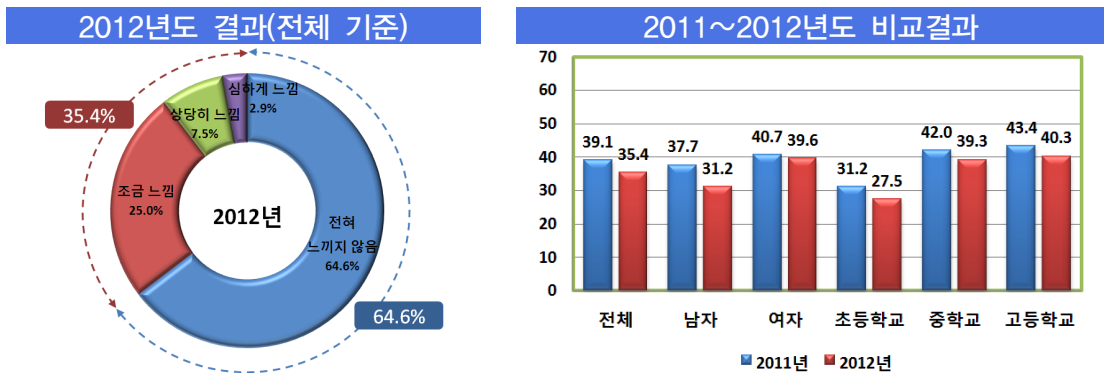
표 II-29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6.1	24.1	7.5	2.0	0.2	8,745	69.9	21.8	6.2	1.9	0.2	
성 별	남	4,874	67.7	23.2	6.5	2.3	0.2	4,494	73.3	19.8	5.1	1.5	0.3
	여	4,561	64.3	25.0	8.7	1.7	0.2	4,251	66.4	23.9	7.4	2.2	0.1
교 급 별	초	2,943	77.8	16.0	3.9	1.9	0.4	3,185	79.1	15.0	3.9	1.9	0.2
	중	2,844	66.8	24.9	6.6	1.4	0.2	2,986	67.9	23.5	6.5	1.9	0.1
	고	3,648	56.1	30.1	11.2	2.6	0.1	2,574	61.0	28.1	8.8	1.9	0.3

(2)-⑤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5.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4.6%로 응답**

-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한 문항에서, ‘느낀다’의 응답률은 35.4%,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64.6%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39.6%)이 남학생(31.2%)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4%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7.5%)에서 중학생(39.3%), 고등학생(40.3%)으로 올라갈수록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2012년(35.4%)이 2011년(39.1%)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3.7%p 더 낮았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림 II-26】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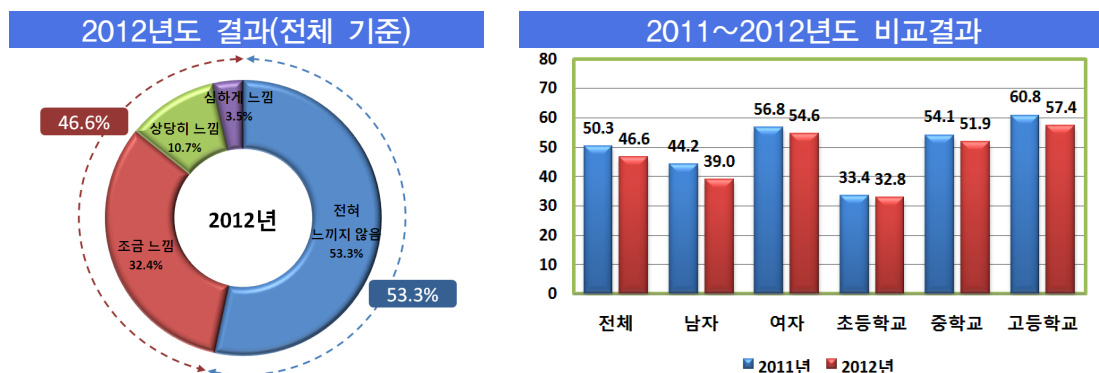
표 II-30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0.6	28.5	7.7	2.9	0.2	8,745	64.6	25.0	7.5	2.9	0.1
성별	남	4,874	62.1	27.3	7.0	3.4	0.2	4,494	68.6	22.2	6.5	2.5	0.2
	여	4,561	59.0	29.8	8.4	2.5	0.2	4,251	60.3	27.9	8.5	3.2	0.1
교급별	초	2,943	68.4	23.5	5.3	2.4	0.3	3,185	72.3	20.1	4.5	2.9	0.2
	중	2,844	58.0	30.5	8.3	3.2	0.1	2,986	60.6	27.3	9.2	2.8	0.1
	고	3,648	56.4	31.0	9.2	3.2	0.2	2,574	59.6	28.3	9.1	2.9	0.2

(2)-⑥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46.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3.3%로 응답**

-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6.6%는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53.3%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54.6%)이 남학생(39.0%)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p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32.8%)에서 중학생(51.9%), 고등학생(57.4%)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현기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46.6%)이 2011년(50.3%)에 비해 현기증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3.7%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27】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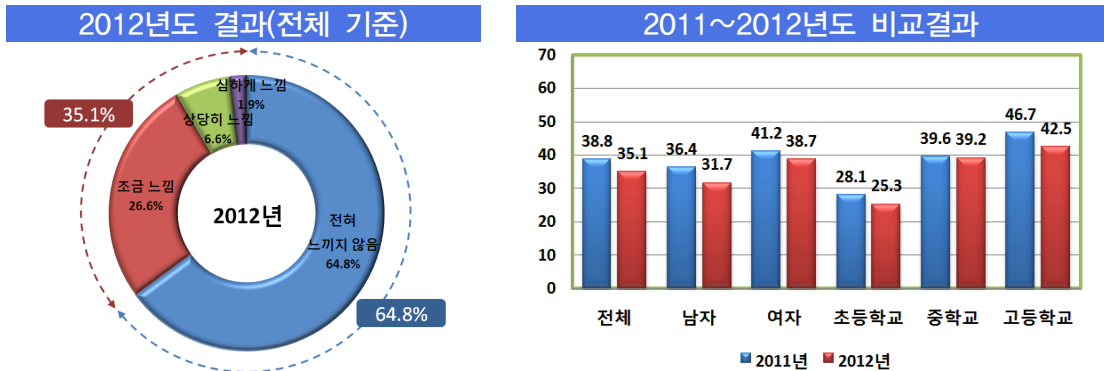
표 II-31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49.6	35.4	11.0	3.9	0.1	8,745	53.3	32.4	10.7	3.5	0.1
성별	남	4,874	55.7	31.9	9.2	3.1	0.2	4,494	60.9	28.3	8.1	2.6	0.2
	여	4,561	43.2	39.1	12.9	4.8	0.0	4,251	45.3	36.8	13.4	4.4	0.1
교급별	초	2,943	66.5	25.7	5.6	2.1	0.1	3,185	67.0	25.3	5.3	2.2	0.2
	중	2,844	45.7	37.3	12.1	4.7	0.1	2,986	48.1	33.3	14.2	4.4	0.1
	고	3,648	39.1	41.7	14.4	4.7	0.1	2,574	42.5	40.2	13.2	4.0	0.0

(2)-⑦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5.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4.8%로 나타남**

-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5.1%는 ‘느낀다’ , 64.8%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8.7%)이 남학생(31.7%)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0%p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42.5%)이 초등학생(25.3%)이나 중학생(39.2%)에 비해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35.1%)이 2011년(38.8%)에 비해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고 느끼는 경우는 3.7%p 더 낮아졌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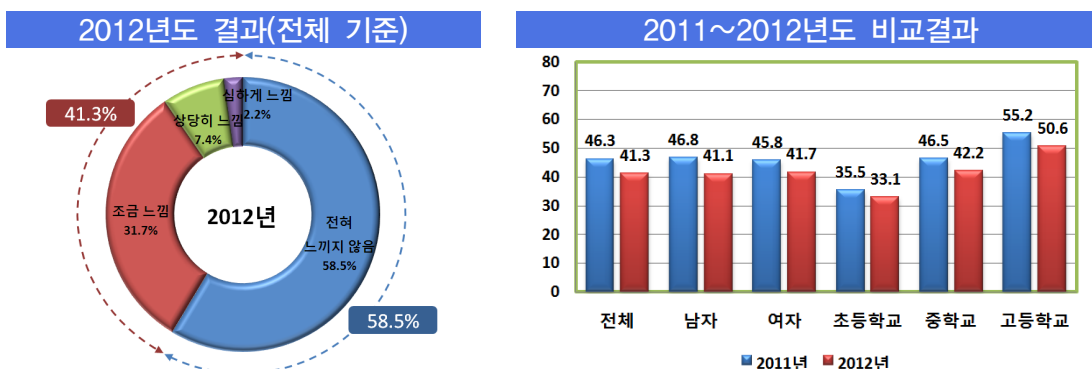
표 II-32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1.2	28.8	7.8	2.2	0.1	8,745	64.8	26.6	6.6	1.9	0.1
성별	남	4,874	63.4	27.2	7.1	2.1	0.1	4,494	68.1	24.3	5.8	1.6	0.1
	여	4,561	58.8	30.4	8.6	2.2	0.1	4,251	61.2	29.0	7.5	2.2	0.2
교급	초	2,943	71.8	22.1	4.7	1.3	0.1	3,185	74.5	20.7	3.3	1.3	0.2
	중	2,844	60.3	29.5	8.0	2.1	0.1	2,986	60.7	29.1	8.2	1.9	0.1
	고	3,648	53.3	33.6	10.2	2.9	0.1	2,574	57.4	31.1	8.9	2.5	0.1

(2)-⑧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41.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8.5%로 응답

-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3%가 ‘느낀다’ 고 응답한 반면, 58.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41.7%)이 남학생(41.1%)보다 자신이 침착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0.6%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33.1%)에서 중학생(42.2%), 고등학생(50.6%)으로 갈수록 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41.3%)이 2011년(46.3%)에 비해 나는 침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림 II-29】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표 II-33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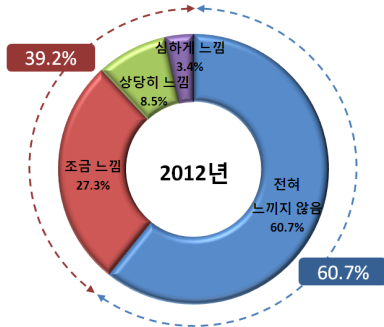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53.5	35.0	8.9	2.4	0.1	8,745	58.5	31.7	7.4	2.2	0.2
성 별	남	4,874	53.1	34.8	9.2	2.8	0.1	4,494	58.7	31.2	7.5	2.4	0.2
	여	4,561	54.1	35.2	8.6	2.0	0.0	4,251	58.2	32.3	7.4	2.0	0.2
교 급 별	초	2,943	64.5	28.8	5.0	1.7	0.1	3,185	66.8	26.3	4.6	2.2	0.1
	중	2,844	53.5	35.3	8.8	2.4	0.1	2,986	57.7	31.9	7.8	2.5	0.1
	고	3,648	44.8	39.8	12.2	3.2	0.1	2,574	49.2	38.2	10.5	1.9	0.3

(2)-⑨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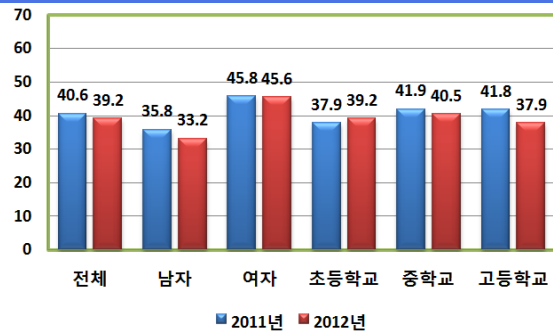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은 39.2%,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경우 60.7%로 나타남**

-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9.2%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60.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45.6%)이 남학생(33.2%)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40.5%)에게서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39.2%), 고등학교(37.9%)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39.2%)이 2011년(40.6%)에 비해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1.4%p 더 낮아졌고,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6%p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011년보다 1.3%p 더 높아졌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의 결과가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0】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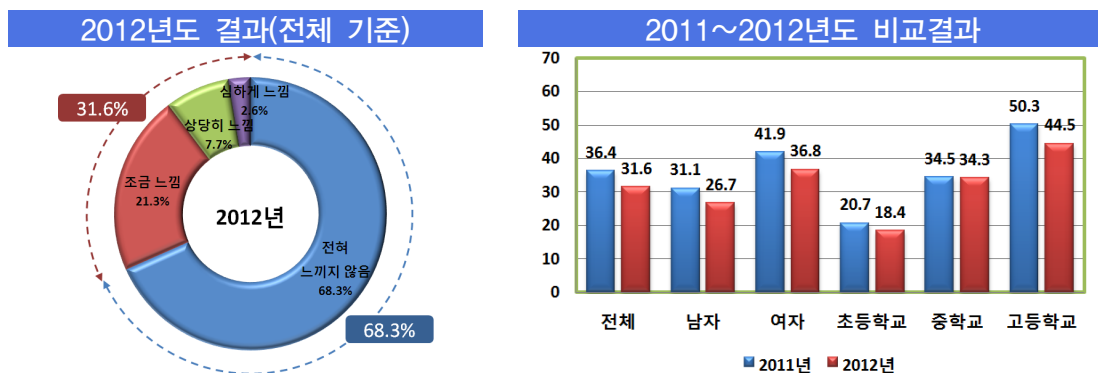
표 II-34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59.2	28.2	8.9	3.5	0.1	8,745	60.7	27.3	8.5	3.4	0.1
성별	남	4,874	64.0	26.4	6.8	2.6	0.2	4,494	66.7	23.9	6.6	2.7	0.1
	여	4,561	54.1	30.1	11.2	4.5	0.1	4,251	54.4	30.9	10.6	4.1	0.1
교급별	초	2,943	61.8	26.3	7.3	4.3	0.2	3,185	60.8	27.3	7.9	4.0	0.1
	중	2,844	57.9	29.1	9.5	3.3	0.1	2,986	59.5	28.0	9.0	3.5	0.0
	고	3,648	58.1	29.0	9.7	3.1	0.1	2,574	62.0	26.6	8.7	2.6	0.1

(2)-⑩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는 31.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8.3%로 나타남**

-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에 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1.6%는 ‘느낀다’, 68.3%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6.8%)이 남학생(26.7%)보다 자신이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8.4%)에서 중학생(34.3%), 고등학교(44.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31.6%)이 2011년(36.4%)에 비해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4.8%p 더 낮았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각각 2.3%p와 5.8%p씩 더 낮아졌으며, 중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림 II-31】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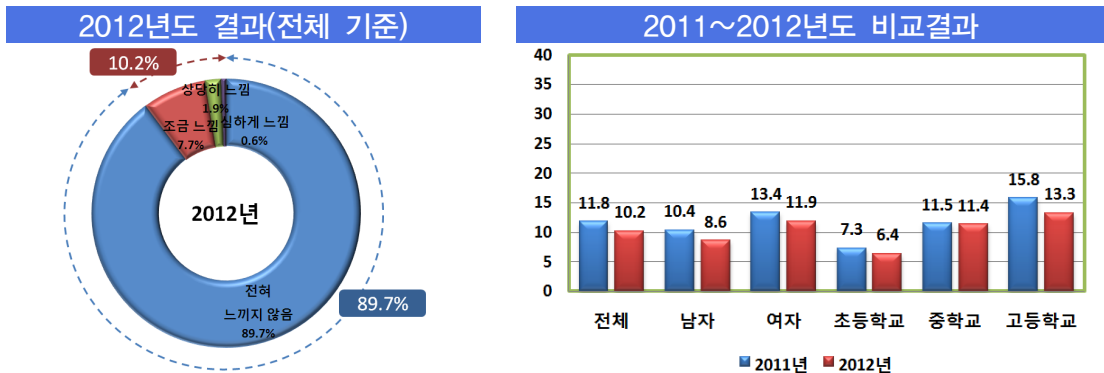
표 II-35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3.6	24.5	8.9	3.0	0.1	8,745	68.3	21.3	7.7	2.6	0.2
성별	남	4,874	68.8	21.9	7.0	2.2	0.1	4,494	73.2	18.7	6.0	2.0	0.2
	여	4,561	58.0	27.2	10.9	3.8	0.1	4,251	63.0	24.0	9.6	3.2	0.3
교급별	초	2,943	79.3	15.3	3.6	1.8	0.1	3,185	81.2	13.6	3.2	1.6	0.3
	중	2,844	65.3	24.4	8.0	2.1	0.2	2,986	65.5	23.0	8.4	2.9	0.1
	고	3,648	49.6	31.9	13.8	4.6	0.1	2,574	55.4	28.7	12.5	3.3	0.2

(2)-⑪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0.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9.7%로 응답**

-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10.2%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9.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증상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1.9%)이 남학생(8.6%)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6.4%)에서 중학생(11.4%), 고등학생(13.3%)으로 갈수록 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초등학교의 응답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0.2%)은 2011년(11.8%)에 비해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1.6%p 낮아졌는데,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2】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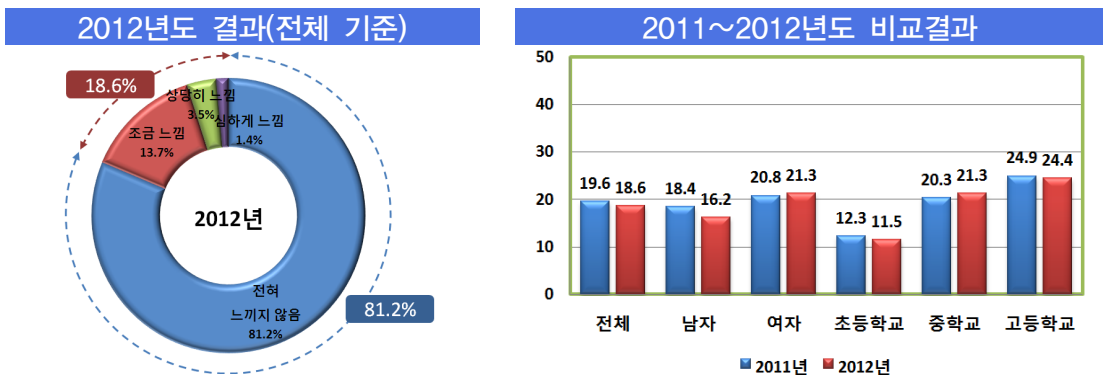
표 II-36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88.1	8.8	2.2	0.8	0.1	8,745	89.7	7.7	1.9	0.6	0.1
성별	남	4,874	89.4	7.9	1.6	0.9	0.2	4,494	91.3	6.3	1.8	0.5	0.1
	여	4,561	86.6	9.8	2.8	0.8	0.0	4,251	88.0	9.2	2.0	0.7	0.0
교급별	초	2,943	92.6	5.8	1.1	0.4	0.2	3,185	93.5	5.1	0.9	0.4	0.0
	중	2,844	88.5	8.5	2.0	1.0	0.1	2,986	88.4	8.9	1.9	0.6	0.1
	고	3,648	84.2	11.5	3.2	1.1	0.1	2,574	86.5	9.6	3.0	0.7	0.1

(2)-⑫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8.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1.2%로 나타남

-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8.6%가 ‘느낀다’ 고 응답하였고, 81.2%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21.3%)이 남학생(16.2%)보다 자주 손이 떨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1.5%)에서 중학생(21.3%), 고등학생(24.4%)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8.6%)이 2011년(19.6%)에 비해 자주 손이 떨린다는 응답률이 1.0%p 더 낮아졌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과 반대로 여학생은 2011년(20.8%)에 비해 2012년(21.3%)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졌고, 교급별 비교에서 초·고등학생은 2011년 결과에 비교해 각각 0.8%p와 0.5%p씩 더 낮아진 반면 중학생은 1.0%p 더 높아졌다.



【그림 II-33】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표 II-37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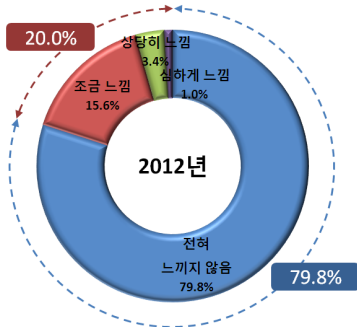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80.3	14.6	3.6	1.4	0.1	8,745	81.2	13.7	3.5	1.4	0.1
성별	남	4,874	81.4	13.7	3.4	1.3	0.1	4,494	83.8	11.8	3.0	1.4	0.1
	여	4,561	79.2	15.6	3.7	1.5	0.0	4,251	78.6	15.7	4.1	1.5	0.1
교급별	초	2,943	87.7	9.8	1.8	0.7	0.0	3,185	88.4	9.1	1.6	0.8	0.0
	중	2,844	79.6	15.0	3.7	1.6	0.2	2,986	78.5	15.4	4.4	1.5	0.1
	고	3,648	75.0	18.2	4.9	1.8	0.1	2,574	75.6	17.4	4.8	2.2	0.1

(2)-⑬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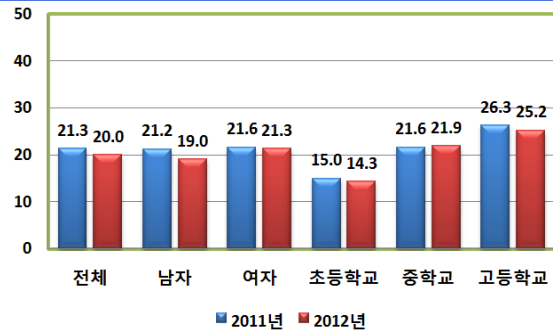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0.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9.8%로 응답**

-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20.0%가 ‘느낀다’ , 79.8%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21.3%)이 남학생(19.0%)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3%p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25.2%)이 초등학생(14.3%) 및 중학생(21.9%)에 비해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1년(21.3%)에 비해 2012년(20.0%)이 안절부절 못한다는 응답률이 1.3%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각각 0.7%p 및 1.1%p씩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2012년(21.9%)의 응답률이 2011년(21.6%)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4】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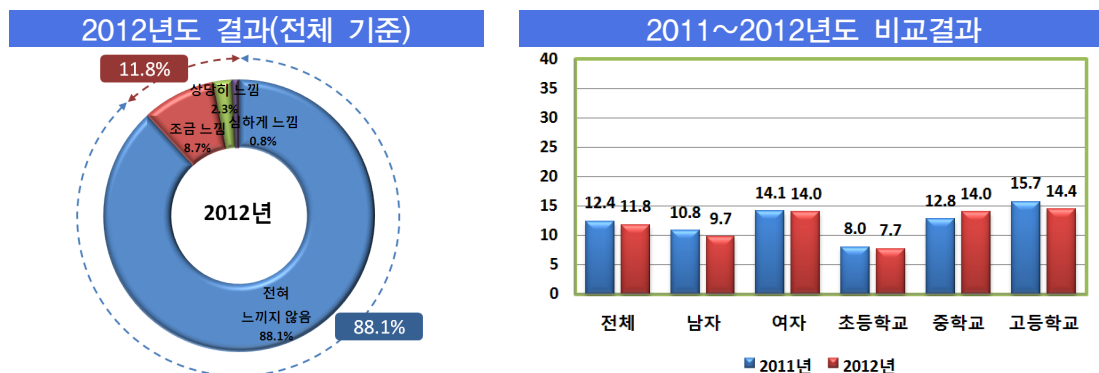
표 II-38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78.5	17.0	3.3	1.0	0.1	8,745	79.8	15.6	3.4	1.0	0.0
성 별	남	4,874	78.7	16.9	3.1	1.2	0.1	4,494	81.0	14.9	3.2	0.9	0.0
	여	4,561	78.4	17.2	3.5	0.9	0.0	4,251	78.7	16.4	3.7	1.2	0.0
교 급 별	초	2,943	84.8	12.5	1.9	0.6	0.1	3,185	85.7	11.3	2.0	1.0	0.0
	중	2,844	78.3	17.2	3.2	1.2	0.1	2,986	78.0	16.5	4.5	0.9	0.0
	고	3,648	73.6	20.6	4.5	1.2	0.1	2,574	74.7	20.0	4.0	1.2	0.1

(2)-⑭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1.8%,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대다수인 88.1%가 응답

-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1.8%가 ‘느낀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1%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2012년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4.0%)이 남학생(9.7%)보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7%)에서 중학생(14.0%), 고등학교(14.4%)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1.8%)이 2011년(12.4%)에 비해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0.6%p 낮아졌고,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011년에 비해 1.1%p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의 결과가 조금씩 낮아졌으나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1.2%p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그림 II-35】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표 II-39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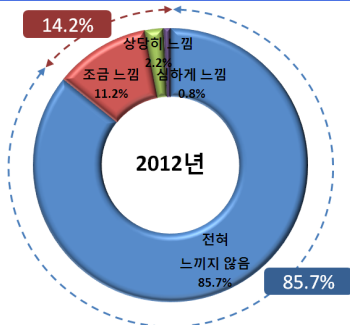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87.5	9.1	2.3	1.0	0.1	8,745	88.1	8.7	2.3	0.8	0.1
성별	남	4,874	89.1	8.1	1.7	1.0	0.1	4,494	90.2	7.2	1.8	0.7	0.1
	여	4,561	85.8	10.2	3.0	0.9	0.0	4,251	85.9	10.3	2.7	1.0	0.1
교급별	초	2,943	91.9	5.6	1.7	0.7	0.1	3,185	92.3	5.5	1.4	0.8	0.1
	중	2,844	87.1	9.7	2.0	1.1	0.1	2,986	85.9	10.4	2.8	0.8	0.1
	고	3,648	84.3	11.5	3.2	1.0	0.0	2,574	85.5	10.6	2.8	1.0	0.1

(2)-⑮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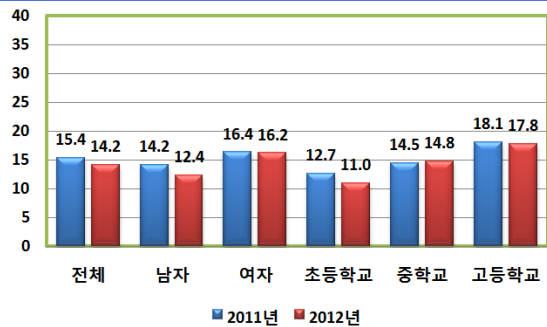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4.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5.7%로 나타남**

-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4.2%가 ‘느낀다’ 라고 응답했고, 85.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6.2%)이 남학생(12.4%)보다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3.8%p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11.0%)에서 중학생(14.8%), 고등학생(17.8%)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14.2%)이 2011년(15.4%)에 비해 상기증상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1.2%p 더 낮아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남학생,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연도별 비교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미하지만 0.3%p정도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6】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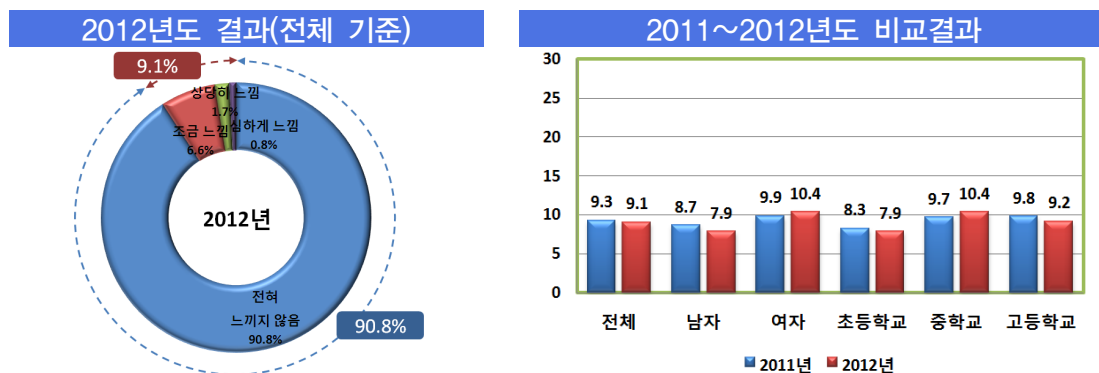
표 II-40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84.6	11.8	2.6	1.0	0.0	8,745	85.7	11.2	2.2	0.8	0.1
성별	남	4,874	85.7	11.0	2.2	1.0	0.1	4,494	87.5	9.6	2.1	0.7	0.0
	여	4,561	83.5	12.5	3.0	0.9	0.0	4,251	83.7	12.9	2.3	1.0	0.1
교급별	초	2,943	87.3	10.2	1.8	0.7	0.0	3,185	89.0	8.8	1.6	0.6	0.1
	중	2,844	85.4	11.1	2.4	1.0	0.1	2,986	85.1	11.7	2.2	0.9	0.0
	고	3,648	81.9	13.6	3.4	1.1	0.0	2,574	82.2	13.8	2.9	1.1	0.1

(2)-⑯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9.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0.8%로 응답**

-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9.1%에 불과하였으나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은 대다수인 90.8%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먼저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여학생(10.4%)이 남학생(7.9%)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0.4%)이 가장 높은 비율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9.2%), 초등학교(7.9%) 순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9.1%)과 2011년(9.3%)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2011년에 비해 0.8%p 더 낮은 응답률이었고, 여학생은 0.5%p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은 2011년보다 0.7%p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 반면 초·고등학생은 조금 더 낮은 응답률이었다.



【그림 II-37】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표 II-41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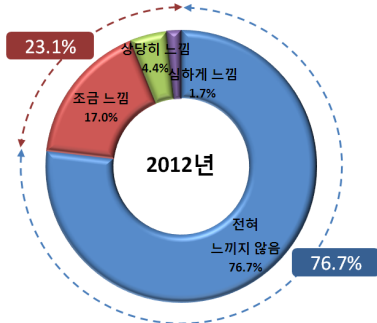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90.6	6.7	1.9	0.7	0.0	8,745	90.8	6.6	1.7	0.8	0.1
성별	남	4,874	91.3	6.2	1.7	0.8	0.0	4,494	91.9	5.7	1.5	0.7	0.1
	여	4,561	90.0	7.2	2.1	0.6	0.0	4,251	89.5	7.6	2.0	0.8	0.1
교급별	초	2,943	91.5	6.0	1.5	0.8	0.0	3,185	92.0	5.8	1.2	0.9	0.2
	중	2,844	90.3	6.6	2.3	0.8	0.1	2,986	89.5	7.4	2.3	0.7	0.1
	고	3,648	90.2	7.3	1.9	0.6	0.0	2,574	90.7	6.9	1.6	0.7	0.1

(2)-⑰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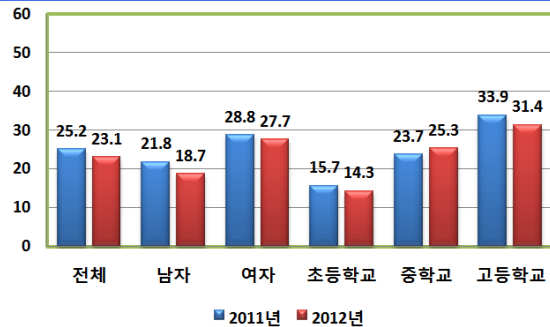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3.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6.7%로 나타남**

-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1%는 ‘느낀다’, 76.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27.7%)이 남학생(18.7%)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9.0%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4.3%)에서 중학생(25.3%), 고등학생(31.4%)으로 갈수록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23.1%)이 2011년(25.2%)에 비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p 더 낮아졌고, 성별 비교 및 교급별 비교 중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1.6%p 더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8】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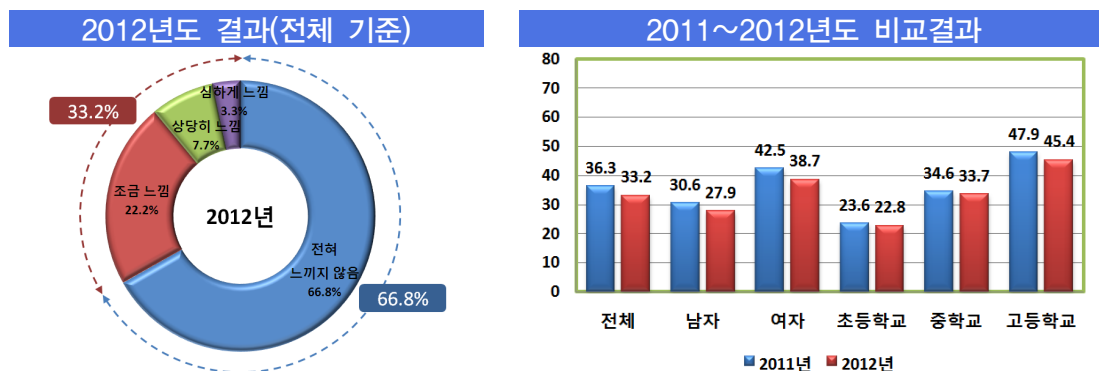
표 II-42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74.8	19.0	4.5	1.7	0.1	8,745	76.7	17.0	4.4	1.7	0.2
성별	남	4,874	78.1	16.7	3.7	1.4	0.1	4,494	81.1	14.3	3.2	1.2	0.2
	여	4,561	71.1	21.4	5.3	2.1	0.1	4,251	72.1	20.0	5.5	2.2	0.1
교급별	초	2,943	84.2	12.5	2.1	1.1	0.1	3,185	85.4	10.9	2.4	1.0	0.2
	중	2,844	76.2	17.8	4.4	1.5	0.1	2,986	74.5	18.7	4.7	1.9	0.2
	고	3,648	66.0	25.1	6.4	2.4	0.1	2,574	68.5	22.7	6.4	2.3	0.1

(2)-⑱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3.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6.8%로 응답**

-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2%가 ‘느낀다’ 고 응답한 반면, 66.8%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느낀다’ 라고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8.7%)이 남학생(27.9%)보다 자주 소화가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22.8%)에서 중학생(33.7%), 고등학교(45.4%)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2년(33.2%)이 2011년(36.3%)에 비해 상기증상을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이 3.1%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림 II-39】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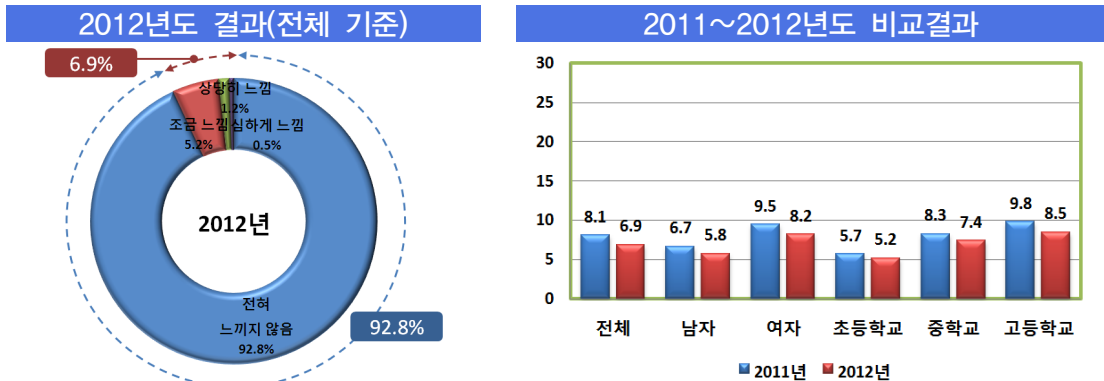
표 II-43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63.7	24.5	8.3	3.5	0.0	8,745	66.8	22.2	7.7	3.3	0.1
성별	남	4,874	69.5	21.1	7.1	2.4	0.0	4,494	72.0	19.4	6.1	2.4	0.1
	여	4,561	57.5	28.2	9.6	4.7	0.1	4,251	61.2	25.1	9.3	4.3	0.1
교급별	초	2,943	76.4	18.5	3.8	1.3	0.0	3,185	77.1	17.2	3.9	1.7	0.1
	중	2,844	65.4	23.3	8.3	3.0	0.0	2,986	66.2	22.6	7.5	3.6	0.0
	고	3,648	52.0	30.3	12.0	5.6	0.1	2,574	54.5	27.8	12.5	5.1	0.2

(2)-⑬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6.9%,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2.8%로 응답

-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라는 문항과 관련해서, ‘느끼나’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9%,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는 응답은 대다수인 92.8%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8.2%)이 남학생(5.8%)보다 자신이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초등학생(5.2%)에서 중학생(7.4%), 고등학생(8.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8.1%)에 비해 2012년(6.9%)이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1.2%p 더 낮았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40】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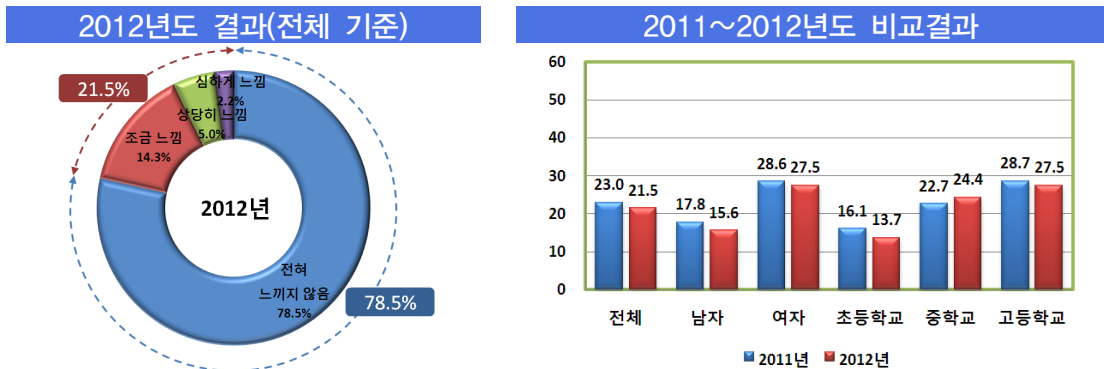
표 II-44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91.8	6.2	1.3	0.6	0.2	8,745	92.8	5.2	1.2	0.5	0.2
성 별	남	4,874	93.1	5.1	1.0	0.6	0.2	4,494	94.0	4.3	1.0	0.5	0.2
	여	4,561	90.4	7.3	1.6	0.6	0.1	4,251	91.6	6.3	1.4	0.5	0.2
교 급 별	초	2,943	94.2	4.6	0.8	0.3	0.1	3,185	94.6	3.9	0.9	0.4	0.1
	중	2,844	91.5	6.4	1.3	0.6	0.3	2,986	92.2	5.4	1.4	0.6	0.3
	고	3,648	90.1	7.4	1.6	0.8	0.1	2,574	91.3	6.6	1.4	0.5	0.2

(2)-㉔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에 대해서
‘느낀다’는 21.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8.5%로 나타남**

-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21.5%가 ‘느낀다’ 고 응답했고, 78.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27.5%)이 남학생(15.6%)보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3.7%)에서 중학생(24.4%), 고등학교(27.5%)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21.5%)이 2011년(23.0%)에 비해 자주 얼굴이 붉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1.5%p 더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각각 2.4%p 및 1.2%p씩 낮아진 반면, 중학생은 2011년(22.7%)에 비해 2012년(24.4%)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1】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표 II-45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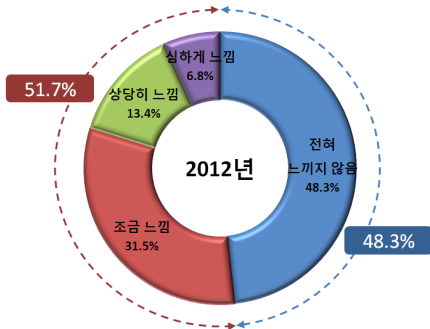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76.9	15.6	5.1	2.3	0.1	8,745	78.5	14.3	5.0	2.2	0.1
성별	남	4,874	82.1	12.5	3.7	1.6	0.1	4,494	84.2	11.0	3.0	1.6	0.1
	여	4,561	71.3	19.0	6.5	3.1	0.1	4,251	72.4	17.7	7.0	2.8	0.2
교급별	초	2,943	83.7	12.1	2.7	1.3	0.1	3,185	86.2	10.4	2.4	0.9	0.2
	중	2,844	77.1	15.3	5.2	2.2	0.2	2,986	75.5	14.9	6.7	2.8	0.1
	고	3,648	71.2	18.7	6.8	3.2	0.0	2,574	72.4	18.5	6.0	3.0	0.1

(2)-㉑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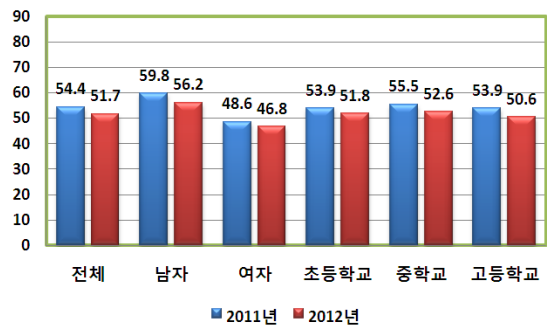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51.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48.3%로 응답**

-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1.7%가 ‘느낀다’ 라고 응답한 반면, 48.3%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느낀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56.2%)이 여학생(46.8%)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25.7%)의 경우가 초등학교생(51.8%) 및 고등학생(5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51.7%)이 2011년(54.4%)에 비해 상기증상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2.7%p 더 낮아졌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2】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표 II-46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9,435	45.6	31.3	15.3	7.8	0.0	8,745	48.3	31.5	13.4	6.8	0.1
성별	남	4,874	40.1	31.3	18.0	10.5	0.0	4,494	43.7	31.8	15.6	8.8	0.1
	여	4,561	51.4	31.3	12.3	5.0	0.0	4,251	53.1	31.3	10.9	4.6	0.0
교급	초	2,943	46.1	32.3	13.9	7.7	0.0	3,185	48.2	32.7	12.3	6.8	0.1
	중	2,844	44.4	31.4	16.0	8.1	0.1	2,986	47.4	32.3	13.4	6.9	0.1
	고	3,648	46.1	30.4	15.8	7.7	0.0	2,574	49.4	29.3	14.7	6.6	0.1

(3) 게임 중독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M=1.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지향적 생활(M=1.20)’,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M=1.13)’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 및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
 게임 중독 수준이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

표 II-47 2011~2012년도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게임 지향적 생활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1.42	1.35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1.25	1.21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1.18	1.13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1.16	1.13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1.20	1.16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27	1.20
소계			1.25	1.20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38	1.28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31	1.24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23	1.19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34	1.26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28	1.22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37	1.28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24	1.20
소계			1.31	1.24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1.19	1.15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1.26	1.22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1.07	1.06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1.08	1.06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12	1.09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1.28	1.21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1.18	1.14
소계			1.17	1.13
게임 중독 영역(전체)			1.24	1.1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부요인인 게임지향적 생활, 게임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금단과 정서경험에 대해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거주지별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게임중독의 모든 세부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모든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이 광역시에 비해 게임내성과 통제력 상실을 제외한 전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모든 세부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게임중독별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4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48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 중독 (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1.25 (0.41)	14.807***	1.35 (0.50)	26.548***	1.20 (0.39)	21.163***	1.27 (0.38)	24.271***
	여자 (n=4,251)	1.14 (0.32)		1.11 (0.30)		1.06 (0.22)		1.10 (0.24)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1.17 (0.37)	21.460*** (ab,bc)	1.19 (0.39)	36.071*** (ab,ac, bc)	1.11 (0.31)	18.606*** (ab,ac, bc)	1.15 (0.31)	34.182*** (ab,ac, bc)
	중학교 (n=2,986)	1.23 (0.40)		1.28 (0.46)		1.16 (0.35)		1.22 (0.35)	
	고등학교 (n=2,574)	1.19 (0.36)		1.25 (0.44)		1.13 (0.32)		1.19 (0.33)	
거주지	서울 (n=1,300)	1.22 (0.44)	11.775*** (de,ef)	1.24 (0.45)	0.662	1.15 (0.37)	3.857* (de)	1.20 (0.37)	4.089* (de)
	광역시 (n=2,185)	1.16 (0.33)		1.23 (0.42)		1.12 (0.30)		1.17 (0.31)	
	시군 (n=5,260)	1.20 (0.38)		1.24 (0.43)		1.13 (0.32)		1.19 (0.3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1.19 (0.36)	26.196*** (gh,gi)	1.23 (0.42)	9.791*** (gh,gi)	1.13 (0.32)	5.130** (gh)	1.18 (0.32)	15.640*** (gh,gi)
	한부모가정 (n=709)	1.28 (0.46)		1.29 (0.51)		1.17 (0.40)		1.24 (0.41)	
	조손가정 (n=147)	1.30 (0.49)		1.31 (0.50)		1.16 (0.33)		1.25 (0.36)	
전체 <i>M</i> (<i>SD</i>)		1.20(0.38)		1.24(0.43)		1.13(0.33)		1.19(0.33)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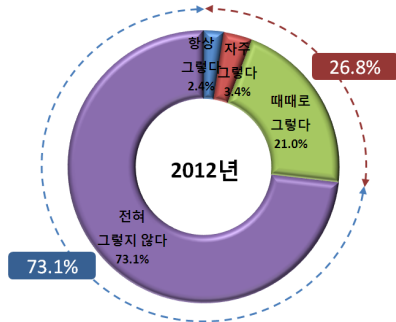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3)-①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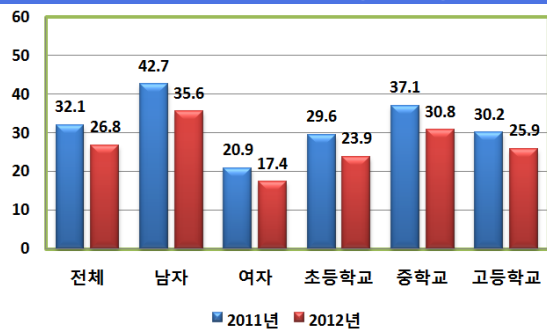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26.8%, ‘그렇지 않다’는 73.1%가 응답**

-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7.4%)에 비해 남학생(35.6%)이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의 경우가 30.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25.9%), 초등학생(23.9%)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26.8%)이 2011년(32.1%)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3%p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3】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표 II-49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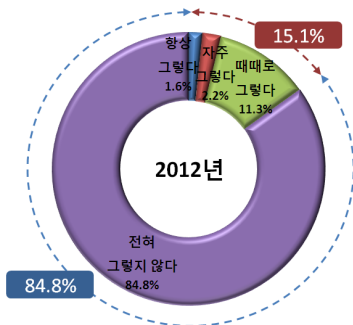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3.1	4.0	25.0	67.8	0.0	8,745	2.4	3.4	21.0	73.1	0.0
성별	남	4,874	4.0	5.4	33.3	57.3	4,494	2.6	4.6	28.4	64.3	0.0
	여	4,561	2.2	2.6	16.1	79.1	4,251	2.1	2.2	13.1	82.5	0.0
교 급 별	초	2,943	4.4	3.5	21.7	70.3	3,185	2.9	3.0	18.0	76.0	0.1
	중	2,844	3.0	4.9	29.2	62.9	2,986	2.5	4.0	24.3	69.2	0.0
	고	3,648	2.1	3.8	24.3	69.7	2,574	1.6	3.4	20.9	74.1	0.0

(3)-②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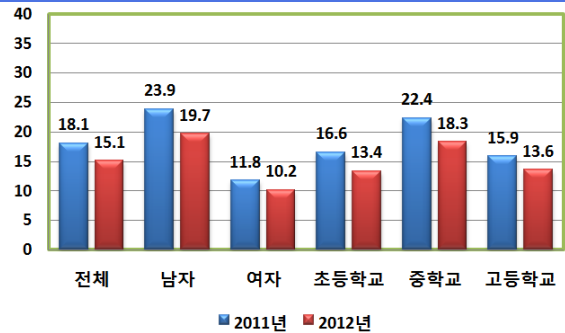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5.1%, ‘그렇지 않다’는 84.8%로 나타남**

-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와 관련하여,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1%,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다수인 84.8%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19.7%)이 여학생(10.2%)보다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8.3%)에 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3.6%), 초등학생(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5.1%)이 2011년(18.1%)에 비해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0%p 더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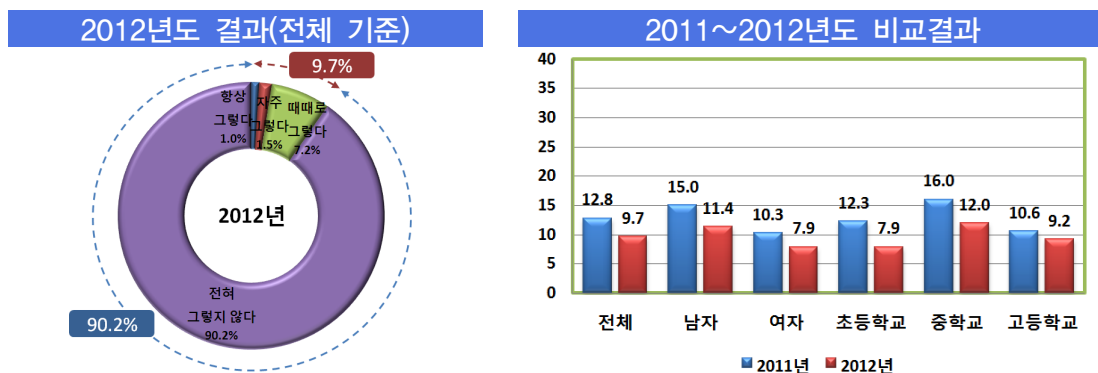
표 II-50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2.0	2.7	13.4	81.8	0.1	8,745	1.6	2.2	11.3	84.8	0.0
성별	남	4,874	2.6	3.5	17.8	76.0	0.1	4,494	1.9	2.9	14.9	80.2	0.1
	여	4,561	1.4	1.8	8.6	88.0	0.1	4,251	1.3	1.4	7.5	89.8	0.0
교급별	초	2,943	2.7	2.0	11.9	83.4	0.1	3,185	1.9	1.8	9.7	86.6	0.0
	중	2,844	2.1	3.5	16.8	77.4	0.1	2,986	1.7	3.0	13.6	81.6	0.1
	고	3,648	1.4	2.7	11.8	84.0	0.1	2,574	1.2	1.8	10.6	86.4	0.0

(3)-③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0.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90.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남학생(11.4%)이 여학생(7.9%)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2.0%)이 고등학생(9.2%) 및 초등학생(7.9%)에 비해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9.7%)이 2011년(12.8%)에 비해 게임 속의 자신이 실제의 자신보다 더 좋다는 응답률이 3.1%p 더 낮아졌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5】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표 II-51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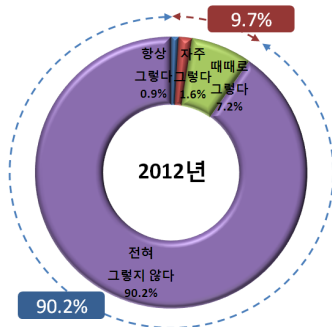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3	2.1	9.4	87.2	0.1	8,745	1.0	1.5	7.2	90.2	0.1
성별	남	4,874	1.6	2.7	10.7	84.9	0.1	4,494	1.2	2.0	8.2	88.5	0.2
	여	4,561	0.9	1.4	8.0	89.5	0.1	4,251	0.9	0.9	6.1	92.1	0.0
교급별	초	2,943	1.8	1.8	8.7	87.6	0.1	3,185	1.2	1.0	5.7	91.9	0.2
	중	2,844	1.3	2.6	12.1	83.9	0.1	2,986	1.1	2.0	8.9	87.9	0.0
	고	3,648	0.8	1.9	7.9	89.3	0.0	2,574	0.7	1.5	7.0	90.8	0.1

(3)-④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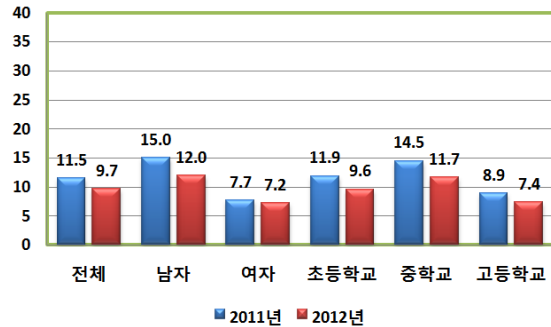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9.7%, ‘그렇지 않다’는 90.2%가 응답**

-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9.7%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90.2%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12.0%)이 여학생(7.2%)보다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나를 더 알아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1.7%)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 초등학교(9.6%), 고등학교(7.4%) 순이었다.
- 2011년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9.7%)이 2011년(11.5%)에 비해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알아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1.8%p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6】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표 II-52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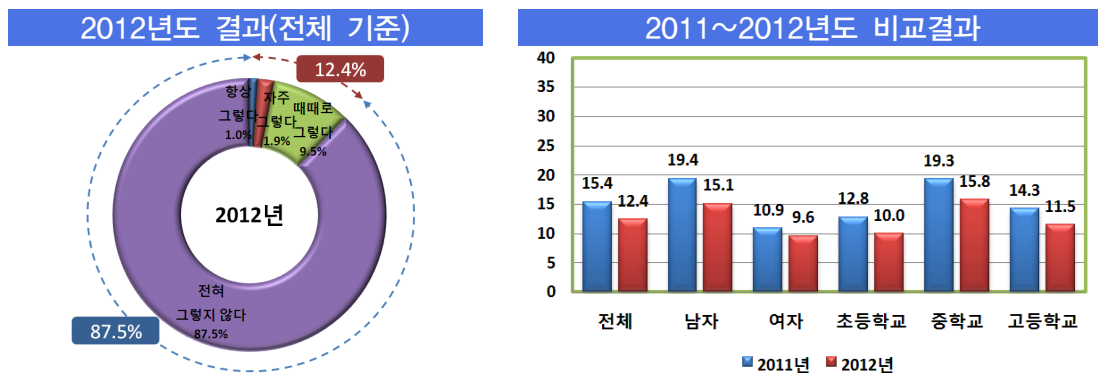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1	1.9	8.5	88.4	0.1	8,745	0.9	1.6	7.2	90.2	0.1
성 별	남	4,874	1.7	2.7	10.6	84.9	0.1	4,494	1.0	2.4	8.6	87.9	0.1
	여	4,561	0.5	1.0	6.2	92.2	0.1	4,251	0.8	0.8	5.6	92.8	0.0
교 급 별	초	2,943	1.9	1.8	8.2	88.0	0.1	3,185	1.0	1.8	6.8	90.2	0.1
	중	2,844	1.1	2.5	10.9	85.5	0.1	2,986	1.0	2.1	8.6	88.2	0.0
	고	3,648	0.6	1.6	6.7	91.1	0.1	2,574	0.7	0.9	5.8	92.6	0.0

(3)-⑤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7.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2.4%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7.5%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먼저 성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15.1%)이 여학생(9.6%)보다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가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1.5%), 초등학생(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2012년(12.4%)이 2011년(15.4%)에 비해 3.0%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7】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표 II-53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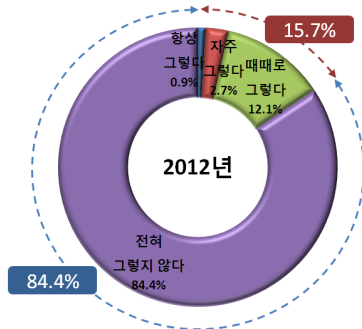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1	2.5	11.8	84.5	0.1	8,745	1.0	1.9	9.5	87.5	0.1
성 별	남	4,874	1.6	3.1	14.7	80.4	0.1	4,494	1.4	2.6	11.1	84.7	0.1
	여	4,561	0.5	1.8	8.6	88.9	0.1	4,251	0.7	1.2	7.7	90.5	0.0
교 급 별	초	2,943	1.6	2.3	8.9	87.1	0.1	3,185	1.2	1.7	7.1	89.8	0.1
	중	2,844	1.1	3.5	14.7	80.5	0.2	2,986	1.2	2.4	12.2	84.2	0.0
	고	3,648	0.6	1.9	11.8	85.6	0.1	2,574	0.7	1.6	9.2	88.5	0.0

(3)-⑥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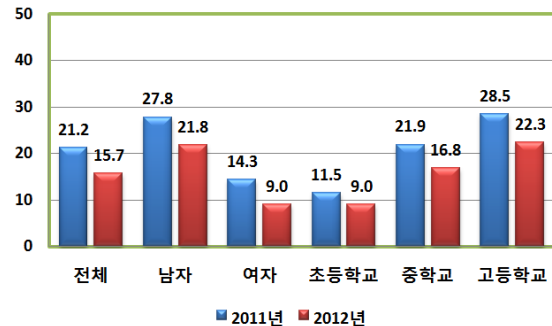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 대해서
‘그렇다’는 15.7%, ‘그렇지 않다’는 84.4%로 나타남**

-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4.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5.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1.8%)이 여학생(9.0%)보다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4배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0%), 중학생(16.8%), 고등학생(22.3%)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동 척도에 대한 응답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5.7%)이 2011년(21.2%)에 비해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5%p 더 낮게 나타났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8】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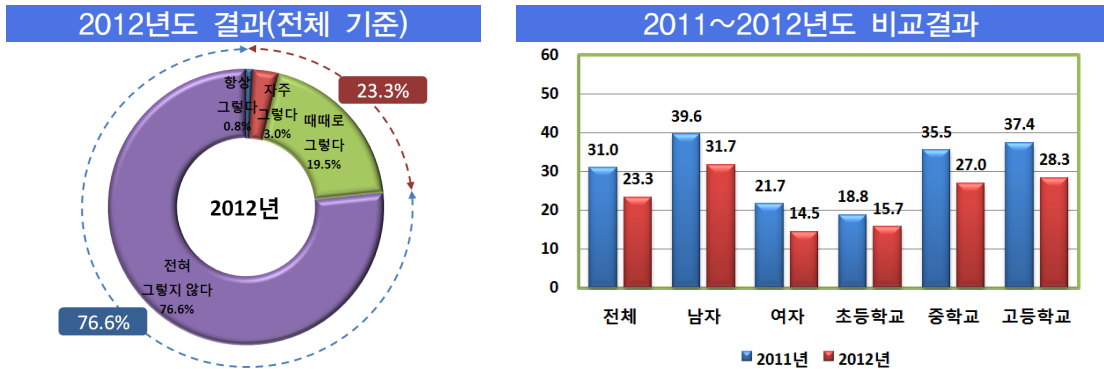
표 II-54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성별	전체	9,435	1.1	3.7	16.4	78.7	0.1	8,745	0.9	2.7	12.1	84.4	0.0
	남	4,874	1.6	5.1	21.1	72.2	0.1	4,494	1.3	3.9	16.6	78.1	0.1
교급별	여	4,561	0.7	2.1	11.5	85.7	0.0	4,251	0.4	1.4	7.2	90.9	0.0
	초	2,943	1.1	1.5	8.9	88.4	0.1	3,185	0.7	1.3	7.0	91.0	0.1
	중	2,844	0.8	3.8	17.3	78.0	0.0	2,986	0.9	2.9	13.0	83.1	0.0
	고	3,648	1.4	5.3	21.8	71.4	0.0	2,574	1.0	4.1	17.2	77.6	0.0

(3)-⑦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23.3%, ‘그렇지 않다’는 76.6%가 응답**

-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23.3%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76.6%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31.7%) 이 여학생(14.5%)보다 2배 정도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15.7%)에서 중학생 (27.0%), 고등학생(28.3%)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23.3%)이 2011년(31.0%)에 비해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p 더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49】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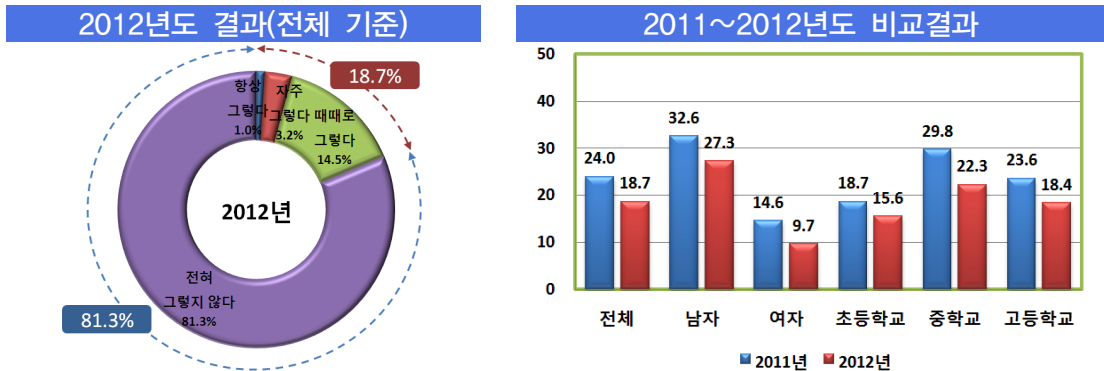
표 II-5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2	4.7	25.1	68.9	0.1	8,745	0.8	3.0	19.5	76.6	0.1	
성 별	남	4,874	1.5	6.6	31.5	60.3	0.1	4,494	1.2	4.4	26.1	68.3	0.1
	여	4,561	0.8	2.6	18.3	78.2	0.0	4,251	0.4	1.5	12.6	85.5	0.0
교 급 별	초	2,943	0.8	1.8	16.2	81.2	0.1	3,185	0.7	1.4	13.6	84.2	0.0
	중	2,844	1.2	5.5	28.8	64.5	0.0	2,986	1.0	3.5	22.5	72.9	0.1
	고	3,648	1.5	6.4	29.5	62.5	0.0	2,574	0.8	4.2	23.3	71.6	0.0

(3)-⑧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8.7%, ‘그렇지 않다’는 81.3%가 응답**

-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8.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81.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7.3%)이 여학생(9.7%)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22.3%)이 고등학생(18.4%)과 초등학생(15.6%)에 비해 상기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8.7%)이 2011년(24.0%)에 비해 갈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5.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하였다.



【그림 II-50】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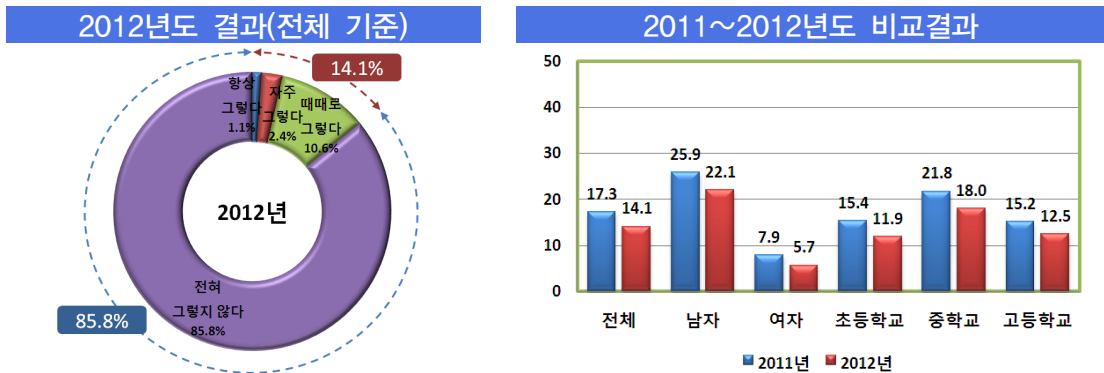
표 II-56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3	4.3	18.4	76.0	0.1	8,745	1.0	3.2	14.5	81.3	0.1
성별	남	4,874	1.8	6.2	24.6	67.3	0.1	4,494	1.6	5.0	20.7	72.7	0.1
	여	4,561	0.7	2.2	11.7	85.3	0.1	4,251	0.4	1.3	8.0	90.4	0.0
교급	초	2,943	1.1	2.6	15.0	81.3	0.0	3,185	0.8	2.1	12.7	84.4	0.1
	중	2,844	1.3	5.7	22.8	70.0	0.2	2,986	1.2	4.0	17.1	77.7	0.0
	고	3,648	1.4	4.5	17.7	76.5	0.1	2,574	1.0	3.6	13.8	81.6	0.0

(3)-⑨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14.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4.1%에 불과하였고, 대다수인 85.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2.1%)이 여학생(5.7%)보다 4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18.0%)에게서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등학생(12.5%), 초등학생(11.9%) 순이었다.
- 2011년도와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4.1%)이 2011년(17.3%)에 비해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표 II-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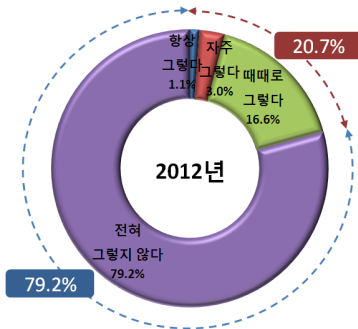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3	2.9	13.1	82.6	0.1	8,745	1.1	2.4	10.6	85.8	0.1	
성 별	남	4,874	1.9	4.4	19.6	73.9	0.2	4,494	1.8	4.0	16.3	77.8	0.1
	여	4,561	0.5	1.3	6.1	92.0	0.0	4,251	0.5	0.6	4.6	94.2	0.0
교 급 별	초	2,943	1.2	2.2	12.0	84.4	0.2	3,185	1.4	1.6	8.9	87.9	0.2
	중	2,844	1.5	4.4	15.9	78.0	0.2	2,986	1.3	2.8	13.9	82.0	0.0
	고	3,648	1.1	2.4	11.7	84.8	0.0	2,574	0.7	2.8	9.0	87.5	0.1

(3)-⑩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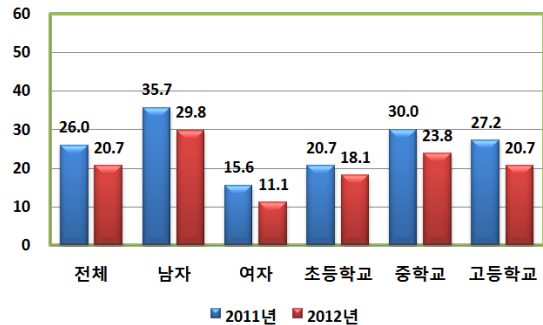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에 대해서
‘그렇다’는 20.7%, ‘그렇지 않다’는 79.2%로 나타남**

-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20.7%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79.2%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1.1%)보다 남학생(29.8%)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23.8%)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20.7%), 초등학생(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20.7%)이 2011년(26.0%)에 비해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만 두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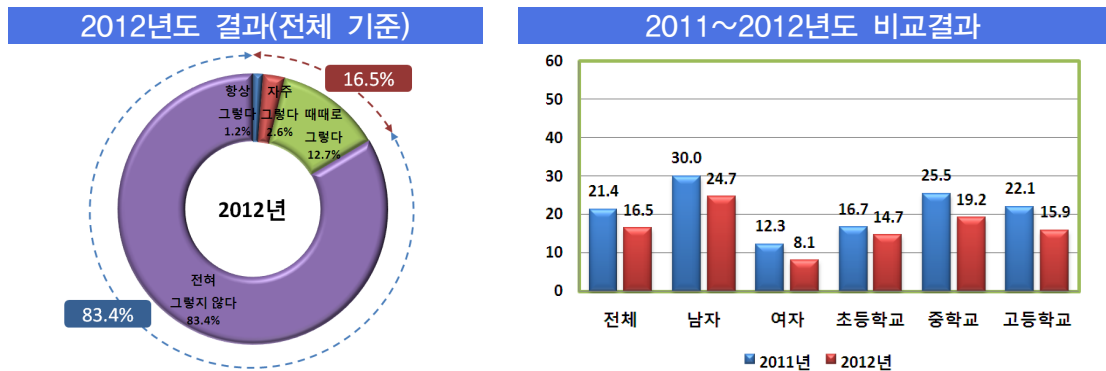
표 II-5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7	4.4	19.9	73.9	0.1	8,745	1.1	3.0	16.6	79.2	0.0
성별	남	4,874	2.5	6.6	26.6	64.1	0.2	4,494	1.7	4.6	23.5	70.1	0.1
	여	4,561	0.8	2.1	12.7	84.4	0.0	4,251	0.5	1.4	9.2	88.8	0.0
교급별	초	2,943	1.7	3.2	15.8	79.2	0.2	3,185	1.4	1.9	14.8	81.9	0.0
	중	2,844	1.8	5.4	22.8	69.8	0.1	2,986	1.0	3.8	19.0	76.2	0.1
	고	3,648	1.6	4.7	20.9	72.8	0.1	2,574	1.0	3.7	16.0	79.2	0.0

(3)-⑪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6.5%, ‘그렇지 않다’는 83.4%로 나타남**

-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16.5%는 ‘그렇다’ , 83.4%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4.7%)이 여학생(8.1%)보다 3배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19.2%)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5.9%), 초등학생(14.7%)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6.5%)이 2011년(21.4%)보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p 더 낮았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3】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표 II-5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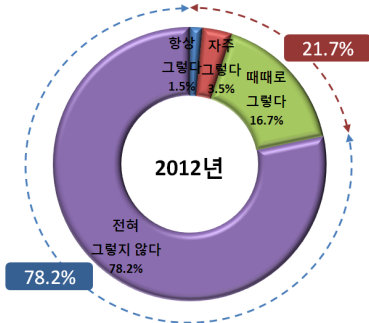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7	3.3	16.4	78.5	0.1	8,745	1.2	2.6	12.7	83.4	0.0
성 별	남	4,874	2.7	4.7	22.6	69.9	0.1	4,494	2.0	4.2	18.5	75.3	0.0
	여	4,561	0.7	1.7	9.9	87.7	0.0	4,251	0.4	1.0	6.7	91.9	0.0
교 단 별	초	2,943	1.8	2.2	12.7	83.1	0.1	3,185	1.2	2.0	11.5	85.2	0.1
	중	2,844	1.6	4.1	19.8	74.5	0.0	2,986	1.4	3.2	14.6	80.8	0.0
	고	3,648	1.9	3.4	16.8	77.9	0.0	2,574	1.0	2.8	12.1	84.1	0.0

(3)-⑫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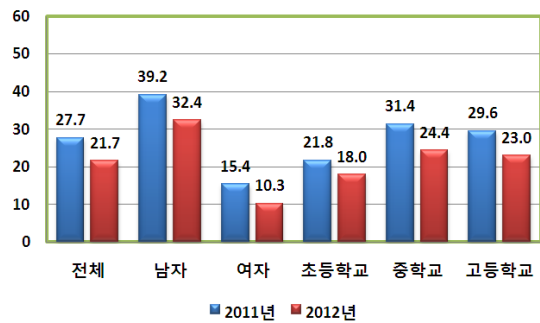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는 21.7%, ‘그렇지 않다’는 전체 응답자의 78.2%가 응답**

-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2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2.4%)이 여학생(10.3%)보다 안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가 24.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23.0%), 초등학생(18.0%)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21.7%)이 2011년(27.7%)에 비해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p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4】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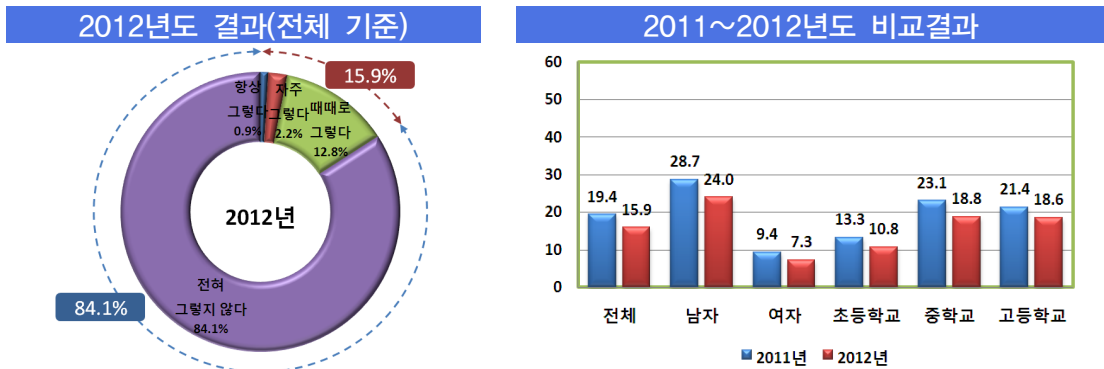
표 II-60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2.2	5.0	20.5	72.3	0.0	8,745	1.5	3.5	16.7	78.2	0.1
성별	남	4,874	3.5	7.6	28.1	60.8	0.0	4,494	2.3	5.7	24.4	67.5	0.1
	여	4,561	0.9	2.1	12.4	84.6	0.0	4,251	0.5	1.2	8.6	89.6	0.1
교급	초	2,943	1.9	3.0	16.9	78.3	0.0	3,185	1.5	2.1	14.4	81.9	0.1
	중	2,844	2.4	6.3	22.7	68.5	0.0	2,986	1.4	4.2	18.8	75.4	0.2
	고	3,648	2.4	5.5	21.7	70.4	0.1	2,574	1.4	4.5	17.1	77.0	0.0

(3)-⑬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5.9%, ‘그렇지 않다’는 84.1%로 나타남**

-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중 15.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84.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4.0%)이 여학생(7.3%)보다 게임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에게서 1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18.6%)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고, 초등학생(10.8%)이 게임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5.9%)이 2011년(19.4%)에 비해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5%p 더 낮아졌고, 이는 남학생, 여학생, 초·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5】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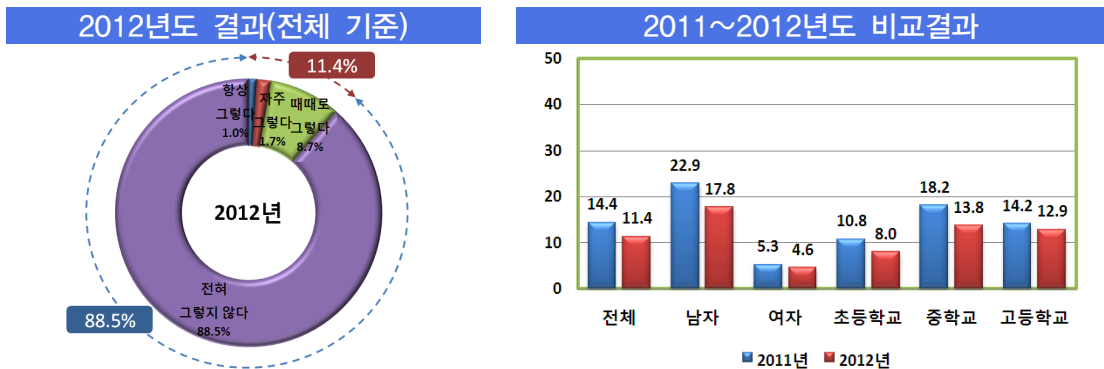
표 II-61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1	2.7	15.6	80.6	0.0	8,745	0.9	2.2	12.8	84.1	0.1
성 별	남	4,874	1.8	4.1	22.8	71.2	0.1	4,494	1.4	3.3	19.3	75.9	0.2
	여	4,561	0.4	1.2	7.8	90.6	0.0	4,251	0.3	1.0	6.0	92.7	0.0
교 급 별	초	2,943	0.8	1.7	10.8	86.6	0.0	3,185	0.8	1.4	8.6	89.0	0.2
	중	2,844	1.0	3.2	18.9	76.8	0.1	2,986	1.1	2.9	14.8	81.1	0.0
	고	3,648	1.5	3.2	16.7	78.5	0.0	2,574	0.6	2.3	15.7	81.3	0.0

(3)-⑭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에 대해서
대다수인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1.4%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5%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먼저 성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17.8%)이 여학생(4.6%)보다 게임을 못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배 가까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3.8%)에서 상기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12.9%), 초등학생(8.0%)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1.4%)이 2011년(14.4%)에 비해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초·중·고등학생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56】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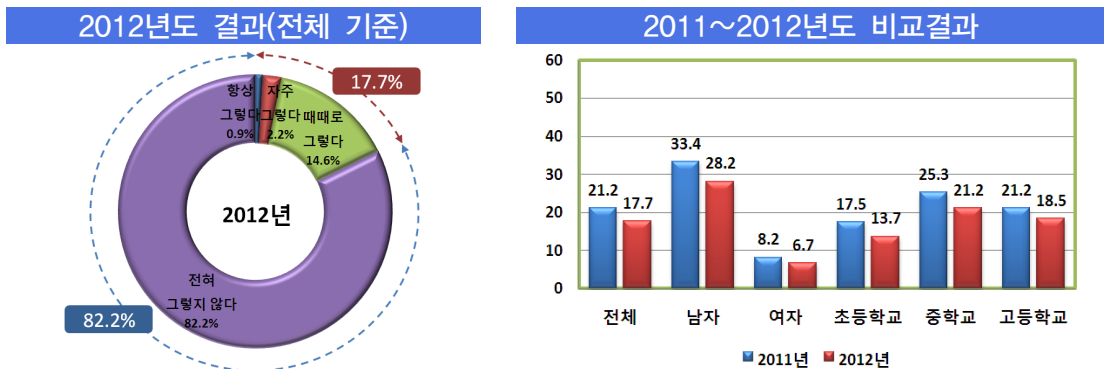
표 II-62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2	2.4	10.8	85.5	0.1	8,745	1.0	1.7	8.7	88.5	0.1
성별	남	4,874	2.0	4.0	16.9	77.1	0.1	4,494	1.6	2.8	13.4	82.1	0.1
	여	4,561	0.3	0.6	4.4	94.6	0.1	4,251	0.3	0.6	3.7	95.4	0.0
교급별	초	2,943	1.1	1.7	8.0	89.0	0.2	3,185	1.0	1.3	5.7	91.8	0.1
	중	2,844	1.5	2.9	13.8	81.7	0.0	2,986	1.1	1.9	10.8	86.2	0.0
	고	3,648	1.0	2.4	10.8	85.7	0.1	2,574	0.8	2.1	10.0	87.2	0.0

(3)-⑮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7.7%, ‘그렇지 않다’는 82.2%로 나타남**

-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82.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6.7%)에 비해 남학생(28.2%)의 경우 게임 생각을 계속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고등학생(18.5%), 초등학생(13.7%)의 순이었다.
- 2011년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17.7%)이 2011년(21.2%)에 비해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p 더 낮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림 II-57】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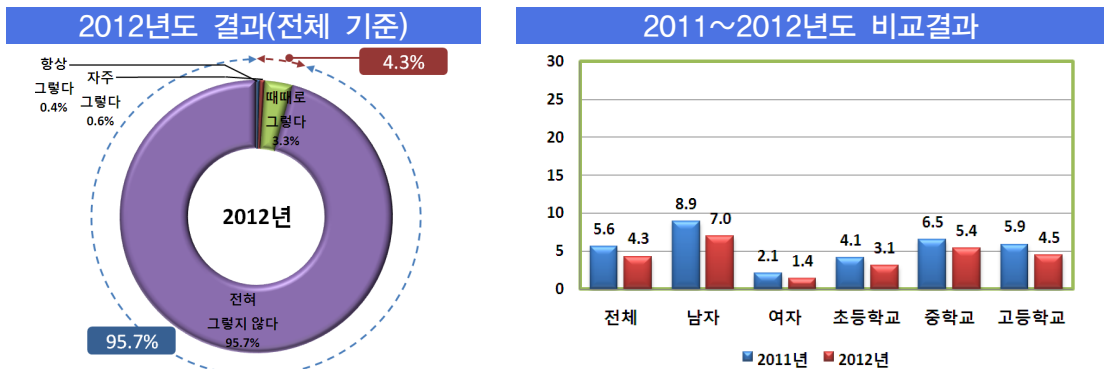
표 II-63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0.9	2.7	17.6	78.6	0.1	8,745	0.9	2.2	14.6	82.2	0.1
성별	남	4,874	1.6	4.6	27.2	66.4	0.2	4,494	1.5	3.7	23.0	71.7	0.1
	여	4,561	0.2	0.7	7.3	91.7	0.0	4,251	0.3	0.7	5.7	93.3	0.0
교급별	초	2,943	1.2	1.9	14.4	82.3	0.2	3,185	0.9	1.4	11.4	86.1	0.2
	중	2,844	0.9	3.6	20.8	74.6	0.0	2,986	1.1	2.9	17.2	78.7	0.0
	고	3,648	0.7	2.7	17.8	78.8	0.1	2,574	0.6	2.4	15.5	81.4	0.1

(3)-⑯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95.7%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의 경우 남학생(7.0%)이 여학생(1.4%)보다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배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5.4%, 초등학생(3.1%) 및 고등학생(4.5%)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4.3%)이 2011년(5.6%)에 비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8】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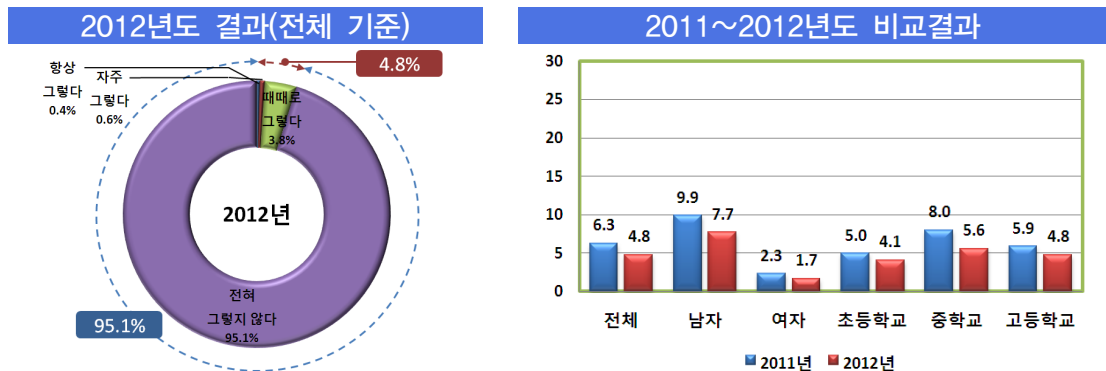
표 II-64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0.4	0.8	4.4	94.4	0.1	8,745	0.4	0.6	3.3	95.7	0.0
성별	남	4,874	0.7	1.3	6.9	91.1	4,494	0.6	1.0	5.4	92.9	0.1
	여	4,561	0.1	0.3	1.7	97.9	4,251	0.2	0.1	1.1	98.6	0.0
교급	초	2,943	0.4	0.4	3.3	95.7	3,185	0.3	0.6	2.2	96.9	0.1
	중	2,844	0.3	1.1	5.1	93.4	2,986	0.4	0.7	4.3	94.6	0.0
	고	3,648	0.4	0.8	4.7	94.1	2,574	0.5	0.5	3.5	95.5	0.0

(3)-⑰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 ‘그렇지 않다’는 95.1%가 응답**

-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4.8%,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95.1%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7%)이 여학생(1.7%)보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4.8%), 초등학생(4.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대상의 결과에서는 2012년(4.8%)이 2011년(6.3%)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5%p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서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5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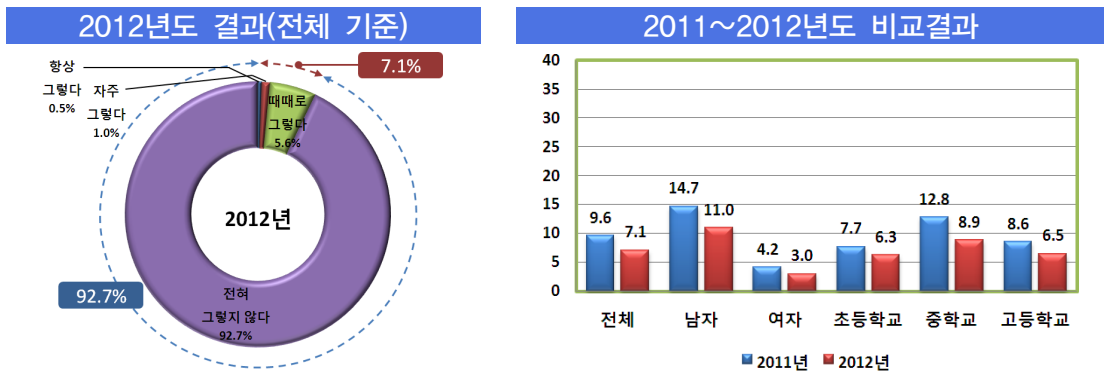
표 II-65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0.4	0.8	5.1	93.7	0.0	8,745	0.4	0.6	3.8	95.1	0.0
성 별	남	4,874	0.6	1.4	7.9	90.0	0.0	4,494	0.7	0.9	6.1	92.3	0.0
	여	4,561	0.1	0.1	2.1	97.6	0.0	4,251	0.1	0.2	1.4	98.1	0.0
교 급 별	초	2,943	0.6	0.6	3.8	94.9	0.0	3,185	0.4	0.5	3.2	95.9	0.0
	중	2,844	0.3	1.2	6.5	92.0	0.0	2,986	0.4	0.7	4.5	94.3	0.1
	고	3,648	0.2	0.7	5.0	94.1	0.0	2,574	0.5	0.4	3.9	95.2	0.0

(3)-㉔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2.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2.7%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반면, 7.1%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11.0%)이 여학생(3.0%)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8.9%)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6.5%), 초등학생(6.3%)의 순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7.1%)이 2011년(9.6%)에 비해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II-60】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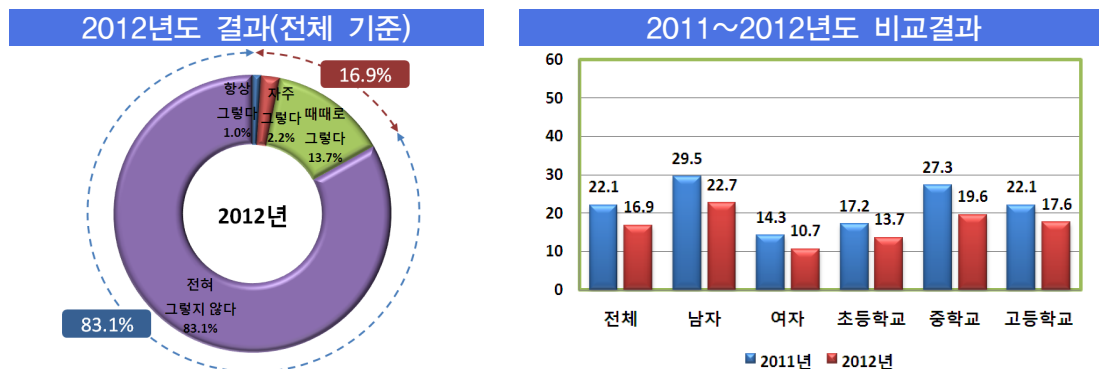
표 II-66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0.6	1.2	7.8	90.3	0.1	8,745	0.5	1.0	5.6	92.7	0.1
성별	남	4,874	0.9	2.0	11.8	85.2	0.1	4,494	0.8	1.7	8.5	88.8	0.1
	여	4,561	0.2	0.4	3.6	95.8	0.0	4,251	0.2	0.2	2.6	96.8	0.1
교급별	초	2,943	0.7	1.0	6.0	92.2	0.0	3,185	0.6	0.7	5.0	93.6	0.1
	중	2,844	0.5	1.6	10.7	87.1	0.1	2,986	0.6	1.5	6.8	91.1	0.1
	고	3,648	0.5	1.0	7.1	91.3	0.1	2,574	0.5	0.8	5.2	93.5	0.1

(3)-㉑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6.9%, ‘그렇지 않다’는 83.1%가 응답**

-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83.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22.7%)이 여학생(10.4%)보다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9.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등학생(17.6%), 초등학생(13.7%)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6.9%)이 2011년(22.1%)에 비해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초·중·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림 II-61】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표 II-67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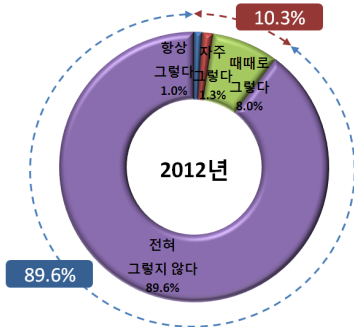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4	3.1	17.6	77.7	0.1	8,745	1.0	2.2	13.7	83.1	0.0
성별	남	4,874	2.0	4.5	23.0	70.4	4,494	1.4	3.1	18.2	77.2	0.0
	여	4,561	0.7	1.7	11.9	85.6	4,251	0.6	1.1	9.0	89.3	0.0
교 급 별	초	2,943	1.6	2.2	13.4	82.7	3,185	0.9	1.6	11.2	86.2	0.1
	중	2,844	1.4	3.9	22.0	72.5	2,986	1.2	2.7	15.7	80.3	0.0
	고	3,648	1.2	3.3	17.6	77.8	2,574	0.9	2.2	14.5	82.4	0.0

(3)-㉔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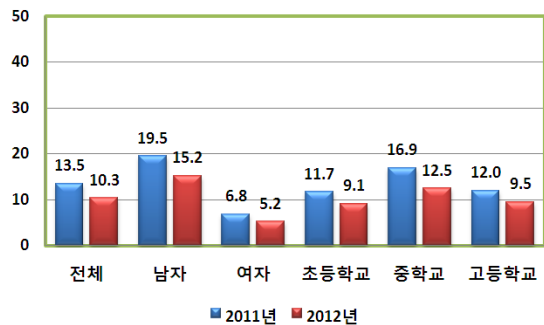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0.3%, ‘그렇지 않다’는 89.6%로 나타남**

-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0.3%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9.6%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15.2%)이 여학생(5.2%)보다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이 12.5%로 초등학교(9.1%) 및 고등학교(9.5%)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0.3%)이 2011년(13.5%)에 비해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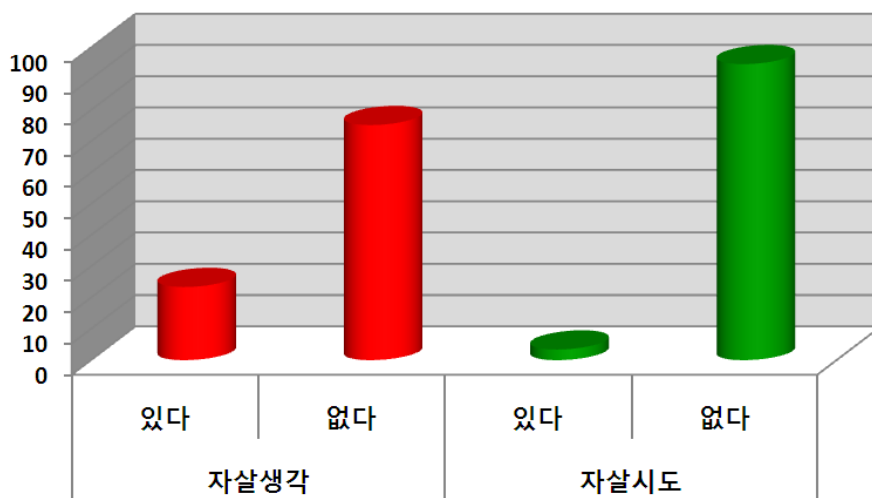
【그림 II-6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표 II-68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9,435	1.1	2.0	10.4	86.5	0.1	8,745	1.0	1.3	8.0	89.6	0.0
성별	남	4,874	1.7	2.9	14.9	80.4	0.1	4,494	1.5	2.1	11.6	84.7	0.0
	여	4,561	0.3	1.0	5.5	93.1	0.1	4,251	0.5	0.5	4.2	94.7	0.0
교급	초	2,943	1.3	1.8	8.6	88.3	0.0	3,185	1.1	1.1	6.9	90.8	0.1
	중	2,844	1.0	2.5	13.4	83.0	0.1	2,986	1.0	1.9	9.6	87.4	0.0
	고	3,648	0.9	1.7	9.4	87.9	0.1	2,574	1.0	0.9	7.6	90.5	0.0

(4) 자살 - 항목별 백분율

자살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N=8,745) 중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가 23.4%(N=2,043),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3.4%(N=294)로 나타남



【그림 II-63】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표 II-69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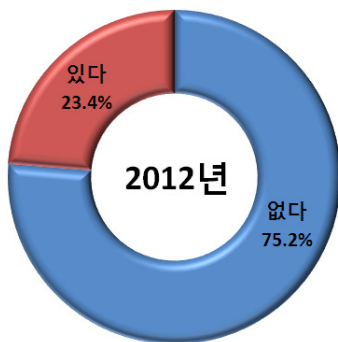
문항		전체(N)	있다	없다	무응답
1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745 (100.0%)	2,043 (23.4%)	6,575 (75.2%)	127 (1.5%)
2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294 (3.4%)	8,281 (94.7%)	170 (1.9%)

(4)-①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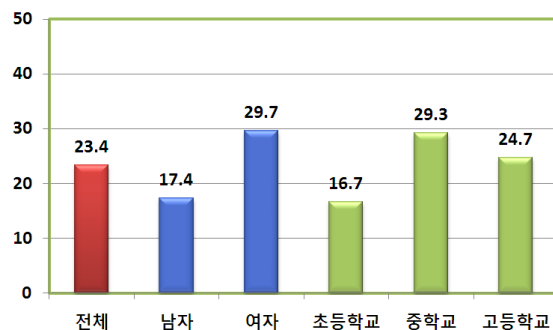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4%가 '있다', 75.2%가 '없다'라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4%가 '있다' 고 응답했으며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75.2%였다.
- '있다' 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여학생(29.7%)이 남학생(17.4%)보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29.3%)이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24.7%), 초등학생(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준 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그림 II-64】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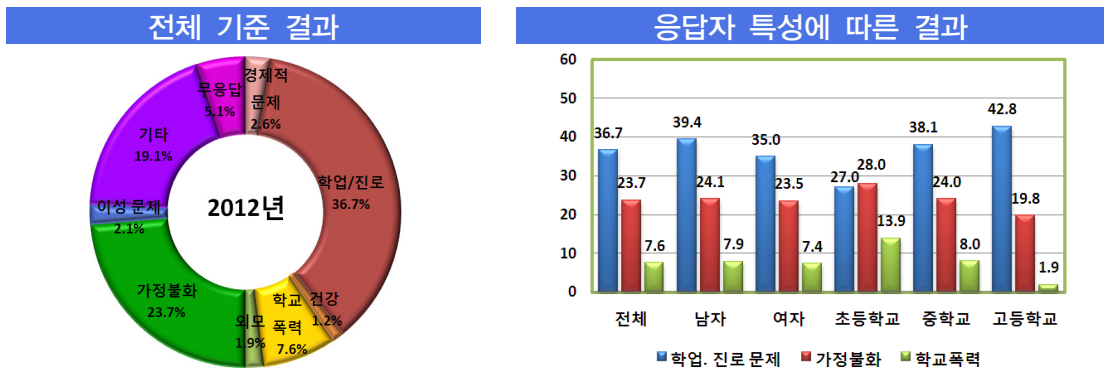
표 II-70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8,745	23.4	75.2	1.5
성별	남	4,494	17.4	81.1	1.6
	여	4,251	29.7	69.0	1.3
교급별	초	3,185	16.7	81.5	1.8
	중	2,986	29.3	69.5	1.2
	고	2,574	24.7	74.0	1.3

(4)-②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학업·진로문제(36.7%)’가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23.7%)’, ‘기타(19.1%)’, ‘학교폭력(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 및 진로문제(36.7%)’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불화(23.7%)’, ‘기타(19.1%)’, ‘학교폭력(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률 상위 3가지(기타 항목은 제외) 항목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학업 및 진로, 가정불화, 학교폭력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 및 진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가정불화 및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졌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가정불화’ 라는 점이다.



【그림 II-65】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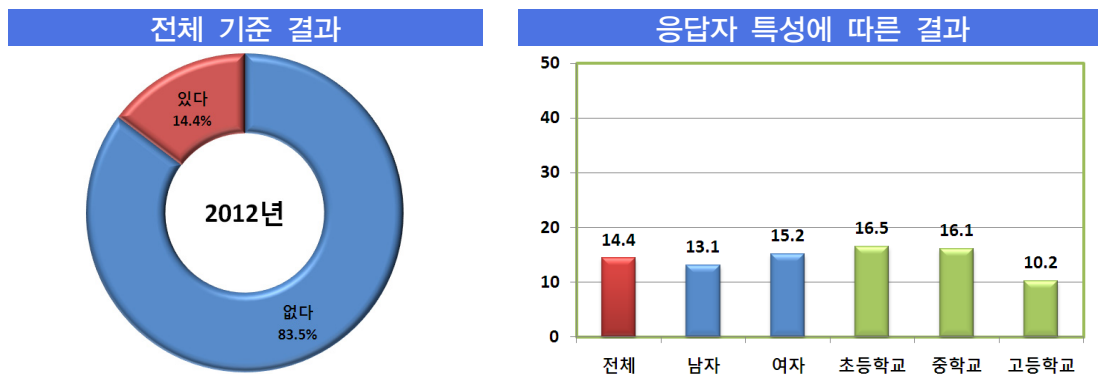
표 II-71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응답자의 특성		사례 수	경제적 문제	학업·진로 문제	건강문제	학교폭력	외모문제	가정불화	이성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2,043	2.6	36.7	1.2	7.6	1.9	23.7	2.1	19.1	5.1
성별	남	780	2.3	39.4	1.3	7.9	1.8	24.1	2.3	16.4	4.5
	여	1,263	2.8	35.0	1.1	7.4	2.0	23.5	2.0	20.7	5.5
교급별	초	533	2.4	27.0	2.3	13.9	2.3	28.0	0.9	21.2	2.1
	중	875	1.9	38.1	0.7	8.0	1.8	24.0	1.9	18.4	5.1
	고	635	3.6	42.8	0.9	1.9	1.7	19.8	3.3	18.3	7.6

(4)-③ 자살 -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서
자살 생각 경험자 중 14.4%가 '있다', 83.5%가 '없다'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들의 14.4%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83.5%이었다.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15.2%)이 남학생(13.1%)보다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6.5%)에서 중(16.1%)·고등학생(10.2%)으로 올라갈수록 자살 시도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그림 II-66】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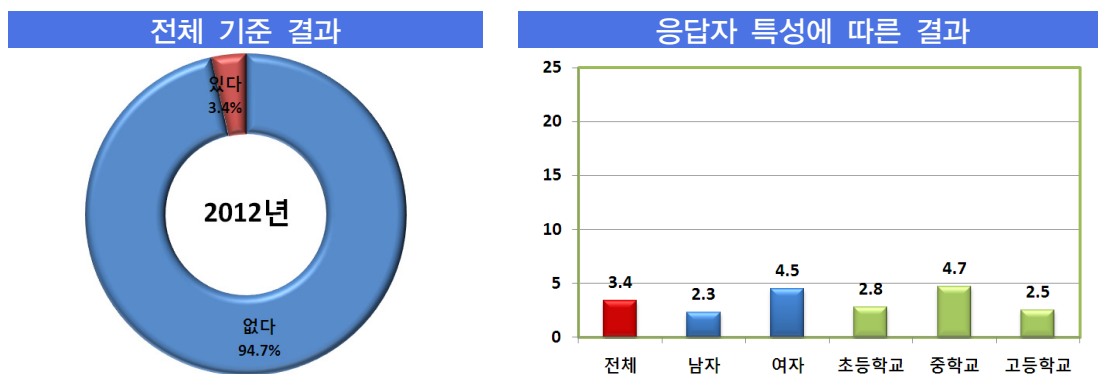
표 II-72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2,043	14.4	83.5	2.1
성별	남	780	13.1	85.0	1.9
	여	1,263	15.2	82.6	2.2
교급별	초	533	16.5	80.9	2.6
	중	875	16.1	82.5	1.4
	고	635	10.2	87.1	2.7

(4)-③-1 자살 -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서
전체 청소년 중 3.4%가 '있다', 94.7%가 '없다'고 응답함**

- 전체 청소년에 대해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있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4%였으며,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94.7%이었다.
- '있다' 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4.5%)이 남학생(2.3%)보다 2배 가까이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2.8%)이 고등학생(2.5%)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초등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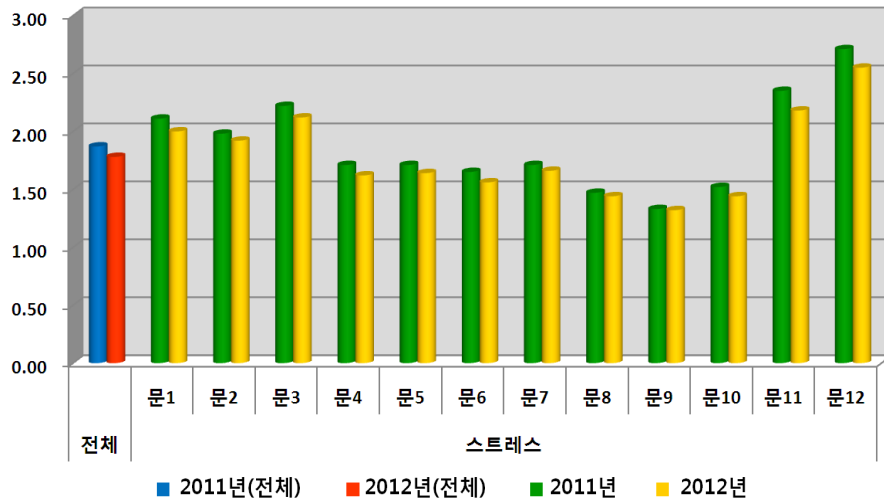
【그림 II-67】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73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성별	전체	8,745	3.4	94.7	1.9
	남	4,494	2.3	95.8	1.9
	여	4,251	4.5	93.5	2.0
교급별	초	3,185	2.8	95.0	2.2
	중	2,986	4.7	93.6	1.6
	고	2,574	2.5	95.5	2.0

(5) 스트레스 - 항목별 평균

스트레스에 대한 항목별 평균에선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M=2.55)’가 가장 높았고 ‘진로문제(M=2.18)’, ‘외모(M=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 관계(M=1.32)’가 가장 낮았음. 2011년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스트레스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평균점수가 낮아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68】 2011~2012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표 II-74 2011~2012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1	부모님과의 관계	2.11	2.00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8	1.92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22	2.12
4	신체건강	1.71	1.62
5	심리건강	1.71	1.64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65	1.56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1	1.66
8	이성과의 관계	1.47	1.44
9	선·후배 관계	1.33	1.32
10	선생님과의 관계	1.52	1.44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35	2.18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1	2.55
스트레스 영역(전체)		1.87	1.7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영역의 12개 세부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비교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12개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및 선생님관계를 제외한 8개 영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7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 관계		형제·자매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494)	1.91 (0.96)	-8.854 ***	1.84 (0.98)	-7.954 ***	1.87 (0.94)	-24.077 ***	1.52 (0.80)	-11.657 ***	1.47 (0.79)	-18.294 ***	1.46 (0.77)	-10.848 ***
	여자 (n=4,251)	2.09 (1.00)		2.01 (1.01)		2.37 (0.98)		1.73 (0.88)		1.81 (0.96)		1.66 (0.88)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1.73 (0.92)	191.758 *** (ab,ac)	1.95 (1.05)	42.255 *** (ab,ac, bc)	1.73 (0.94)	430.509 *** (ab,ac, bc)	1.41 (0.76)	193.207 *** (ab,ac, bc)	1.33 (0.72)	370.133 *** (ab,ac, bc)	1.29 (0.65)	358.525 *** (ab,ac, bc)
	중학교 (n=2,986)	2.15 (0.99)		2.02 (1.02)		2.27 (0.96)		1.68 (0.85)		1.71 (0.90)		1.59 (0.83)	
	고등학교 (n=2,574)	2.15 (0.98)		1.78 (0.90)		2.42 (0.94)		1.83 (0.90)		1.93 (0.96)		1.85 (0.92)	
거주지	서울 (n=1,300)	2.02 (0.97)	1.449	1.86 (0.99)	5.730 ** (df)	2.13 (1.00)	3.534* (ef)	1.64 (0.87)	0.626	1.62 (0.88)	1.717	1.59 (0.87)	1.620
	광역시 (n=2,185)	2.02 (0.99)		1.89 (0.98)		2.16 (0.99)		1.61 (0.84)		1.67 (0.91)		1.57 (0.83)	
	사군 (n=5,260)	1.98 (0.98)		1.95 (1.01)		2.09 (0.99)		1.62 (0.85)		1.63 (0.89)		1.54 (0.8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2.02 (0.97)	-5.196 ***	1.91 (0.99)	1.875	2.11 (0.98)	10.063 *** (gh,hi)	1.61 (0.84)	11.977 *** (gh,hi)	1.63 (0.88)	10.796 *** (gh,hi)	1.52 (0.80)	119.394 *** (gh,hi)
	한부모가정 (n=709)	2.23 (1.03)		1.99 (1.06)		2.27 (1.03)		1.77 (0.94)		1.79 (0.98)		2.02 (1.01)	
	조손가정 (n=147)	-		1.97 (1.01)		1.97 (1.05)		1.58 (0.87)		1.59 (0.95)		1.59 (0.90)	
전체 M(SD)		2.00(0.98)		1.92(1.00)		2.12(0.99)		1.62(0.85)		1.64(0.89)		1.56(0.83)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구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494)	1.49 (0.79)	-18.683 ***	1.39 (0.73)	-6.144 ***	1.27 (0.61)	-6.269 ***	1.41 (0.78)	-3.446 **	2.04 (1.11)	-11.927 ***	2.39 (1.14)	-13.687 ***	1.67 (0.53)	-19.054 ***
	여자 (n=4,251)	1.84 (0.94)		1.49 (0.79)		1.36 (0.69)		1.47 (0.76)		2.33 (1.15)		2.72 (1.09)		1.90 (0.60)	
교급 별	초등학교 (n=3,185)	1.49 (0.82)	98.089 ***	1.22 (0.58)	247.858 ***	1.28 (0.67)	8.463 ***	1.29 (0.68)	93.321 ***	1.42 (0.79)	1840. 674 ***	1.97 (1.06)	819.643 ***	1.50 (0.50)	720.679 ***
	중학교 (n=2,986)	1.76 (0.92)	(ab,ac)	1.49 (0.79)	(ab,ac ,bc)	1.33 (0.65)	(ab,ac)	1.51 (0.81)	(ab,ac)	2.36 (1.07)	(ab,ac ,bc)	2.79 (1.06)	(ab,ac ,bc)	1.89 (0.56)	(ab,ac ,bc)
	고등학교 (n=2,574)	1.76 (0.88)		1.64 (0.87)		1.35 (0.64)		1.54 (0.80)		2.93 (0.99)		3.00 (0.99)		2.01 (0.54)	
거주 지	서울 (n=1,300)	1.65 (0.87)	0.088	1.47 (0.80)	1.431	1.31 (0.64)	1.569	1.43 (0.77)	3.224 * (ef)	2.22 (1.11)	8.029 *** (ef)	2.57 (1.11)	4.911 ** (ef)	1.79 (0.57)	0.676
	광역시 (n=2,185)	1.66 (0.87)		1.43 (0.76)		1.30 (0.63)		1.41 (0.73)		2.26 (1.15)		2.61 (1.12)		1.80 (0.57)	
	사군 (n=5,260)	1.67 (0.89)		1.43 (0.76)		1.33 (0.67)		1.46 (0.79)		2.14 (1.14)		2.52 (1.14)		1.78 (0.5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1.65 (0.87)	6.326 ** (gh)	1.42 (0.75)	16.826 *** (gh,hi)	1.31 (0.64)	5.727 ** (gh)	1.43 (0.76)	4.718 ** (gh)	2.17 (1.14)	10.405 *** (gh)	2.55 (1.13)	1.919	1.78 (0.57)	29.597 ***
	한부모가정 (n=709)	1.76 (0.93)		1.60 (0.87)		1.39 (0.70)		1.52 (0.81)		2.38 (1.14)		2.64 (1.09)		1.95 (0.62)	
	조손가정 (n=147)	1.80 (1.05)		1.39 (0.76)		1.36 (0.74)		1.51 (0.87)		2.15 (1.18)		2.58 (1.18)		-	
전체 M(SD)		1.66(0.88)		1.44(0.76)		1.32(0.65)		1.44(0.77)		2.18(1.14)		2.55(1.13)		1.78(0.58)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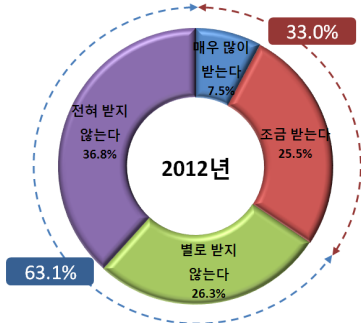
거주지별로는 형제·자매관계, 외모,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스트레스 만이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형제·자매관계 및 선생님과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사·군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외모, 진로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광역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스트레스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친구관계 영역에서는 조손가정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한부모가정의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각 세부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75>에 제시되어 있다.

(5)-① 스트레스 - 부모님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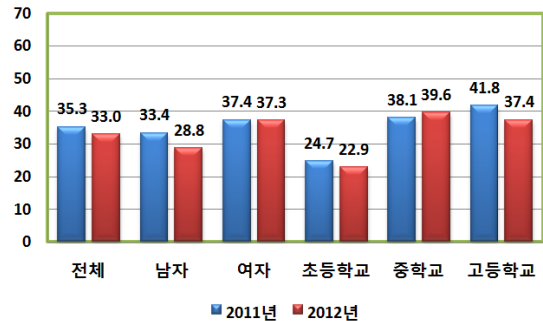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3.0%가 ‘받는다’, 63.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3.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63.1%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받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7.3%)이 남학생(28.8%)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39.6%)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이어 고등학생(37.4%), 초등학생(22.9%)의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33.0%)이 2011년(35.3%)에 비해 부모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이 1.5%p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의 결과가 더 낮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표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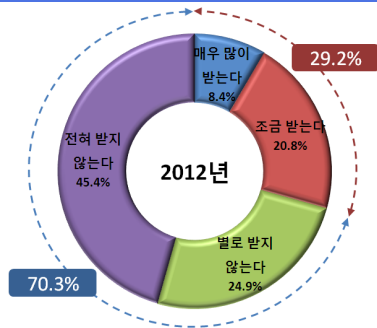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8.1	27.2	29.2	33.0	2.4	8,745	7.5	25.5	26.3	36.8	4.0
성별	남	4,874	7.6	25.8	29.1	35.2	2.3	4,494	6.3	22.5	26.7	40.3	4.3
	여	4,561	8.7	28.7	29.4	30.8	2.4	4,251	8.7	28.6	25.9	33.2	3.7
교급별	초	2,943	6.3	18.4	25.8	47.3	2.2	3,185	4.8	18.1	22.3	49.7	5.0
	중	2,844	8.0	30.1	32.1	27.5	2.3	2,986	8.6	31.0	26.6	29.9	3.8
	고	3,648	9.7	32.1	29.8	25.9	2.5	2,574	9.4	28.0	30.8	28.9	3.0

(5)-② 스트레스 - 형제·자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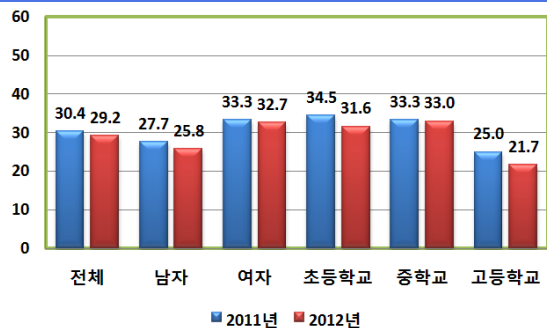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9.2%가 ‘받는다’, 70.3%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29.2%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70.3%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2.7%)이 남학생(25.8%)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33.0%)이 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초등학교(31.6%), 고등학교(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29.2%)이 2011년(30.4%)에 비해 형제·자매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2%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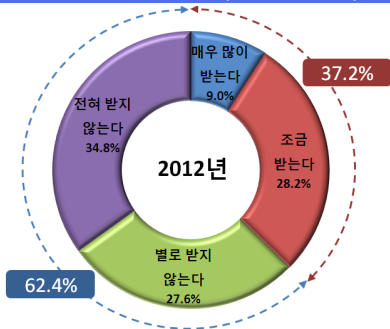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8.5	21.9	27.4	41.3	0.9	8,745	8.4	20.8	24.9	45.4	0.5
성별	남	4,874	8.0	19.7	26.2	45.2	0.8	4,494	7.4	18.4	24.3	49.3	0.6
	여	4,561	9.1	24.2	28.7	37.1	0.9	4,251	9.4	23.3	25.6	41.2	0.4
교급	초	2,943	11.5	23.0	23.1	41.9	0.6	3,185	10.1	21.5	21.1	46.7	0.6
	중	2,844	9.4	23.9	29.5	36.6	0.7	2,986	9.6	23.4	25.6	40.9	0.5
	고	3,648	5.5	19.5	29.3	44.4	1.3	2,574	4.8	16.9	28.9	48.8	0.5

(5)-③ 스트레스 -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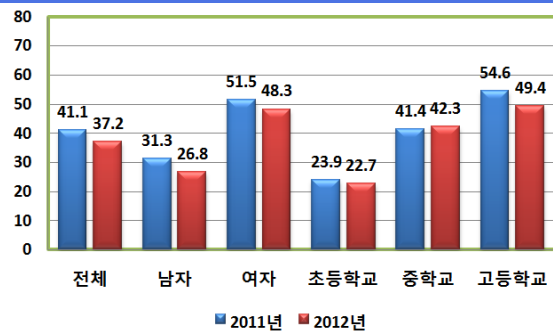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외모(키·몸매·생김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7.2%가 '받는다', 62.4%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외모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2.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7.2%는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비교를 먼저 살펴보면, 여학생(48.3%)이 남학생(26.8%)보다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22.7%)에서 중학생(42.3%), 고등학생(49.4%)으로 올라갈수록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37.2%)이 2011년(41.1%)에 비해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9%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만 2011년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아졌을 뿐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표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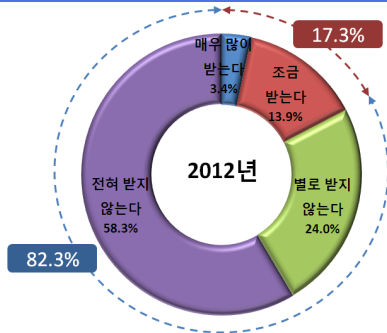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11.2	29.9	28.3	30.1	0.6	8,745	9.0	28.2	27.6	34.8	0.4
성 별	남	4,874	7.8	23.5	29.2	39.0	0.5	4,494	5.7	21.1	27.9	44.9	0.5
	여	4,561	14.8	36.7	27.3	20.6	0.7	4,251	12.6	35.7	27.3	24.1	0.3
교 급 별	초	2,943	6.8	17.1	24.9	50.9	0.3	3,185	5.7	17.0	21.8	55.2	0.3
	중	2,844	11.1	30.3	31.4	26.6	0.6	2,986	10.2	32.1	31.5	25.8	0.4
	고	3,648	14.7	39.9	28.6	16.0	0.8	2,574	11.8	37.6	30.3	19.9	0.4

(5)-④ 스트레스 -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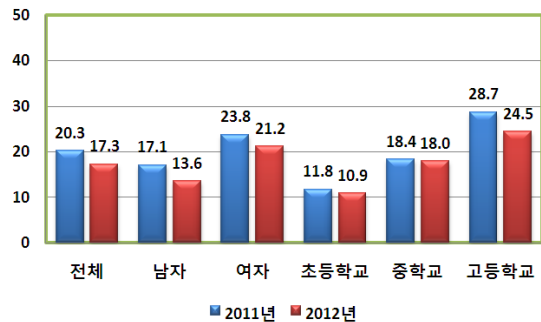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신체건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7.3%가 ‘받는다’, 82.3%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신체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3%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82.3%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21.2%)이 남학생(13.6%)보다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10.9%)에서 고등학생(24.5%)으로 올라갈수록 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7.3%)이 2011년(20.3%)에 비해 신체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0%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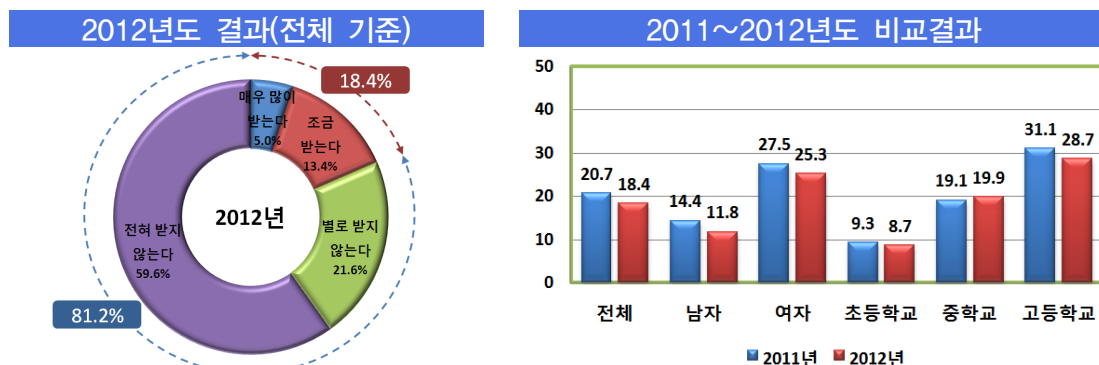
표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4.2	16.1	26.0	53.0	0.6	8,745	3.4	13.9	24.0	58.3	0.4
성별	남	4,874	3.9	13.2	23.8	58.6	0.6	4,494	3.0	10.6	21.6	64.4	0.4
	여	4,561	4.5	19.3	28.4	47.1	0.7	4,251	3.9	17.3	26.5	51.9	0.4
교급별	초	2,943	3.5	8.3	18.2	69.7	0.3	3,185	2.8	8.1	16.0	72.8	0.3
	중	2,844	3.7	14.7	27.5	53.5	0.6	2,986	3.5	14.5	27.9	53.6	0.5
	고	3,648	5.2	23.5	31.2	39.3	0.8	2,574	4.2	20.3	29.4	45.8	0.3

(5)-⑤ 스트레스 - 심리건강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심리건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2%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심리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8.4%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1.2%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심리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중심으로 먼저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25.3%)이 남학생(11.8%)보다 상기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7%)에서 중학생(19.9%), 고등학교(28.7%)으로 올라갈수록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18.4%)이 2011년(20.7%)에 비해 심리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든 반면,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0.8%p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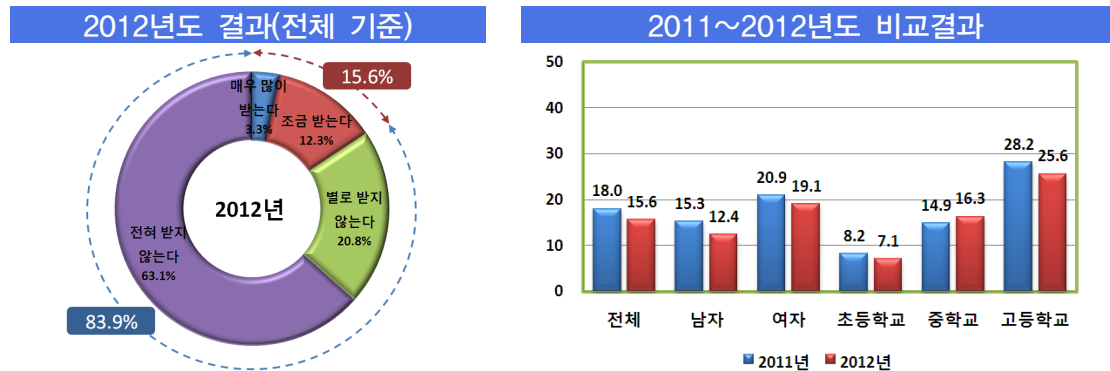
표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5.5	15.2	23.7	55.0	0.5	8,745	5.0	13.4	21.6	59.6	0.4
성별	남	4,874	3.5	10.9	21.8	63.3	0.5	4,494	3.3	8.5	19.7	68.1	0.4
	여	4,561	7.7	19.8	25.8	46.2	0.6	4,251	6.7	18.6	23.7	50.7	0.3
교급별	초	2,943	3.0	6.3	14.5	75.9	0.2	3,185	3.0	5.7	12.2	78.8	0.3
	중	2,844	4.6	14.5	26.8	53.5	0.6	2,986	5.2	14.7	26.1	53.6	0.4
	고	3,648	8.3	22.8	28.8	39.4	0.7	2,574	7.1	21.6	28.1	42.9	0.4

(5)-⑥ 스트레스 -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가정형편(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5.6%가 '받는다', 83.9%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가정형편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자 중 대다수인 83.9%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15.6%만이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가정형편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9.1%)이 남학생(12.4%)보다 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1%)에서 고등학교(25.6%)으로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18.0%)에 비해 2012년(15.6%)이 가정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2.4%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응답률이 조금씩 낮아진 반면, 중학생의 경우 2011년(14.9%)에 비해 2012년(16.3%)의 비율이 1.4%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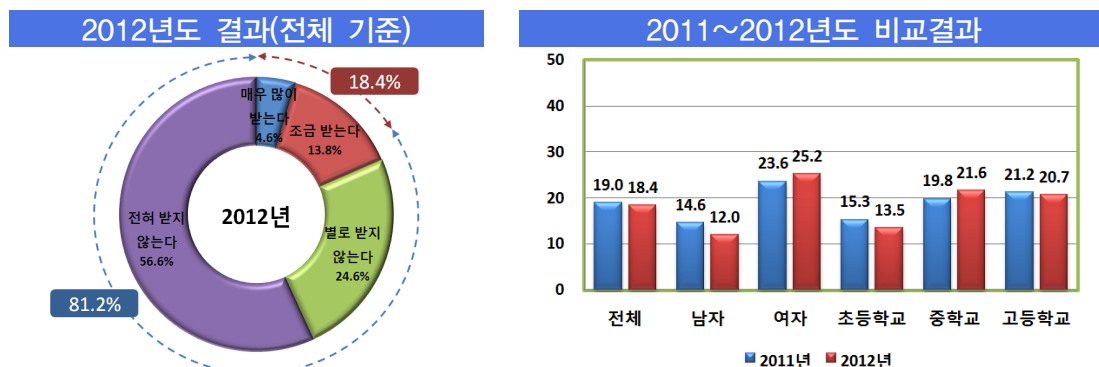
표 II-8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4.6	13.4	23.7	57.7	0.6	8,745	3.3	12.3	20.8	63.1	0.4
성별	남	4,874	4.0	11.3	22.3	61.8	0.6	4,494	2.4	10.0	18.9	68.3	0.4
	여	4,561	5.2	15.7	25.1	53.3	0.7	4,251	4.3	14.8	22.9	57.7	0.4
교급별	초	2,943	2.3	5.9	14.5	76.8	0.4	3,185	1.9	5.2	12.6	80.1	0.3
	중	2,844	3.3	11.6	25.3	59.1	0.6	2,986	3.2	13.1	23.1	60.2	0.5
	고	3,648	7.3	20.9	29.8	41.2	0.8	2,574	5.2	20.4	28.4	45.6	0.4

(5)-⑦ 스트레스 -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8.4%가 '받는다', 81.2%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다수인 81.2%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18.4%는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25.2%)이 남학생(12.0%)보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의 응답률이 13.5%로 본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은 20.7%이었고, 중학생이 21.6%로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8.4%)이 2011년(19.0%)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6%p 더 낮아졌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6%p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1.6%p 더 높아졌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생 및 고등학생은 2012년에 친구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아진 반면 중학생의 경우 1.8%p 더 높아졌다.



【그림 II-7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표 II-8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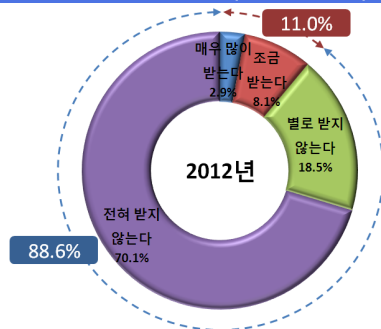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4.9	14.1	27.6	52.8	0.6	8,745	4.6	13.8	24.6	56.6	0.4
성별	남	4,874	3.9	10.7	26.2	58.7	0.6	4,494	3.1	8.9	21.9	65.6	0.5
	여	4,561	5.9	17.7	29.2	46.5	0.7	4,251	6.2	19.0	27.4	47.1	0.4
교급별	초	2,943	4.8	10.5	21.5	62.8	0.4	3,185	3.6	9.9	18.1	67.9	0.5
	중	2,844	5.6	14.2	28.7	50.7	0.8	2,986	5.8	15.8	26.6	51.3	0.4
	고	3,648	4.4	16.8	31.7	46.3	0.7	2,574	4.4	16.3	30.2	48.7	0.3

(5)-⑧ 스트레스 - 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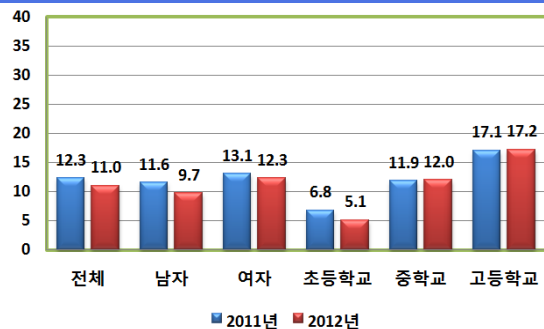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8.6%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1.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88.6%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이성관계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12.3%)이 남학생(9.7%)보다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5.1%)에서 고등학생(17.2%)으로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1.0%)이 2011년(12.3%)에 비해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1.7%p 더 낮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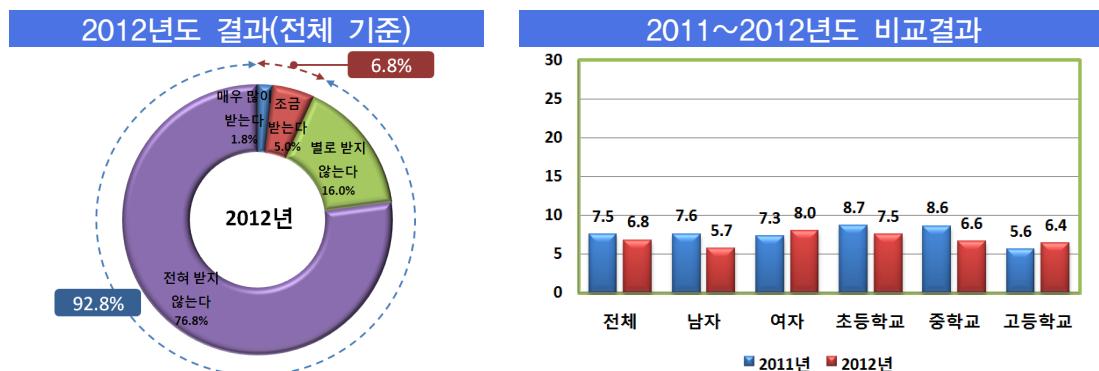
표 II-8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3.3	9.0	19.1	68.0	0.6	8,745	2.9	8.1	18.5	70.1	0.4
성별	남	4,874	3.3	8.3	18.7	69.1	0.5	4,494	2.6	7.1	16.4	73.3	0.5
	여	4,561	3.3	9.8	19.5	66.9	0.6	4,251	3.2	9.1	20.7	66.6	0.3
교급별	초	2,943	1.9	4.9	11.1	81.8	0.3	3,185	1.6	3.5	9.7	84.7	0.4
	중	2,844	3.3	8.6	20.2	67.3	0.6	2,986	3.1	8.9	21.8	65.8	0.4
	고	3,648	4.4	12.7	24.6	57.5	0.7	2,574	4.4	12.8	25.5	56.9	0.4

(5)-⑨ 스트레스 - 선·후배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2.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후배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8%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92.8%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선·후배 관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여학생(8.0%)이 남학생(5.7%)보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7.5%로 중학생(6.6%) 및 고등학생(6.4%)보다 선·후배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7.5%)에 비해 2012년(6.8%)의 경우 선·후배 관계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0.7%p 더 낮았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2011년에 비해 1.9%p 더 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0.7%p 더 높아졌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만 선·후배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을 뿐 초등학교생 및 중학생의 경우는 2012년에 조금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표 II-8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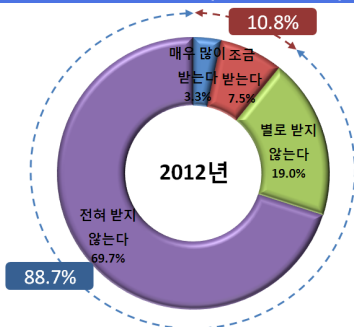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2.0	5.5	16.2	75.7	0.6	8,745	1.8	5.0	16.0	76.8	0.4
성별	남	4,874	2.3	5.3	15.3	76.5	0.6	4,494	1.6	4.1	14.3	79.6	0.4
	여	4,561	1.6	5.7	17.3	74.8	0.7	4,251	2.1	5.9	17.9	73.8	0.3
교급별	초	2,943	2.6	6.1	12.8	78.0	0.5	3,185	2.3	5.2	10.7	81.5	0.4
	중	2,844	2.4	6.2	18.2	72.6	0.6	2,986	1.7	4.9	18.0	75.2	0.3
	고	3,648	1.2	4.4	17.5	76.1	0.8	2,574	1.5	4.9	20.4	72.8	0.4

(5)-⑩ 스트레스 -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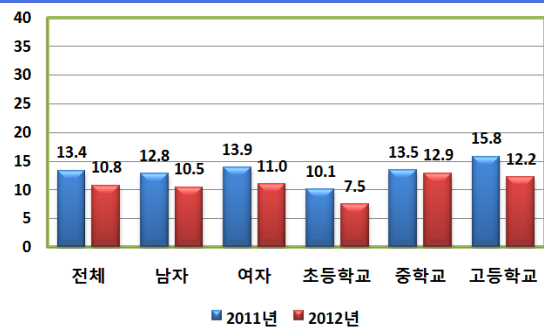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8%가 ‘받는다’, 88.7%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8%는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7%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1.0%)이 남학생(10.5%)보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12.9%)의 경우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고등학생(12.2%), 초등학생(7.5%)의 순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0.8%)이 2011년(13.4%)에 비해 선생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6%p 더 낮아졌고, 이렇게 2011년의 결과보다 2012년의 결과가 낮은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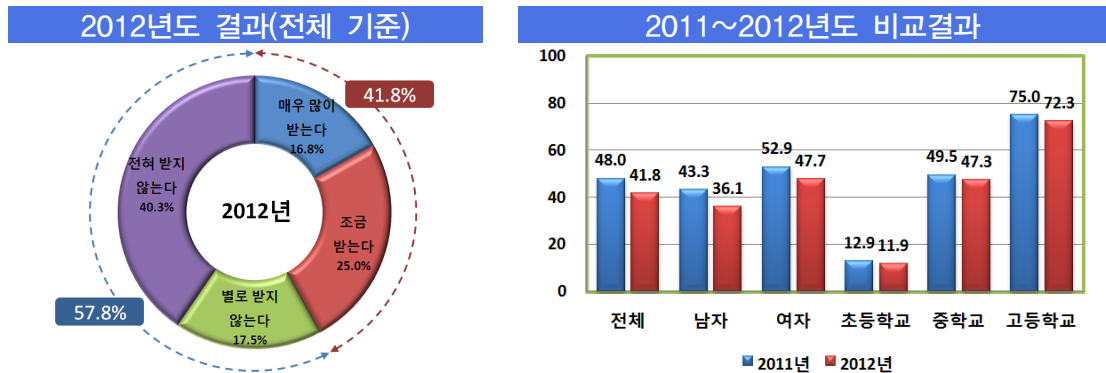
표 II-8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4.5	8.9	20.5	65.5	0.6	8,745	3.3	7.5	19.0	69.7	0.5
성별	남	4,874	5.1	7.7	18.8	67.8	0.6	4,494	3.7	6.8	16.3	72.6	0.6
	여	4,561	3.8	10.1	22.4	63.1	0.6	4,251	2.8	8.2	21.9	66.7	0.4
교급별	초	2,943	4.1	6.0	13.6	75.9	0.4	3,185	2.6	4.9	11.5	80.5	0.5
	중	2,844	4.5	9.0	22.7	63.0	0.7	2,986	3.7	9.2	21.2	65.4	0.4
	고	3,648	4.8	11.0	24.4	59.1	0.7	2,574	3.6	8.6	25.8	61.4	0.6

(5)-⑪ 스트레스 -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1.8%가 ‘받는다’, 57.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1.8%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7.8%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진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47.7%)이 남학생(36.1%)보다 관련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1.9%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중학생의 경우 47.3%로 초등학생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72.3%)의 진로문제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41.8%)이 2011년(48.0%)에 비해 진로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표 II-8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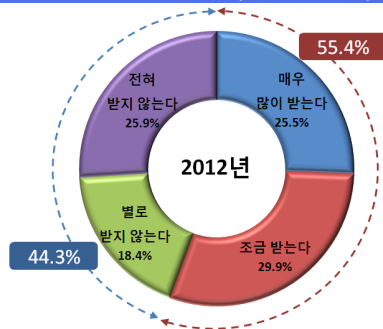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20.8	27.2	16.9	34.5	0.7	8,745	16.8	25.0	17.5	40.3	0.4
성 별	남	4,874	17.8	25.5	17.4	38.7	0.7	4,494	13.8	22.3	17.9	45.6	0.4
	여	4,561	24.0	28.9	16.3	30.0	0.7	4,251	20.0	27.7	17.1	34.7	0.4
교 급	초	2,943	4.6	8.3	14.9	71.6	0.6	3,185	3.7	8.2	14.4	73.4	0.3
	중	2,844	18.5	31.0	22.0	27.7	0.7	2,986	17.1	30.2	23.4	28.8	0.5
	고	3,648	35.6	39.4	14.5	9.8	0.7	2,574	32.8	39.5	14.6	12.7	0.3

(5)-⑫ 스트레스 -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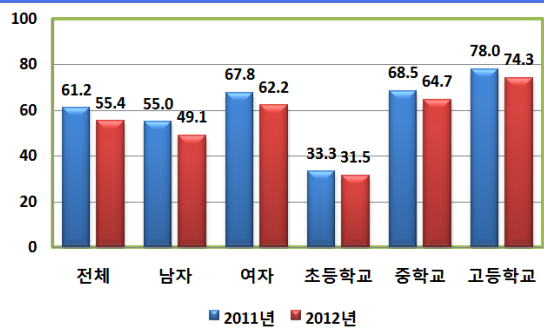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5.4%가 ‘받는다’, 44.3%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자의 55.4%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44.3%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62.2%)이 남학생(49.1%)보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1.5%이었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배 이상 높은 64.7%로 나타났고 고등학생(74.3%)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55.4%)이 2011년(61.2%)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8%p 더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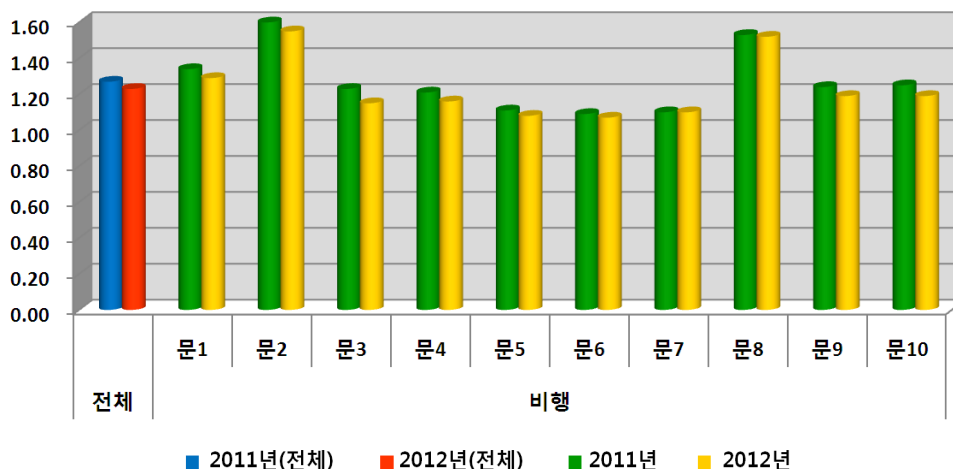
【그림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표 II-8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9,435	30.2	31.0	17.6	20.7	0.6	8,745	25.5	29.9	18.4	25.9	0.3
성별	남	4,874	26.0	29.0	19.2	25.2	0.5	4,494	21.6	27.5	19.2	31.4	0.4
	여	4,561	34.7	33.1	15.8	15.8	0.6	4,251	29.7	32.5	17.6	20.0	0.2
교급별	초	2,943	12.8	20.5	23.2	43.2	0.3	3,185	11.5	20.0	22.2	46.1	0.3
	중	2,844	33.0	35.5	17.3	13.5	0.7	2,986	30.8	33.9	18.4	16.5	0.3
	고	3,648	42.1	35.9	13.2	8.1	0.7	2,574	36.7	37.6	13.7	11.6	0.3

(6) 비행 - 항목별 평균

비행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M=1.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M=1.5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M=1.29)’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과 동일한 평균점수가 나타난 가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비행이 감소하였음.



【그림 II-81】 2011~2012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표 II-88 2011~2012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34	1.29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60	1.55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23	1.15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21	1.16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1.08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1.07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1.10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1.53	1.52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24	1.19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25	1.19
비행 영역(전체)		1.27	1.2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 영역의 항목별 차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8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비행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교급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흡연과 음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 도박 등의 항목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고, 절도, 폭력, 갈취경험, 기물파손의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점수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8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갈취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494)	1.42 (0.97)	16.052 ***	1.65 (1.01)	10.249 ***	1.20 (0.54)	8.400 ***	1.23 (0.59)	14.831 ***	1.10 (0.41)	7.096 ***
	여자 (n=4,251)	1.15 (0.59)		1.45 (0.83)		1.11 (0.40)		1.08 (0.34)		1.05 (0.26)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1.03 (0.22)	360,618 *** (ab,ac, bc)	1.26 (0.63)	495,358 *** (ab,ac, bc)	1.11 (0.40)	25,197 *** (ab,ac, bc)	1.15 (0.46)	11,705 *** (ab,bc)	1.04 (0.22)	33,714 *** (ab,ac, bc)
	중학교 (n=2,986)	1.30 (0.81)		1.48 (0.84)		1.20 (0.55)		1.19 (0.54)		1.11 (0.42)	
	고등학교 (n=2,574)	1.59 (1.13)		1.99 (1.15)		1.16 (0.49)		1.13 (0.47)		1.08 (0.36)	
거주지	서울 (n=1,300)	1.36 (0.91)	6,004** (de,df)	1.61 (1.01)	5,579** (de)	1.18 (0.52)	2,752	1.17 (0.51)	1,813	1.09 (0.39)	2,541
	광역시 (n=2,185)	1.26 (0.78)		1.51 (0.88)		1.15 (0.45)		1.14 (0.45)		1.06 (0.31)	
	사군 (n=5,260)	1.28 (0.81)		1.55 (0.93)		1.15 (0.48)		1.16 (0.51)		1.08 (0.3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1.27 (0.80)	20,206 *** (gh)	1.53 (0.92)	18,679 *** (gh,hi)	1.15 (0.47)	7,856 *** (gh,gi)	1.15 (0.47)	10,552 *** (gh)	1.07 (0.33)	6,121** (gh)
	한부모가정 (n=709)	1.47 (1.01)		1.75 (1.03)		1.20 (0.56)		1.23 (0.58)		1.11 (0.42)	
	조손가정 (n=147)	1.33 (0.87)		1.47 (0.83)		1.26 (0.63)		1.24 (0.59)		1.12 (0.43)	
전체 M(SD)		1.29(0.82)		1.55(0.93)		1.15(0.48)		1.16(0.49)		1.08(0.35)	

* $p<0.05$, ** $p<0.01$, *** $p<0.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접촉		도박		기물파손		비행(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494)	1.09 (0.42)	3.025 **	1.12 (0.44)	6.049 ***	1.82 (1.18)	31.389 ***	1.30 (0.78)	18.816 ***	1.26 (0.59)	12.641 ***	1.32 (0.44)	24.147 ***
	여자 (n=4,251)	1.06 (0.34)		1.07 (0.33)		1.20 (0.57)		1.06 (0.34)		1.12 (0.38)		1.13 (0.25)	
교급 별	초등학교 (n=3,185)	1.02 (0.15)	75.932 *** (ab,ac ,bc)	1.05 (0.27)	30.005 *** (ab, ac)	1.06 (0.33)	844.438 *** (ab,ac ,bc)	1.04 (0.29)	169.721 *** (ab,ac ,bc)	1.09 (0.34)	98.224 *** (ab,ac ,bc)	1.09 (0.17)	511.113 *** (ab,ac ,bc)
	중학교 (n=2,986)	1.08 (0.39)		1.12 (0.43)		1.56 (0.97)		1.21 (0.64)		1.26 (0.57)		1.25 (0.38)	
	고등학교 (n=2,574)	1.14 (0.53)		1.12 (0.46)		2.04 (1.24)		1.33 (0.82)		1.23 (0.57)		1.38 (0.46)	
거주 지	서울 (n=1,300)	1.11 (0.48)	7.444 ** (de,df)	1.11 (0.42)	0.880	1.64 (1.08)	23.791 *** (df,ef)	1.18 (0.61)	0.978	1.21 (0.55)	1.324	1.26 (0.42)	7.170 ** (de,df)
	광역시 (n=2,185)	1.07 (0.36)		1.09 (0.39)		1.59 (1.03)		1.17 (0.58)		1.19 (0.50)		1.22 (0.36)	
	시군 (n=5,260)	1.07 (0.36)		1.10 (0.39)		1.46 (0.94)		1.19 (0.64)		1.18 (0.49)		1.22 (0.3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1.06 (0.35)	30.433 *** (gh,gi)	1.09 (0.38)	9.795 *** (gh)	1.51 (0.98)	8.440 ** (gh)	1.18 (0.61)	3.898* (gh)	1.19 (0.50)	2.201	1.22 (0.36)	25.315 *** (gh)
	한부모가정 (n=709)	1.17 (0.59)		1.16 (0.52)		1.67 (1.06)		1.25 (0.69)		1.22 (0.54)		1.32 (0.44)	
	조손가정 (n=147)	1.17 (0.53)		1.11 (0.37)		1.49 (0.92)		1.20 (0.61)		1.24 (0.54)		1.26 (0.42)	
전체 M(SD)		1.07(0.38)		1.10(0.39)		1.52(0.99)		1.19(0.62)		1.19(0.50)		1.23(0.37)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거주지별로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항목 모두 서울지역이 광역시나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기물파손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흡연, 음주, 가출, 음란물 접촉, 도박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절도, 폭력, 갈취 항목은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무단결석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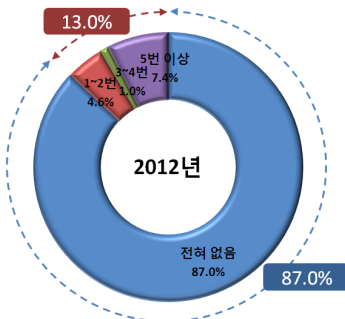
비행영역(전체)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t=24.147$, $p<.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11.113$, $p<.001$). 또한 거주지별로는 서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F=7.170$, $p<.01$),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F=25.315$, $p<.001$). 각 세부항목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89>에 제시되어 있다.

(6)-① 비행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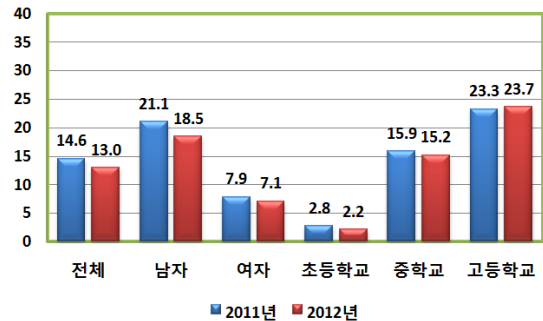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3.0%가 '있다', 87.0%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3.0%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87.0%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18.5%)이 여학생(7.1%)보다 흡연경험 비율이 약 2.6배 정도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2.2%에 불과한 반면 중학생(15.2%)으로 올라가면서 급증하였고 고등학생(23.7%)의 흡연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3.0%)이 2011년(14.6%)에 비해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p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각각 0.8%p 및 0.6%p씩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경험률이 0.4%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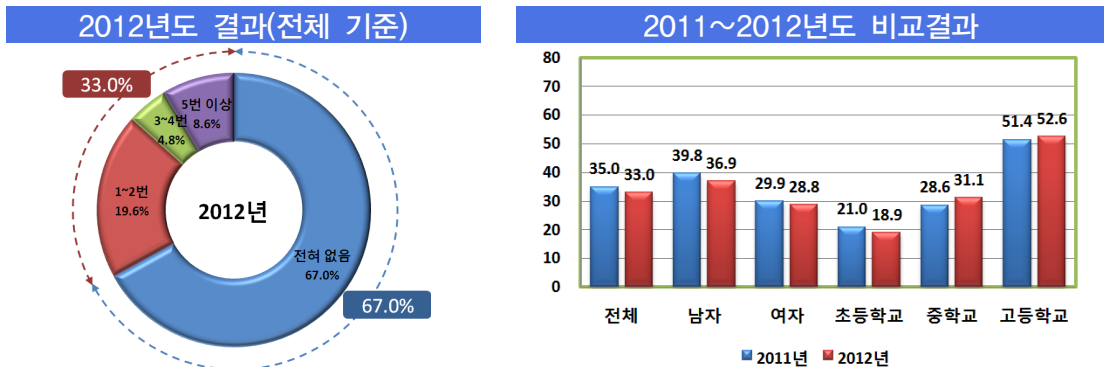
표 II-9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성별	전체	9,435	85.2	4.9	1.0	8.7	0.1	8,745	87.0	4.6	1.0	7.4	0.0
	남	4,874	78.9	6.7	1.3	13.1	0.1	4,494	81.4	6.2	1.2	11.1	0.0
	여	4,561	92.0	3.0	0.8	4.1	0.0	4,251	92.9	2.9	0.7	3.5	0.0
교 급 별	초	2,943	97.1	2.3	0.2	0.3	0.1	3,185	97.7	1.7	0.3	0.2	0.0
	중	2,844	84.0	6.9	1.4	7.6	0.1	2,986	84.8	6.8	1.5	6.9	0.0
	고	3,648	76.7	5.4	1.5	16.4	0.0	2,574	76.2	5.6	1.2	16.9	0.0

(6)-② 비행 - 음주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3.0%가 ‘있다’, 67.0%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3.0%, ‘전혀 없다’의 경우에는 67.0%로 나타났다.
-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6.9%)이 여학생(28.8%)보다 음주경험률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9%)에서 중학생(31.1%), 고등학생(52.6%)으로 올라갈수록 음주경험이 더 많았는데, 고등학생의 음주경험률은 초등학생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였다.
- 2011년과 2012년의 음주경험률을 비교해보면, 2012년(33.0%)이 2011년(35.0%)에 비해 2.0%p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2.1%p 더 낮아진 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2.5%p 및 1.2%p씩 더 높아졌다.



【그림 II-83】 술을 마신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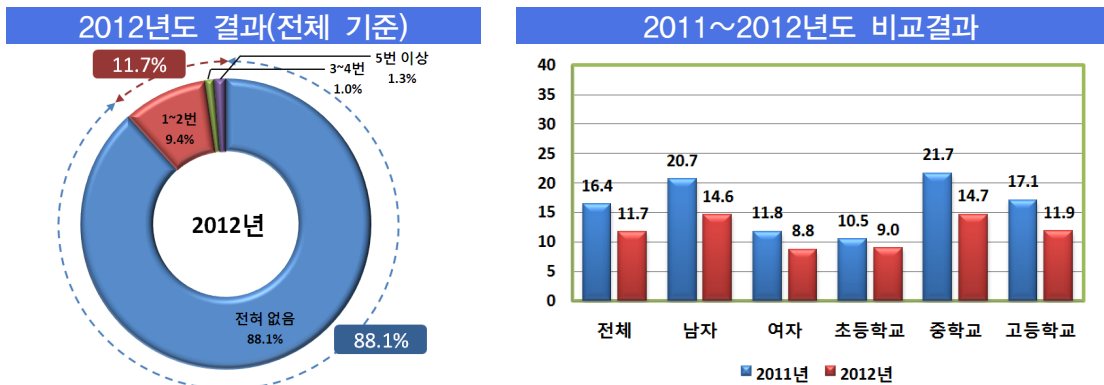
표 II-9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64.9	20.0	5.3	9.7	0.1	8,745	67.0	19.6	4.8	8.6	0.1
성별	남	4,874	60.1	21.2	5.4	13.2	0.1	4,494	63.0	20.3	5.4	11.2	0.1
	여	4,561	70.0	18.8	5.1	6.0	0.0	4,251	71.2	18.9	4.0	5.9	0.0
교 급 별	초	2,943	78.9	16.6	2.3	2.1	0.1	3,185	80.9	13.9	2.6	2.4	0.1
	중	2,844	71.4	18.4	4.5	5.7	0.0	2,986	68.9	20.4	4.6	6.1	0.1
	고	3,648	48.5	24.1	8.3	19.0	0.1	2,574	47.4	25.7	7.7	19.2	0.0

(6)-③ 비행 - 절도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7%가 ‘있다’, 88.1%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88.1%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의 경우 남학생(14.6%)이 여학생(8.8%)보다 절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4.7%)의 경우가 절도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1.9%), 초등학생(9.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1.7%)이 2011년(16.4%)에 비해 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II-84】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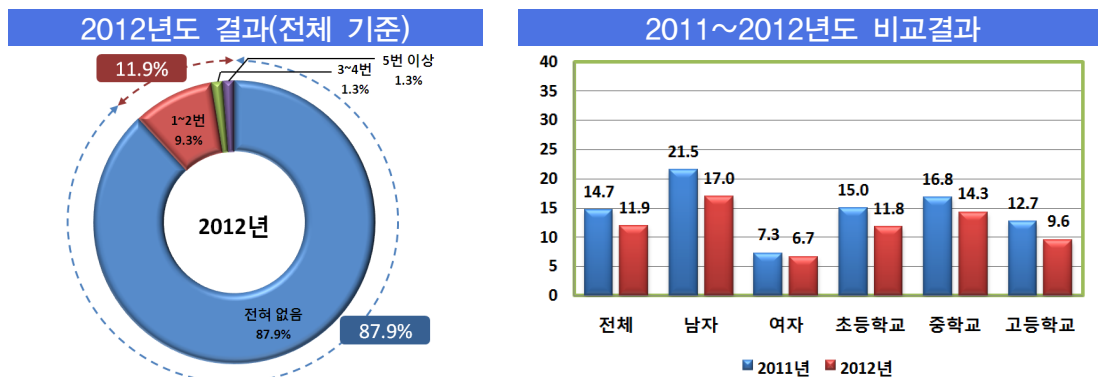
표 II-92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83.5	12.8	1.9	1.7	0.1	8,745	88.1	9.4	1.0	1.3	0.1
성별	남	4,874	79.3	15.7	2.6	2.4	0.1	4,494	85.2	11.5	1.2	1.9	0.2
	여	4,561	88.0	9.6	1.2	1.0	0.1	4,251	91.1	7.3	0.8	0.7	0.1
교급	초	2,943	89.3	8.9	1.1	0.5	0.2	3,185	91.0	7.6	0.5	0.9	0.1
	중	2,844	78.3	17.0	2.4	2.3	0.1	2,986	85.2	11.4	1.5	1.8	0.2
	고	3,648	82.8	12.6	2.3	2.2	0.1	2,574	88.0	9.5	1.0	1.4	0.2

(6)-④ 비행 - 폭력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9%가 ‘있다’, 87.9%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1.9%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87.9%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17.0%)이 여학생(6.7%)보다 폭력 가해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4.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초등학생(11.8%), 고등학생(9.6%)순이었다.
- 연도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11.9%)이 2011년(14.7%)에 비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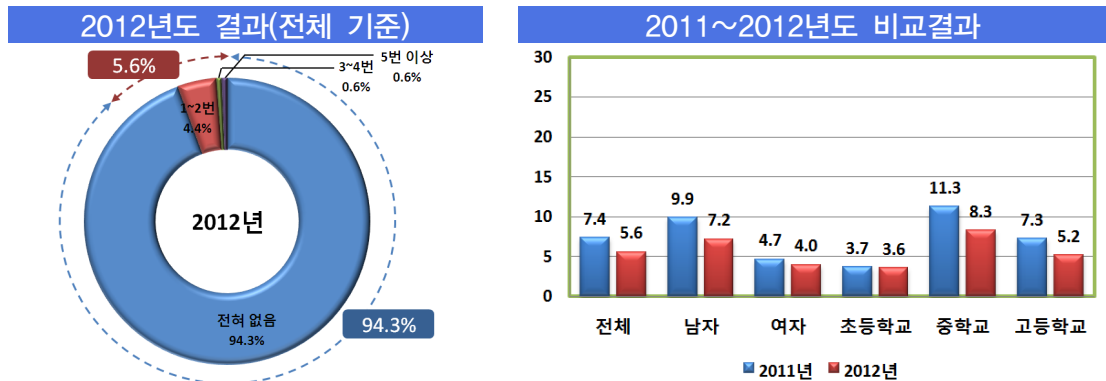
표 II-9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85.3	11.1	2.0	1.6	0.1	8,745	87.9	9.3	1.3	1.3	0.1	
성별	남	4,874	78.3	16.0	2.9	2.6	0.2	4,494	82.8	12.8	2.0	2.2	0.2
	여	4,561	92.7	5.8	1.0	0.5	0.0	4,251	93.3	5.6	0.6	0.5	0.0
교급별	초	2,943	84.8	11.6	2.0	1.4	0.1	3,185	88.1	9.7	1.2	0.9	0.1
	중	2,844	83.2	12.6	2.6	1.6	0.1	2,986	85.6	10.9	1.6	1.8	0.2
	고	3,648	87.2	9.5	1.5	1.7	0.1	2,574	90.5	7.0	1.2	1.4	0.0

(6)-⑤ 비행 - 갈취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6%가 ‘있다’, 94.3%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6%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4.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 갈취경험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2%)이 여학생(4.0%)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8.3%)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는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5.2%), 초등학생(3.6%)의 순이었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5.6%)이 2011년(7.4%)에 비해 갈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미미하였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각각 3.0%p, 2.7%p씩 더 낮아졌다.



【그림 II-86】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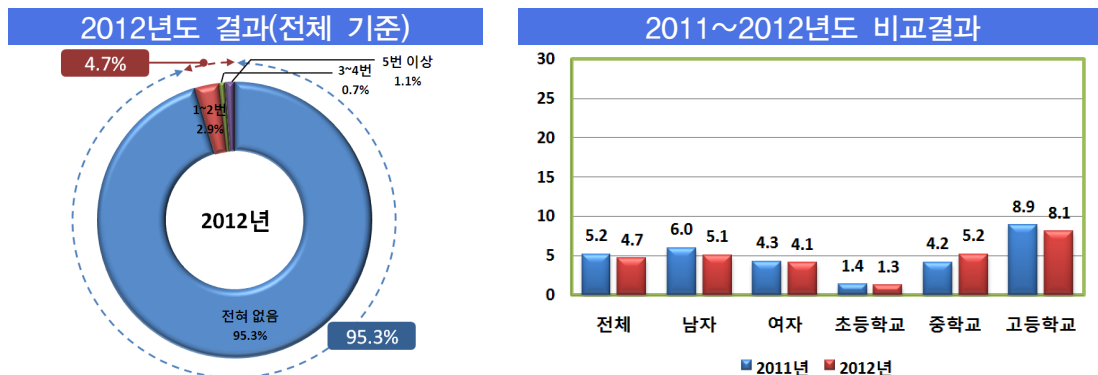
표 II-9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92.6	5.5	0.9	1.0	0.1	8,745	94.3	4.4	0.6	0.6	0.1
성별	남	4,874	90.0	7.2	1.1	1.6	0.1	4,494	92.7	5.3	0.9	1.0	0.1
	여	4,561	95.2	3.7	0.6	0.4	0.0	4,251	95.9	3.4	0.3	0.3	0.1
교급별	초	2,943	96.2	3.0	0.3	0.4	0.1	3,185	96.3	3.3	0.2	0.1	0.1
	중	2,844	88.7	8.5	1.4	1.4	0.0	2,986	91.7	6.3	1.0	1.0	0.1
	고	3,648	92.6	5.2	0.9	1.2	0.1	2,574	94.8	3.7	0.7	0.8	0.0

(6)-⑥ 비행 - 무단결석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7%가 '있다', 95.3%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 '전혀 없다'의 경우는 95.3%로 나타났다.
-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5.1%)이 여학생(4.1%)보다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1.3%)에서 중학생(5.2%), 고등학교(8.1%)으로 올라갈수록 무단결석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4.7%)이 2011년(5.2%)에 비해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5%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중학생은 2012년에 1.0%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 0.8%p 더 낮아졌다.



【그림 II-87】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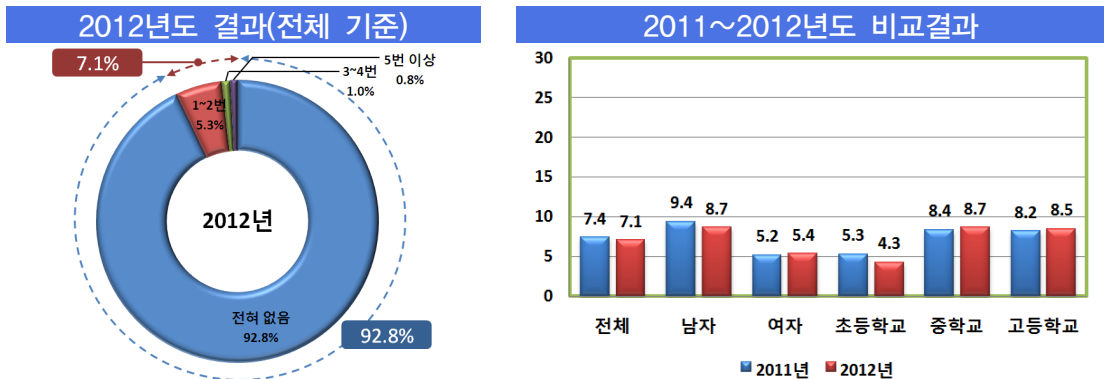
표 II-95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성별	전체	9,435	94.8	3.1	0.9	1.2	0.0	8,745	95.3	2.9	0.7	1.1	0.0
	남	4,874	94.0	3.5	1.0	1.5	0.0	4,494	94.8	3.0	0.8	1.3	0.1
교급별	여	4,561	95.6	2.8	0.7	0.8	0.0	4,251	95.9	2.8	0.5	0.8	0.0
	초	2,943	98.6	1.2	0.1	0.1	0.0	3,185	98.6	1.1	0.1	0.1	0.1
	중	2,844	95.6	2.8	0.7	0.7	0.0	2,986	94.8	3.4	0.7	1.1	0.0
	고	3,648	91.1	4.9	1.6	2.4	0.0	2,574	91.9	4.5	1.3	2.3	0.0

(6)-⑦ 비행 - 가출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가 '있다', 92.8%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가 '있다' 라고 응답한 반면, 92.8%는 '전혀 없다' 고 응답하였다.
-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7%)이 여학생(5.4%)보다 가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가출 경험률이 4.3%로 낮는데 비해 중학생(8.7%) 및 고등학생(8.5%)의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 2011년도와 2012년의 가출경험률을 비교하면, 2012년(7.1%)이 2011년(7.4%)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0.7%p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2011년에 비해 더 낮아진 반면 중고등학생은 그 차이가 미미하나 가출경험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림 II-8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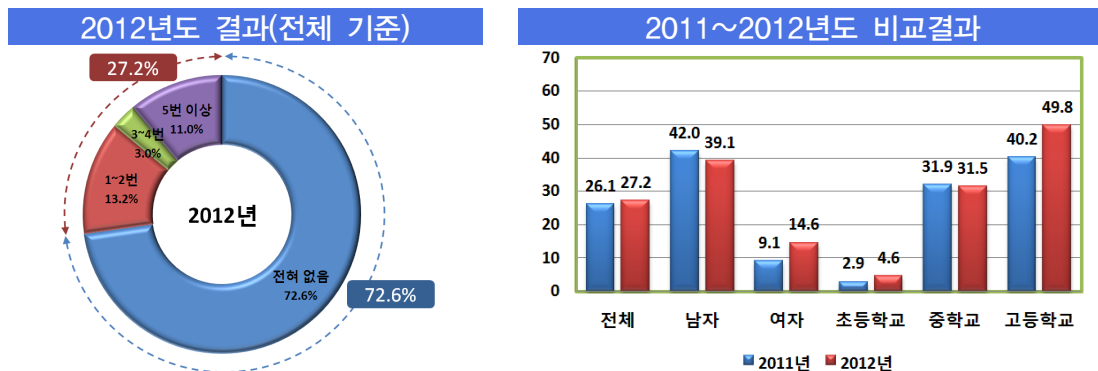
표 II-9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92.6	5.7	0.9	0.8	0.0	8,745	92.8	5.3	1.0	0.8	0.1
성별	남	4,874	90.4	7.0	1.3	1.1	0.1	4,494	91.1	6.4	1.3	1.0	0.2
	여	4,561	94.8	4.2	0.6	0.4	0.0	4,251	94.5	4.2	0.7	0.5	0.1
교급별	초	2,943	94.7	3.9	0.7	0.7	0.0	3,185	95.5	3.5	0.6	0.2	0.1
	중	2,844	91.5	6.9	0.9	0.6	0.1	2,986	91.1	6.5	1.3	0.9	0.1
	고	3,648	91.7	6.1	1.1	1.0	0.0	2,574	91.3	6.1	1.2	1.2	0.2

(6)-⑧ 비행 -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접촉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7.2%가 ‘있다’, 72.6%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72.6%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9.1%)이 여학생(14.6%)보다 음란물을 보았던 경험률이 3배 가까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4.6%에 불과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비교해 7배 가까이 높았고(31.5%) 고등학생(49.8%)은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27.2%)이 2011년(26.1%)에 비해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1.1%p 더 높아졌고,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2011년보다 2.9%p 더 낮은 응답률이 나타난 데 비해 여학생은 5.5%p 더 높아졌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만 미미하게 더 낮아졌고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은 2011년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그림 II-8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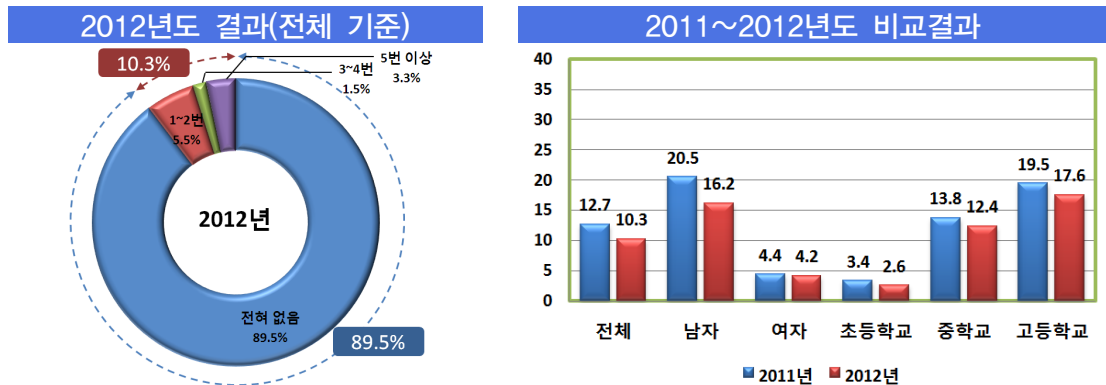
표 II-97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73.8	11.7	2.7	11.7	0.1	8,745	72.6	13.2	3.0	11.0	0.3	
성별	남	4,874	57.8	16.3	4.0	21.7	0.2	4,494	60.6	15.4	4.3	19.4	0.4
	여	4,561	90.8	6.8	1.3	1.0	0.1	4,251	85.3	10.8	1.6	2.2	0.1
교급	초	2,943	97.0	2.1	0.4	0.4	0.0	3,185	95.2	3.5	0.5	0.6	0.2
	중	2,844	67.9	16.0	4.1	11.8	0.2	2,986	68.1	17.6	3.5	10.4	0.3
	고	3,648	59.6	16.0	3.5	20.7	0.2	2,574	49.9	20.0	5.3	24.5	0.3

(6)-⑨ 비행 - 도박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3%가 ‘있다’, 89.5%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10.3%가 ‘있다’ 라고 응답한 반면, 89.5%는 ‘전혀 없다’ 고 응답하였다.
-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남학생(16.2%)이 여학생(4.2%)보다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은 2.6%인데 반해,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12.4%로 급증하였고 고등학생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0.3%)이 2011년(12.7%)에 비해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0】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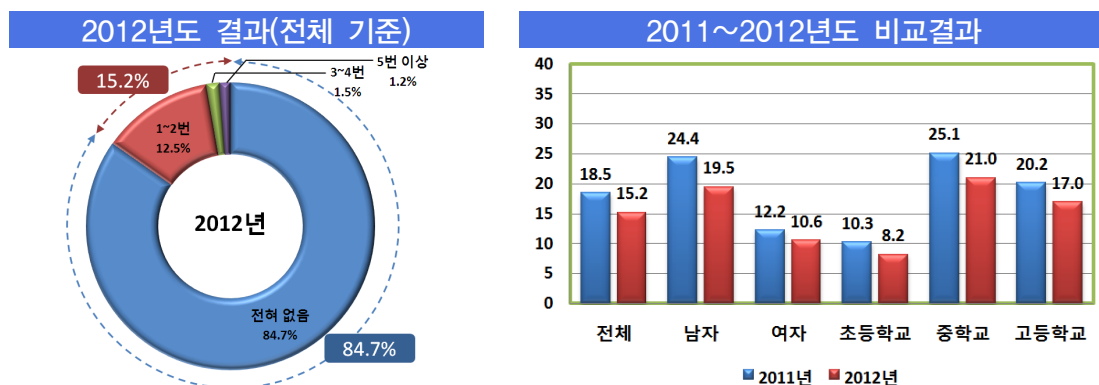
표 II-98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87.2	6.3	1.7	4.7	0.1	8,745	89.5	5.5	1.5	3.3	0.1
성별	남	4,874	79.4	9.4	2.8	8.3	0.1	4,494	83.7	7.8	2.7	5.7	0.1
	여	4,561	95.5	2.9	0.6	0.9	0.0	4,251	95.7	3.0	0.3	0.9	0.1
교급별	초	2,943	96.4	2.2	0.5	0.7	0.1	3,185	97.4	1.6	0.3	0.7	0.1
	중	2,844	86.2	7.4	2.0	4.4	0.0	2,986	87.5	7.0	2.0	3.4	0.1
	고	3,648	80.5	8.7	2.5	8.3	0.0	2,574	82.2	8.5	2.6	6.5	0.2

(6)-⑩ 비행 - 기물파손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5.2%가 ‘있다’, 84.7%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5.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84.7%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기물파손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19.5%)이 여학생(10.6%)보다 상기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21.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7.0%), 초등학생(8.2%)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15.2%)이 2011년(18.5%)에 비해 기물파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p 더 낮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II-91】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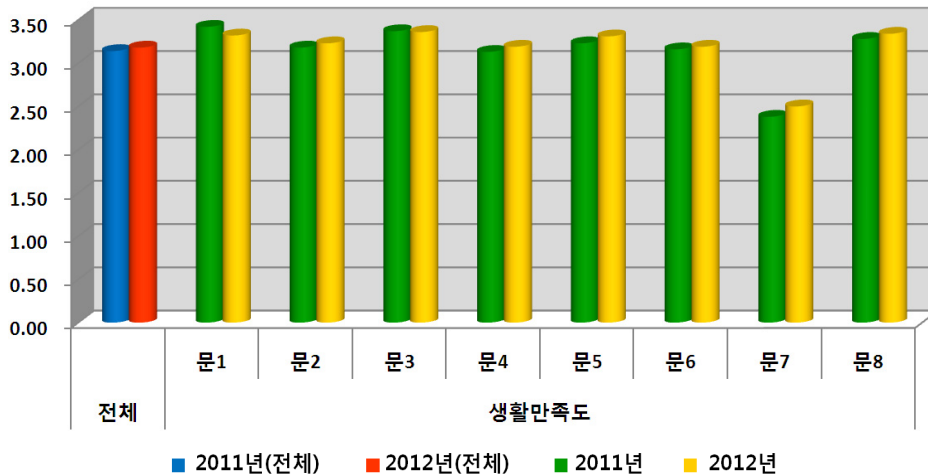
표 II-9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9,435	81.3	14.9	1.8	1.8	0.1	8,745	84.7	12.5	1.5	1.2	0.1
성별	남	4,874	75.5	18.7	2.6	3.1	0.1	4,494	80.2	15.6	2.0	1.9	0.2
	여	4,561	87.6	10.9	0.9	0.4	0.0	4,251	89.4	9.3	0.9	0.4	0.0
교급별	초	2,943	89.6	9.6	0.5	0.2	0.1	3,185	91.7	7.3	0.6	0.3	0.1
	중	2,844	74.9	20.3	2.5	2.3	0.1	2,986	78.8	17.6	1.9	1.5	0.1
	고	3,648	79.7	15.1	2.3	2.8	0.1	2,574	82.8	13.1	2.0	1.9	0.2

2) 긍정적 요인

(1) 생활만족도 - 항목별 평균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친구와의 관계(M=3.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M=3.34)', '부모님과의 관계(M=3.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및 친구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아졌음.



【그림 II-92】 2011~2012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표 II-100 2011~2012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1	부모님과의 관계	3.42	3.32
2	경제적인 생활수준	3.18	3.23
3	친구와의 관계	3.37	3.36
4	여가 생활	3.13	3.19
5	선생님과의 관계	3.23	3.31
6	학교생활	3.16	3.19
7	학업성적	2.38	2.50
8	건강	3.28	3.34
생활만족도(전체)		3.14	3.1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I-10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선생님과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생활,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과 관련하여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여,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학교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교생활의 경우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및 건강의 영역에서는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여가생활 및 선생님과 관계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1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 생활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i>n</i> =4,494)	3.37 (0.87)	5.433***	3.29 (0.88)	6.466***	3.46 (0.78)	12.508***	3.29 (0.93)	10.055***
	여자 (<i>n</i> =4,251)	3.26 (0.90)		3.17 (0.89)		3.24 (0.86)		3.09 (0.96)	
교급별	초등학교 (<i>n</i> =3,185)	3.58 (0.75)	227.430*** (ab,ac)	3.59 (0.74)	528.178*** (ab,ac, bc)	3.53 (0.79)	119.826*** (ab,ac, bc)	3.57 (0.79)	530.225*** (ab,ac, bc)
	중학교 (<i>n</i> =2,986)	3.19 (0.93)		3.16 (0.88)		3.29 (0.86)		3.12 (0.95)	
	고등학교 (<i>n</i> =2,574)	3.14 (0.93)		2.88 (0.90)		3.22 (0.80)		2.80 (0.96)	
거주지	서울 (<i>n</i> =1,300)	3.29 (0.90)	1.067	3.18 (0.91)	2.747	3.36 (0.81)	0.988	3.24 (0.89)	2.458
	광역시 (<i>n</i> =2,185)	3.32 (0.89)		3.24 (0.88)		3.38 (0.81)		3.17 (0.95)	
	시군 (<i>n</i> =5,260)	3.33 (0.89)		3.24 (0.88)		3.35 (0.84)		3.19 (0.9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i>n</i> =7,681)	3.34 (0.88)	6.738***	3.27 (0.86)	95.466*** (gh,hi)	3.37 (0.82)	7.189** (gh)	3.20 (0.95)	13.112*** (gh,hi)
	한부모가정 (<i>n</i> =709)	3.09 (0.97)		2.80 (0.99)		3.25 (0.85)		3.02 (0.94)	
	조손가정 (<i>n</i> =147)	—		3.15 (1.00)		3.28 (0.93)		3.31 (0.90)	
전체 <i>M</i> (<i>SD</i>)		3.32(0.89)		3.23(0.88)		3.36(0.83)		3.19(0.95)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		생활만족도 (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3.32 (0.89)	0.887	3.25 (0.92)	6.786 ***	2.58 (1.09)	6.767 ***	3.41 (0.85)	7.921 ***	3.24 (0.66)	9.328 ***
	여자 (n=4,251)	3.30 (0.85)		3.12 (0.93)		2.42 (1.06)		3.26 (0.87)		3.11 (0.67)	
교급 별	초등학교 (n=3,185)	3.60 (0.77)	306.624 *** (ab,ac, bc)	3.52 (0.80)	380.004 *** (ab,ac, bc)	3.17 (0.94)	1345.750 *** (ab,ac, bc)	3.62 (0.73)	370.797 *** (ab,ac, bc)	3.52 (0.60)	822.495 *** (ab,ac, bc)
	중학교 (n=2,986)	3.19 (0.90)		3.10 (0.94)		2.27 (0.99)		3.31 (0.86)		3.08 (0.64)	
	고등학교 (n=2,574)	3.09 (0.85)		2.89 (0.92)		1.94 (0.88)		3.02 (0.90)		2.88 (0.59)	
거주 지	서울 (n=1,300)	3.30 (0.87)	1.148	3.26 (0.88)	4.194* (df)	2.49 (1.07)	2.423	3.33 (0.87)	0.168	3.19 (0.65)	0.172
	광역시 (n=2,185)	3.33 (0.84)		3.19 (0.92)		2.46 (1.06)		3.35 (0.85)		3.18 (0.66)	
	사군 (n=5,260)	3.30 (0.88)		3.17 (0.93)		2.52 (1.08)		3.33 (0.87)		3.18 (0.6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3.32 (0.86)	17.572 *** (gh,hi)	3.21 (0.92)	20.461 *** (gh)	2.52 (1.07)	21.950 *** (gh)	3.35 (0.85)	14.734 *** (gh)	3.20 (0.66)	9.134 ***
	한부모가정 (n=709)	3.13 (0.91)		2.99 (0.95)		2.25 (1.01)		3.17 (0.94)		2.96 (0.68)	
	조손가정 (n=147)	3.37 (0.84)		3.07 (1.07)		2.36 (1.18)		3.31 (0.95)		—	
전체 <i>M</i> (<i>SD</i>)		3.31(0.87)		3.19(0.92)		2.50(1.08)		3.34(0.86)		3.18(0.67)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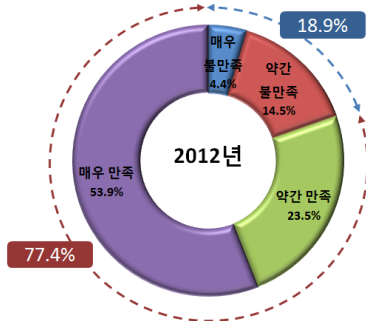
생활만족도 영역 전체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t=9.328$, $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 수록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F=822.495$, $p<.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아졌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0.172$, $p>.05$),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t=9.134$, $p<.001$), 양부모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① 생활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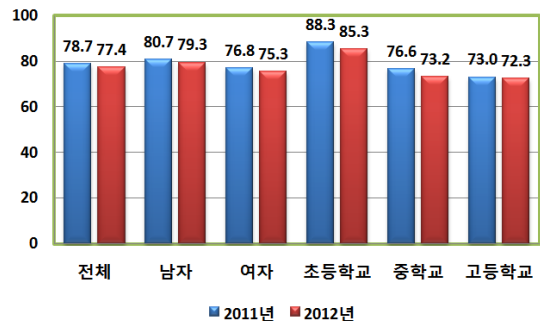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4%가 ‘만족한다고 응답**

-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7.4%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반면, 18.9%는 ‘불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 ‘만족한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9.3%)이 여학생(75.3%)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가 85.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3.2%), 고등학생(72.3%)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볼 때, 2012년(77.4%)이 2011년(78.7%)에 비해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3】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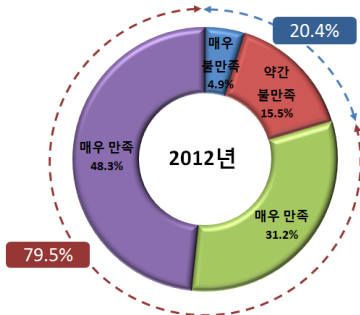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4.0	15.3	25.0	53.7	1.9	8,745	4.4	14.5	23.5	53.9	3.8	
성별	남	4,874	3.9	13.5	24.9	55.8	1.9	4,494	4.3	12.3	22.8	56.5	4.1
	여	4,561	4.2	17.2	25.2	51.6	1.8	4,251	4.4	16.8	24.2	51.1	3.4
교급별	초	2,943	2.5	7.2	17.0	71.3	2.1	3,185	2.7	7.2	17.1	68.2	4.8
	중	2,844	4.1	17.5	27.5	49.1	1.8	2,986	5.2	18.1	25.9	47.3	3.6
	고	3,648	5.2	20.1	29.7	43.3	1.8	2,574	5.4	19.5	28.6	43.7	2.7

(1)-② 생활만족도 - 경제적인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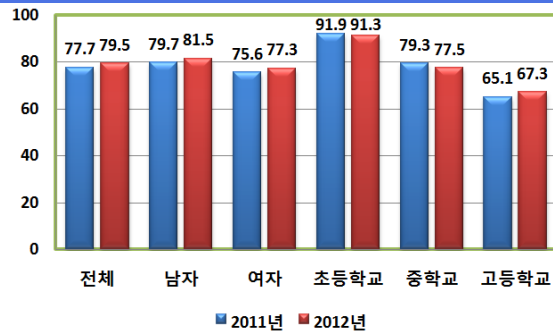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5%가 ‘만족한다’고 응답**

-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5%가 ‘만족한다’, 20.4%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1.5%)이 여학생(77.3%)보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91.3%)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중학생(77.5%), 고등학생(67.3%)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만족한다는 응답을 비교해보면, 2012년(79.5%)이 2011년(77.7%)에 비해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1.8%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만 2.2%p 더 높아졌을 뿐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2011년과 비교해볼 때 긍정응답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4】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표 II-10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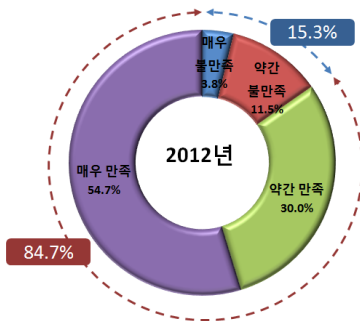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4.6	17.6	33.2	44.5	0.1	8,745	4.9	15.5	31.2	48.3	0.1	
성별	남	4,874	4.3	16.0	33.2	46.5	0.1	4,494	4.9	13.3	29.4	52.1	0.2
	여	4,561	5.0	19.3	33.3	42.3	0.1	4,251	4.8	17.9	33.0	44.3	0.0
교급별	초	2,943	2.2	5.8	22.9	69.0	0.3	3,185	3.1	5.4	21.1	70.2	0.2
	중	2,844	3.9	16.8	36.0	43.3	0.0	2,986	4.7	17.6	34.9	42.6	0.2
	고	3,648	7.2	27.6	39.5	25.6	0.0	2,574	7.3	25.5	39.4	27.9	0.0

(1)-③ 생활만족도 - 친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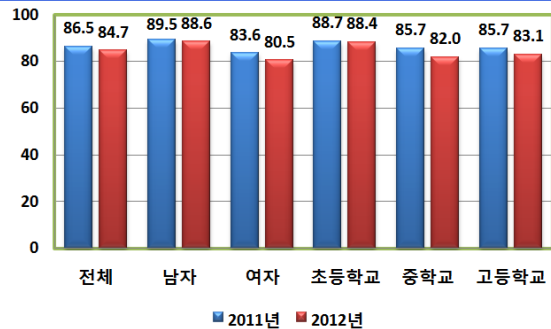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7%가 ‘만족한다’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4.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5.3%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만족한다’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80.5%)보다 남학생(88.6%)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8.4%)에게서 가장 높은 긍정응답률이 나타났고 고등학교(83.1%), 중학생(8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84.7%)이 2011년(86.5%)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1.8%p 더 낮아졌고, 성별 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볼 때 각각 3.7%p와 2.6%p씩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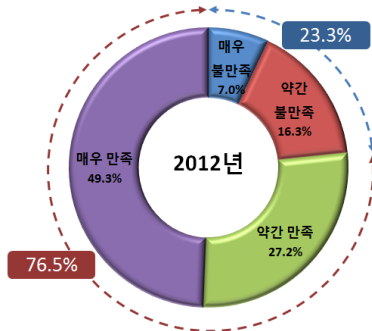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성별	전체	9,435	3.3	10.0	33.2	53.3	0.1	8,745	3.8	11.5	30.0	54.7	0.1
	남	4,874	2.9	7.5	31.0	58.5	0.1	4,494	3.4	7.9	27.5	61.1	0.1
	여	4,561	3.7	12.7	35.7	47.9	0.1	4,251	4.1	15.3	32.6	47.9	0.1
교급별	초	2,943	3.7	7.3	22.0	66.7	0.2	3,185	3.6	7.9	20.1	68.3	0.2
	중	2,844	3.8	10.5	33.1	52.6	0.0	2,986	4.4	13.4	30.9	51.1	0.1
	고	3,648	2.5	11.8	42.5	43.2	0.0	2,574	3.1	13.7	41.1	42.0	0.0

(1)-④ 생활만족도 - 여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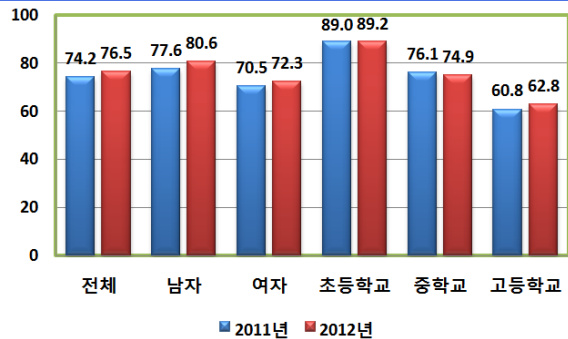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5%가 ‘만족한다’고 응답**

-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니까?’ 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76.5%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23.3%는 ‘불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
-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72.3%)보다 남학생(80.6%)의 경우 상기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9.2%)에서 고등학교(62.8%)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비율이 더 낮아졌다.
-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76.5%)이 2011년(74.2%)과 비교해 여가 생활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p 더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는 연도별 차이가 미미했고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응답률이 1.2%p 더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2.0%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6】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 II-10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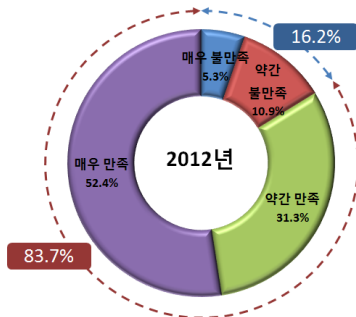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7.4	18.3	29.2	45.0	0.1	8,745	7.0	16.3	27.2	49.3	0.1
성별	남	4,874	6.6	15.6	27.7	49.9	0.2	4,494	6.7	12.6	25.9	54.7	0.2
	여	4,561	8.3	21.0	30.8	39.7	0.1	4,251	7.5	20.2	28.7	43.6	0.1
교급별	초	2,943	3.6	7.2	18.2	70.8	0.3	3,185	4.2	6.5	17.7	71.5	0.2
	중	2,844	6.3	17.6	32.1	44.0	0.0	2,986	7.2	17.8	30.7	44.2	0.1
	고	3,648	11.4	27.6	35.9	24.9	0.1	2,574	10.5	26.7	35.1	27.7	0.0

(1)-⑤ 생활만족도 -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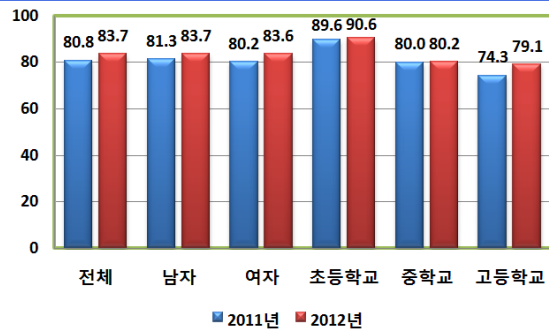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7%가 ‘만족한다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와 관련하여,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3.7%, ‘만족하지 않는다’ 는 16.2%로 나타났다.
-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3.7%)과 여학생(83.6%)의 응답률은 차이가 미미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0.6%)에서 중학생(80.2%), 고등학생(79.1%)으로 올라갈수록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1년(80.8%)에 비해 2012년(83.7%)의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해 긍정응답률이 더 높아졌고 중학생은 연도별 차이가 미미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7】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6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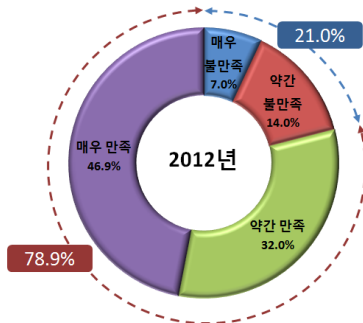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5.9	13.2	33.7	47.1	0.1	8,745	5.3	10.9	31.3	52.4	0.1	
성별	남	4,874	6.5	12.0	32.7	48.6	0.1	4,494	6.2	9.9	29.8	53.9	0.2
	여	4,561	5.2	14.5	34.8	45.4	0.1	4,251	4.4	12.0	32.8	50.8	0.0
고급별	초	2,943	4.0	6.3	18.0	71.6	0.1	3,185	4.0	5.2	17.7	72.9	0.2
	중	2,844	6.5	13.5	36.0	44.0	0.1	2,986	6.7	13.1	35.0	45.2	0.1
	고	3,648	7.0	18.6	44.6	29.7	0.1	2,574	5.4	15.4	43.7	35.4	0.1

(1)-⑥ 생활만족도 -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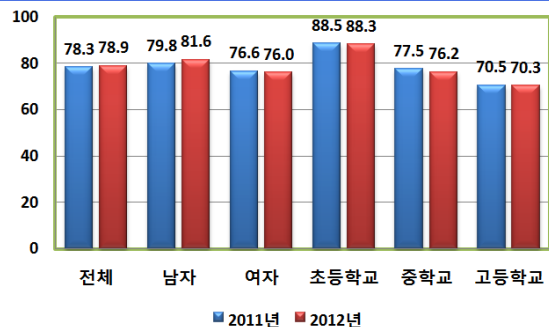
**‘학교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만족한다’고 응답**

-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8.9 %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21.0%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81.6%)이 여학생(76.0%)보다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88.3%)에서 고등학교(70.3%)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78.9%)이 2011년(78.3%)과 비교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6%p 더 높아졌다.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 긍정응답률이 2012년에 더 낮아진 데 반해 남자는 1.8%p 더 높아졌다.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연도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중학생은 2011년도와 비교해 1.3%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8】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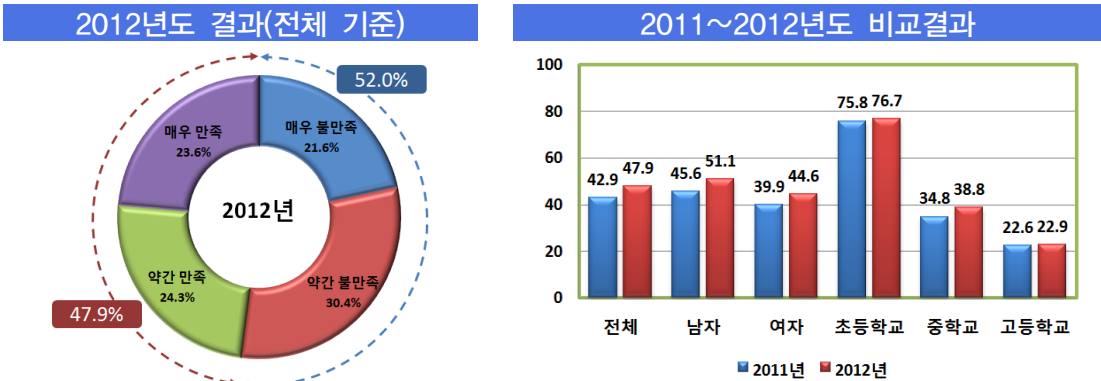
표 II-107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6.6	15.0	34.8	43.5	0.1	8,745	7.0	14.0	32.0	46.9	0.2	
성별	남	4,874	6.4	13.7	33.6	46.2	0.1	4,494	7.1	11.2	30.8	50.8	0.2
	여	4,561	6.9	16.4	36.0	40.6	0.1	4,251	6.9	17.0	33.3	42.7	0.2
교급별	초	2,943	3.7	7.7	22.0	66.5	0.1	3,185	4.0	7.4	21.2	67.1	0.2
	중	2,844	6.8	15.5	35.8	41.7	0.2	2,986	8.1	15.6	34.7	41.5	0.2
	고	3,648	8.9	20.4	44.3	26.2	0.1	2,574	9.3	20.3	42.3	28.0	0.1

(1)-⑦ 생활만족도 - 학업성적

‘학업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7.9%가 ‘만족한다’, 52.0%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학업 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2.0%가 ‘불만족한다’ 고 응답하였고, 47.9%는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만족한다’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51.1%)이 여학생(44.6%) 보다 학업성적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6.7%)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중학생(38.8%), 고등학생(22.9%)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에는 불만족하였다.
- 2011년과 비교해보면, 2012년(47.9%)이 2011년(42.9%)에 비해 학업성적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p 더 높아졌고, 이런 경향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 2011년도와 비교해 각각 0.9%p, 4.0%p씩 높아졌고, 고등학생은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그림 II-99】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표 II-10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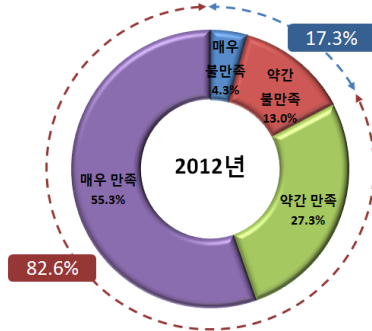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24.8	32.2	23.7	19.2	0.1	8,745	21.6	30.4	24.3	23.6	0.1
성별	남	4,874	23.0	31.2	23.4	22.2	0.1	4,494	20.2	28.6	24.5	26.6	0.1
	여	4,561	26.7	33.3	24.0	15.9	0.1	4,251	23.1	32.3	24.2	20.4	0.1
교급별	초	2,943	7.6	16.4	31.2	44.6	0.2	3,185	7.1	16.0	29.7	47.0	0.2
	중	2,844	27.3	37.9	23.9	10.9	0.1	2,986	25.4	35.8	25.2	13.6	0.1
	고	3,648	36.7	40.6	17.5	5.1	0.1	2,574	35.1	41.9	16.6	6.3	0.1

(1)-⑧ 생활만족도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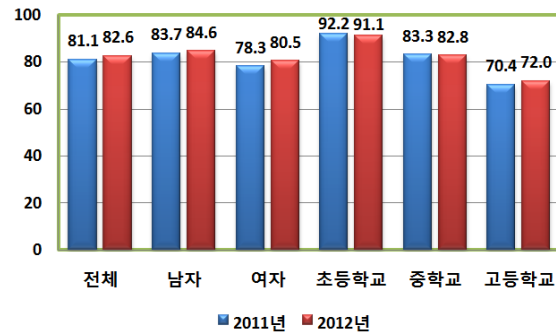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6%가 ‘만족한다’, 17.3%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2.6%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7.3%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4.6%)이 여학생(80.5%)보다 건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91.1%)에서 중학생(82.8%), 고등학교(72.0%)으로 갈수록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82.6%)이 2011년(81.1%)에 비해 건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5%p 더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하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2012년의 경우 조금씩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이 건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에 비해 1.6%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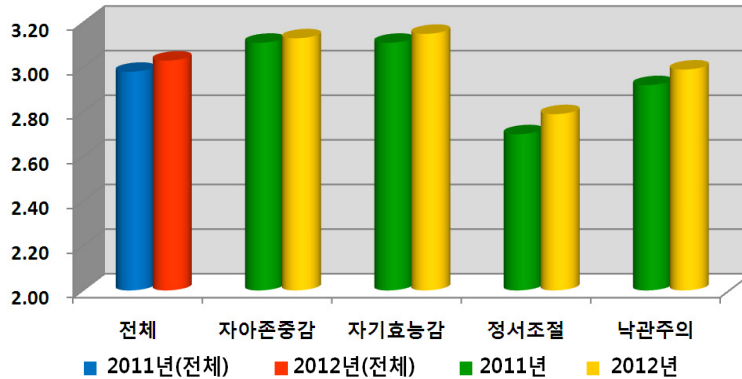
【그림 II-100】 건강에 대한 만족도

표 II-109 건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9,435	4.3	14.6	29.6	51.5	0.0	8,745	4.3	13.0	27.3	55.3	0.1	
성별	남	4,874	3.8	12.5	28.0	55.7	0.1	4,494	4.5	10.7	24.1	60.5	0.1
	여	4,561	4.8	16.9	31.3	47.0	0.0	4,251	4.1	15.3	30.7	49.8	0.1
교급별	초	2,943	2.7	5.1	17.9	74.3	0.1	3,185	3.1	5.7	17.3	73.8	0.1
	중	2,844	3.6	13.1	31.4	51.9	0.0	2,986	4.6	12.5	30.3	52.5	0.1
	고	3,648	6.1	23.5	37.7	32.7	0.0	2,574	5.5	22.4	36.3	35.7	0.0

(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2-1 자아존중감/2-2 자기효능감/2-3 정서조절/2-4 낙관주의)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기효능감(M=3.15)’이 가장 높았으며, ‘자아존중감(M=3.13)’, ‘낙관주의(M=2.99)’, ‘정서조절(M=2.79)’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및 낙관주의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함.



【그림 II-101】 2011~2012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평균

표 II-110 2011~2012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9	3.11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00	3.03
	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20	3.22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11	3.13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13	3.16
소계			3.11	3.13
자기 효능감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3.22	3.25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09	3.14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02	3.06
소계			3.11	3.15
정서 조절	1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59	2.69
	2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2.73	2.81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79	2.87
소계			2.70	2.79
낙관 주의	1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73	2.83
	2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97	3.02
	3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3.07	3.11
소계			2.92	2.99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2.98	3.0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111>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 요인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차이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의 요인에서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요인의 평균점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모든 요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 교급, 거주지,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 <표 II-111>과 같다.

표 II-111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3.15 (0.74)	1.910	3.18 (0.69)	3.798 ***	2.88 (0.77)	10.882 ***	3.03 (0.74)	5.230 ***	3.07 (0.65)	5.744 ***
	여자 (n=4,251)	3.12 (0.71)		3.12 (0.69)		2.70 (0.79)		2.95 (0.73)		2.99 (0.64)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3.27 (0.78)	94.917 *** (ab,ac)	3.34 (0.69)	201.352 *** (ab,ac,bc)	3.09 (0.78)	447.203 *** (ab,ac,bc)	3.24 (0.75)	317.001 *** (ab,ac,bc)	3.24 (0.67)	288.590 *** (ab,ac,bc)
	중학교 (n=2,986)	3.07 (0.71)		3.08 (0.68)		2.70 (0.75)		2.89 (0.70)		2.96 (0.63)	
	고등학교 (n=2,574)	3.04 (0.65)		3.01 (0.64)		2.52 (0.70)		2.79 (0.66)		2.87 (0.57)	
거주지	서울 (n=1,300)	3.19 (0.70)	8.050*** (df)	3.22 (0.68)	11.379*** (df,ef)	2.85 (0.78)	4.169* (df)	3.02 (0.72)	2.525	3.09 (0.64)	7.442** (df)
	광역시 (n=2,185)	3.15 (0.71)		3.18 (0.67)		2.79 (0.79)		3.01 (0.72)		3.05 (0.64)	
	시군 (n=5,260)	3.11 (0.74)		3.13 (0.70)		2.78 (0.79)		2.97 (0.74)		3.02 (0.6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3.16 (0.72)	30.035 *** (gh,gi)	3.17 (0.68)	33.001 *** (gh,hi)	2.81 (0.78)	21.547 *** (gh)	3.01 (0.73)	25.549 *** (gh)	3.05 (0.64)	35.207 *** (gh)
	한부모가정 (n=709)	2.95 (0.73)		2.96 (0.69)		2.61 (0.75)		2.80 (0.74)		2.85 (0.65)	
	조손가정 (n=147)	2.97 (0.84)		3.10 (0.79)		2.74 (0.86)		2.95 (0.82)		2.94 (0.74)	
전체 <i>M</i> (<i>SD</i>)		3.13(0.73)		3.15(0.69)		2.79(0.78)		2.99(0.73)		3.03(0.6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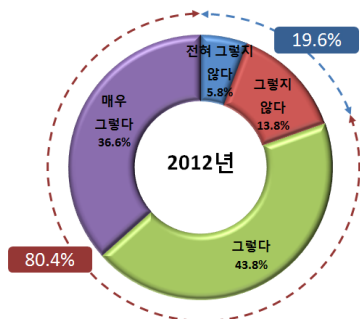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①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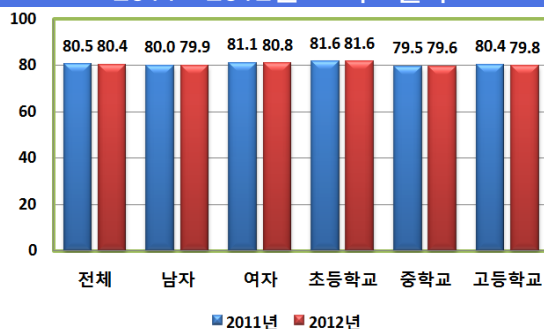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4%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9.6%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80.8%)이 남학생(79.9%)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이 81.6%로 중학생(79.6%) 및 고등학생(7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및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에서는 2011년도와 2012년도와 거의 비슷했다. 교급별로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해당 응답비율이 0.6%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표 II-11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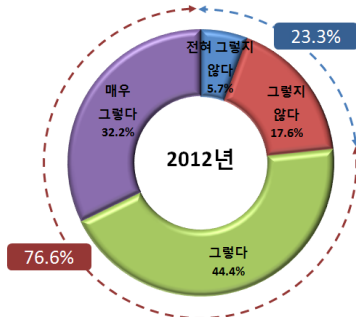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5.4	14.0	46.7	33.8	0.1	8,745	5.8	13.8	43.8	36.6	0.0
성별	남	4,874	6.3	13.6	45.4	34.6	0.1	4,494	7.3	12.7	42.7	37.2	0.1
	여	4,561	4.5	14.4	48.2	32.9	0.0	4,251	4.3	14.9	44.9	35.9	0.0
교급별	초	2,943	8.6	9.8	38.7	42.9	0.1	3,185	8.7	9.6	34.1	47.5	0.1
	중	2,844	5.2	15.2	47.0	32.5	0.0	2,986	4.8	15.6	47.5	32.1	0.0
	고	3,648	3.0	16.5	53.0	27.4	0.1	2,574	3.4	16.8	51.4	28.4	0.0

(2-1)-②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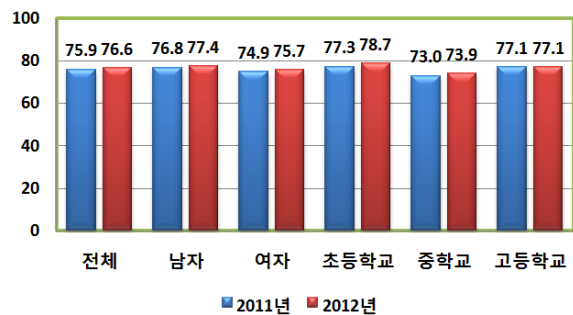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 2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3.3%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7.4%)이 여학생(75.7%)보다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7%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73.9%)이 초등학교(78.7%) 및 고등학교(77.1%)에 비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0.7%p 높아졌으며, 성별 및 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2011년과 2012년이 동일한 결과가 나온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2012년의 경우가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표 II-11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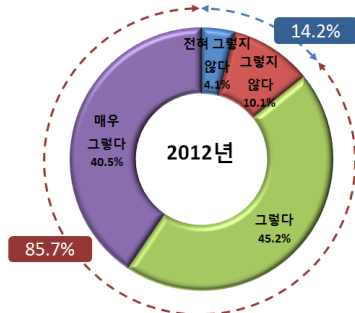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5.6	18.5	46.8	29.1	0.1	8,745	5.7	17.6	44.4	32.2	0.1
성별	남	4,874	6.2	16.9	45.3	31.5	0.1	4,494	7.0	15.5	43.2	34.2	0.1
	여	4,561	5.0	20.1	48.4	26.5	0.0	4,251	4.4	19.8	45.6	30.1	0.1
교급별	초	2,943	8.4	14.2	40.1	37.2	0.1	3,185	8.4	12.6	37.6	41.1	0.2
	중	2,844	5.7	21.3	47.5	25.5	0.0	2,986	5.1	21.1	46.8	27.1	0.1
	고	3,648	3.3	19.6	51.6	25.5	0.1	2,574	3.1	19.7	50.1	27.0	0.0

(2-1)-③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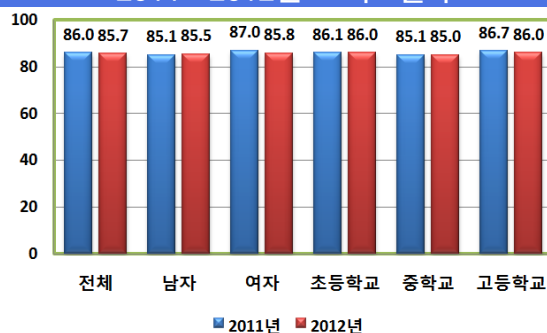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7%,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4.2%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와 관련하여 남학생(85.5%)과 여학생(85.8%)이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차이가 미미했으며, 교급별 응답결과의 경우 초등학교(86.0%)와 고등학교(86.0%)에 비해 중학생(85.0%)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에 대한 응답률은 2011년과 2012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성별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4%p 올라간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1.2%p 떨어졌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중학생의 연도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 0.7%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표 II-11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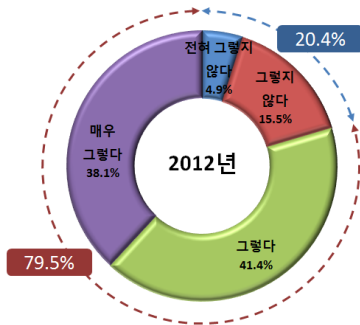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7	10.2	48.8	37.2	0.1	8,745	4.1	10.1	45.2	40.5	0.1
성별	남	4,874	4.1	10.7	47.5	37.6	0.1	4,494	5.3	9.1	43.8	41.7	0.1
	여	4,561	3.2	9.7	50.2	36.8	0.1	4,251	2.9	11.0	46.6	39.2	0.2
교급별	초	2,943	5.9	7.9	37.2	48.9	0.2	3,185	6.1	7.6	32.5	53.5	0.3
	중	2,844	3.6	11.3	50.7	34.4	0.1	2,986	3.5	11.5	50.1	34.9	0.1
	고	3,648	1.9	11.3	56.7	30.0	0.1	2,574	2.5	11.4	55.1	30.9	0.1

(2-1)-④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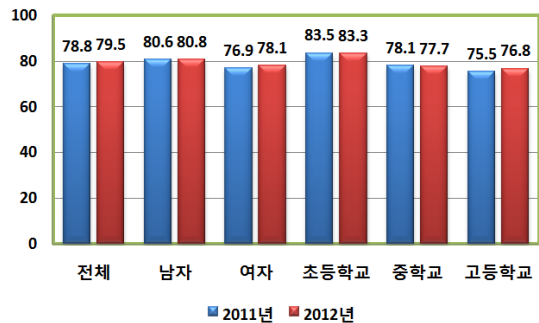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5%가 ‘그렇다’, 20.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0.8%)이 여학생(78.1%)에 비해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83.3%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11년도에 비해 0.7%p 더 높아졌고, 성별구분에서 남학생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의 차이가 미미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1.2%p 더 높아졌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2012년의 응답률이 미미하게 낮아졌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1.3%p 증가하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II-1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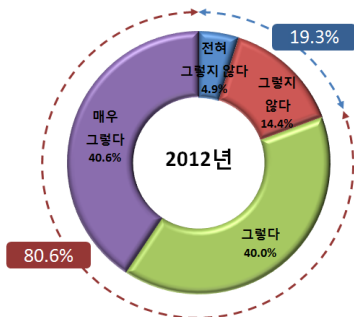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3	16.8	43.6	35.2	0.1	8,745	4.9	15.5	41.4	38.1	0.1
성 별	남	4,874	4.4	14.8	43.6	37.0	0.2	4,494	5.7	13.4	40.9	39.9	0.1
	여	4,561	4.1	19.0	43.7	33.2	0.1	4,251	4.1	17.7	41.9	36.2	0.1
교 급 수 준	초	2,943	5.2	11.1	37.3	46.2	0.2	3,185	6.1	10.5	33.9	49.4	0.2
	중	2,844	3.7	18.0	44.5	33.6	0.1	2,986	4.8	17.3	43.6	34.1	0.1
	고	3,648	3.9	20.6	48.1	27.4	0.1	2,574	3.6	19.6	47.9	28.9	0.0

(2-1)-⑤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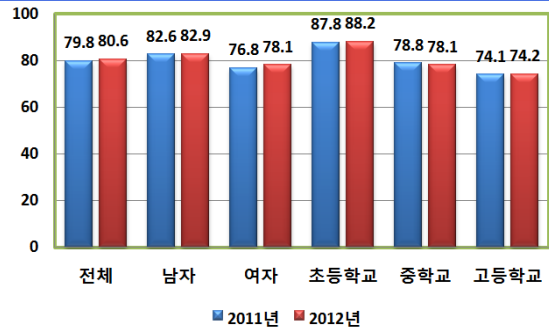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80.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2.9%)이 여학생(78.1%)에 비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은 낮아졌다.
-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심으로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8%p 높아졌으며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상기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0.4%p 높아진 반면 중학생의 경우 0.7%p 낮아졌다. 고등학생은 2011년과 2012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표 II-1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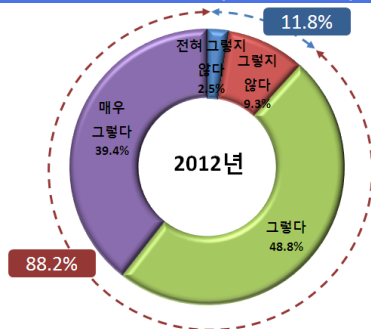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5	15.6	43.0	36.8	0.1	8,745	4.9	14.4	40.0	40.6	0.1
성별	남	4,874	4.2	13.1	42.7	39.9	0.1	4,494	5.3	11.6	39.4	43.5	0.1
	여	4,561	4.8	18.3	43.3	33.5	0.1	4,251	4.4	17.4	40.6	37.5	0.1
교급별	초	2,943	4.6	7.4	31.9	55.9	0.2	3,185	5.4	6.2	28.9	59.3	0.2
	중	2,844	4.7	16.5	44.9	33.9	0.0	2,986	5.0	16.9	44.4	33.7	0.1
	고	3,648	4.3	21.5	50.4	23.7	0.1	2,574	4.1	21.6	48.6	25.6	0.0

(2-2)-①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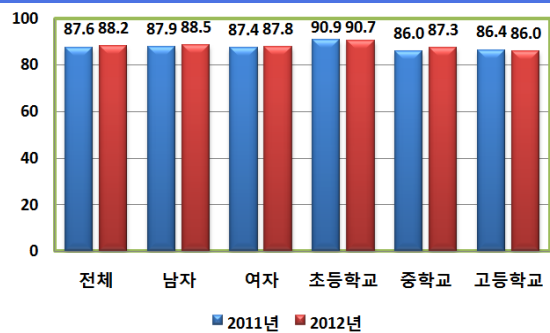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2%가 ‘그렇다’ , 11.8%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8.5%)이 여학생(87.8%)보다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생이 90.7%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생(87.3%), 고등학생(86.0%)으로 갈수록 긍정응답 비율은 더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긍정응답이 0.6%p 더 높아졌다. 이는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 각각 0.6%p 및 0.4%p씩 더 높은 비율로 자신이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생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중학생은 긍정응답비율이 2011년에 비해 1.3%p 증가한 반면 고등학생은 0.4%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표 II-11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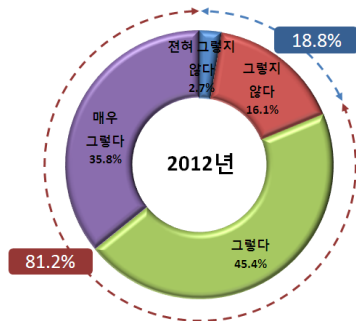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1	10.2	51.1	36.5	0.0	8,745	2.5	9.3	48.8	39.4	0.0
성별	남	4,874	2.5	9.6	49.9	38.0	0.1	4,494	2.8	8.6	47.7	40.8	0.0
	여	4,561	1.7	10.9	52.3	35.1	0.0	4,251	2.1	10.1	49.9	37.9	0.0
교급별	초	2,943	2.4	6.6	38.1	52.8	0.1	3,185	2.9	6.3	36.8	53.9	0.0
	중	2,844	2.1	11.8	53.2	32.8	0.0	2,986	2.5	10.2	53.0	34.3	0.0
	고	3,648	1.8	11.9	59.9	26.5	0.0	2,574	1.9	12.0	58.6	27.4	0.0

(2-2)-②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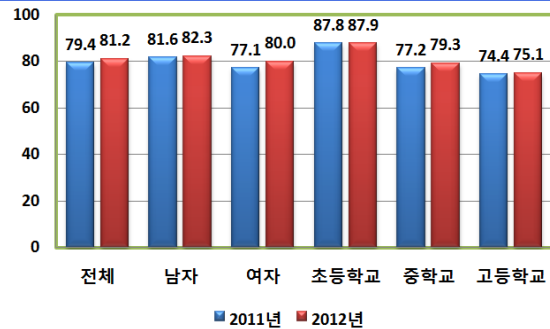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2%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81.2%가 ‘그렇다’ 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로 여학생(80.0%)에 비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응답자의 긍정응답 비율은 2011년에 비해 1.8%p 더 높아졌고, 남녀의 응답률도 각각 0.7%p와 2.9%p씩 높아졌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중학생은 2012년의 경우 2.1%p 높아졌고 고등학생은 0.7%p 더 높은 비율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표 II-11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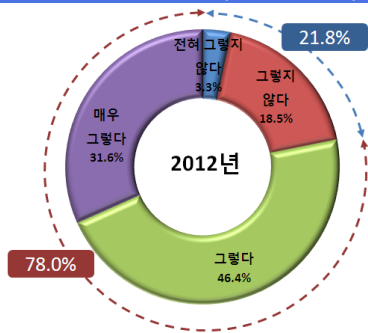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6	17.9	48.0	31.4	0.1	8,745	2.7	16.1	45.4	35.8	0.1
성 별	남	4,874	2.5	15.8	48.5	33.1	0.1	4,494	2.9	14.6	45.1	37.2	0.1
	여	4,561	2.7	20.2	47.5	29.6	0.1	4,251	2.4	17.5	45.8	34.2	0.0
교 급 별	초	2,943	2.4	9.8	39.4	48.4	0.1	3,185	2.9	9.1	37.3	50.6	0.1
	중	2,844	3.0	19.7	50.0	27.2	0.1	2,986	2.6	18.1	49.3	30.0	0.0
	고	3,648	2.4	23.1	53.4	21.0	0.1	2,574	2.5	22.3	51.0	24.1	0.0

(2-2)-③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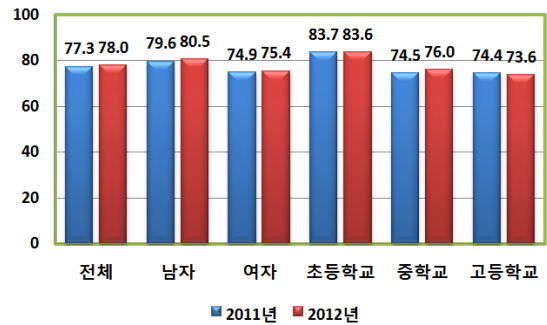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8.0%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21.8%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0.5%)이 여학생(75.4%)에 비해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3.6%)에서 중(76.0%)·고등학교(73.6%)으로 갈수록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 2012년도 결과를 2011년도와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와 관련해서 긍정응답 비율이 0.7%p 증가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11년에 비해 자신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중학생은 긍정응답률이 1.5%p 높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0.8%p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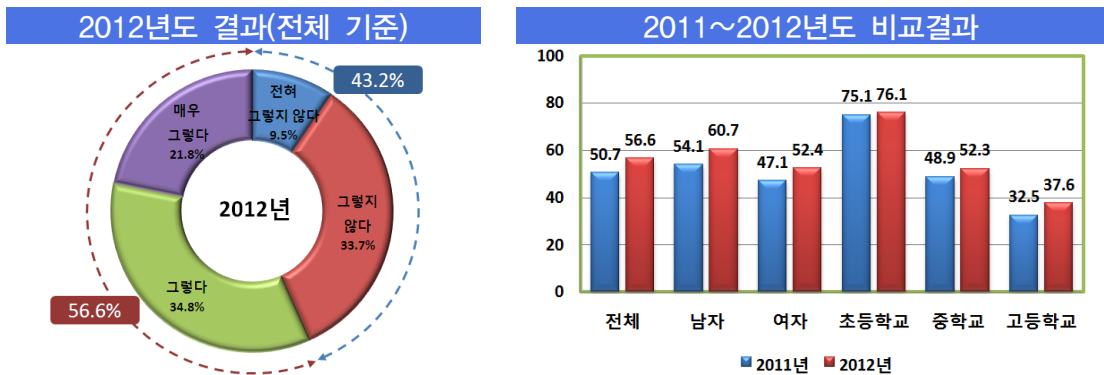
표 II-11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0	19.6	49.8	27.5	0.1	8,745	3.3	18.5	46.4	31.6	0.1
성별	남	4,874	2.9	17.5	49.8	29.8	0.1	4,494	3.6	15.8	46.7	33.8	0.1
	여	4,561	3.1	21.9	49.8	25.1	0.1	4,251	3.0	21.5	46.1	29.3	0.1
교급별	초	2,943	3.0	13.3	42.2	41.5	0.1	3,185	3.9	12.4	39.3	44.3	0.1
	중	2,844	3.5	21.9	50.1	24.4	0.0	2,986	3.7	20.3	49.4	26.6	0.1
	고	3,648	2.6	22.9	55.7	18.7	0.1	2,574	2.3	24.0	51.8	21.8	0.0

(2-3)-① 정서조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은 56.6%, ‘그렇지 않다’는 43.2%로 나타남**

-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56.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43.2%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60.7%)이 여학생(52.4%)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76.1%)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52.3%), 고등학생(37.6%)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56.6%)이 2011년(50.7%)에 비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표 II-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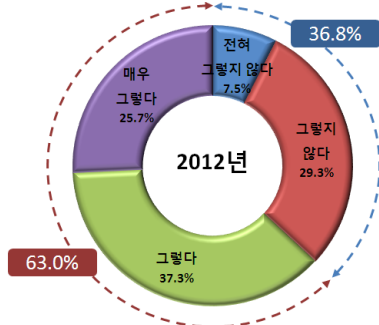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0.7	38.4	33.0	17.7	0.1	8,745	9.5	33.7	34.8	21.8	0.1
성 별	남	4,874	9.6	36.1	34.5	19.6	0.2	4,494	8.6	30.5	36.5	24.2	0.1
	여	4,561	11.9	40.9	31.5	15.6	0.1	4,251	10.5	37.1	33.1	19.3	0.1
교 급 별	초	2,943	5.2	19.5	40.0	35.1	0.2	3,185	5.1	18.6	39.0	37.1	0.2
	중	2,844	10.6	40.5	35.8	13.1	0.1	2,986	10.1	37.4	36.0	16.3	0.1
	고	3,648	15.3	52.1	25.3	7.2	0.1	2,574	14.2	48.1	28.3	9.3	0.0

(2-3)-② 정서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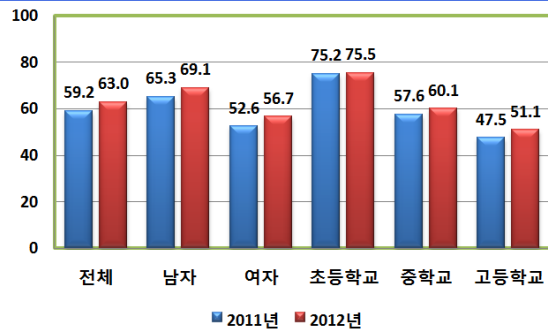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63.0%, ‘그렇지 않다’는 36.8%가 응답**

-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0%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36.8%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69.1%)이 여학생(56.7%)보다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75.5%)에서 고등학생(51.1%)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더 낮아졌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하면, 2011년(59.2%)에 비해 2012년(63.0%)에 슬프거나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8%p 더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결과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I】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표 II-12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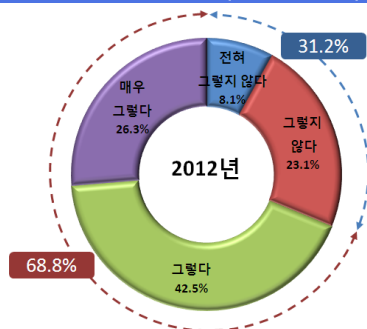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8.5	32.2	37.6	21.6	0.1	8,745	7.5	29.3	37.3	25.7	0.1
성별	남	4,874	7.0	27.5	40.3	25.0	0.1	4,494	6.3	24.5	39.3	29.8	0.2
	여	4,561	10.0	37.3	34.8	17.8	0.1	4,251	8.9	34.3	35.3	21.4	0.1
교급	초	2,943	6.7	17.9	37.3	37.9	0.2	3,185	6.4	18.0	34.5	41.0	0.2
	중	2,844	8.2	34.1	40.2	17.4	0.1	2,986	8.2	31.7	40.0	20.1	0.1
	고	3,648	10.0	42.3	35.9	11.6	0.1	2,574	8.2	40.6	37.9	13.2	0.1

(2-3)-③ 정서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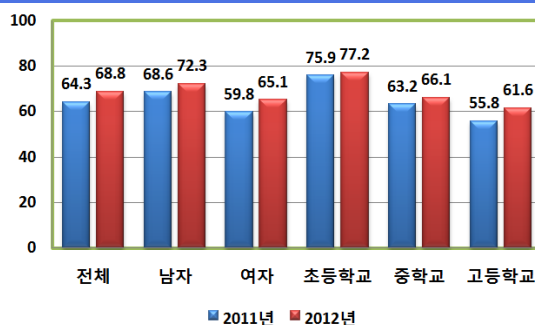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는 68.8%, ‘그렇지 않다’는 31.2%로 나타남**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31.2%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2.3%)이 여학생(65.1%)보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77.2%)에서 고등학교(61.6%)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68.8%)이 2011년(64.3%)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p 더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표 II-12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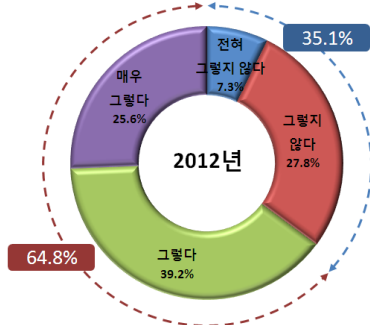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8.2	27.4	42.0	22.3	0.1	8,745	8.1	23.1	42.5	26.3	0.1
성별	남	4,874	7.6	23.8	42.9	25.7	0.1	4,494	7.3	20.3	42.5	29.8	0.1
	여	4,561	8.9	31.2	41.0	18.8	0.0	4,251	8.9	25.9	42.4	22.7	0.0
교급별	초	2,943	5.9	18.0	40.2	35.7	0.1	3,185	6.8	16.0	38.1	39.1	0.1
	중	2,844	7.7	29.1	43.1	20.1	0.0	2,986	8.2	25.7	44.8	21.3	0.0
	고	3,648	10.5	33.6	42.5	13.3	0.1	2,574	9.6	28.7	45.2	16.4	0.0

(2-4)-①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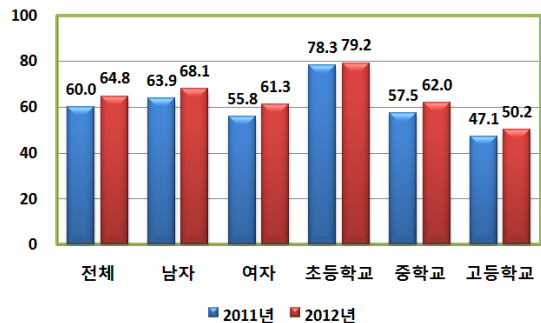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64.8%, ‘그렇지 않다’는 35.1%로 나타남**

- ‘어떤 일에 실패 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64.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35.1%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에 따라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68.1%)이 여학생(61.3%)보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79.2%)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62.0%), 고등학생(50.2%)으로 갈수록 실패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64.8%)이 2011년(60.0%)에 비해 실패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p 더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표 II-12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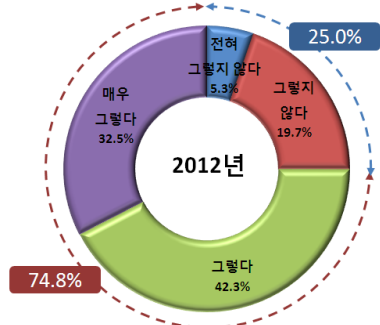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7.9	32.0	39.9	20.1	0.1	8,745	7.3	27.8	39.2	25.6	0.1
성별	남	4,874	7.2	28.9	41.1	22.8	0.1	4,494	6.9	24.9	39.2	28.9	0.1
	여	4,561	8.6	35.5	38.6	17.2	0.1	4,251	7.8	30.8	39.2	22.1	0.1
교급	초	2,943	5.5	16.1	41.3	37.0	0.1	3,185	5.8	14.8	36.9	42.3	0.2
	중	2,844	7.6	34.8	40.9	16.6	0.1	2,986	7.3	30.7	42.8	19.2	0.1
	고	3,648	10.0	42.8	37.9	9.2	0.1	2,574	9.2	40.4	37.8	12.4	0.1

(2-4)-②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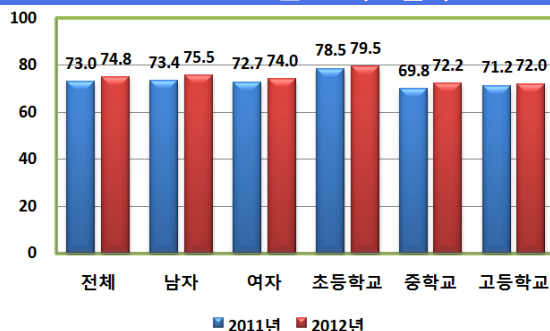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74.8%, ‘그렇지 않다’는 25.0%가 응답**

-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5.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의 경우 남학생(75.5%)이 여학생(74.0%)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79.2%)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72.2%)과 고등학생(72.0%)은 그 차이가 미미했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74.8%)이 2011년(73.0%)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8%p 더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12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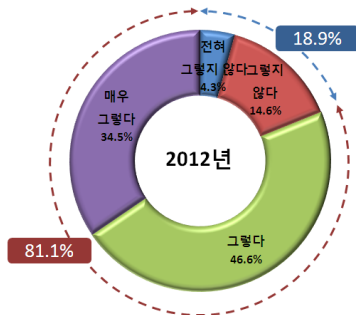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5.6	21.3	44.2	28.8	0.1	8,745	5.3	19.7	42.3	32.5	0.1
성 별	남	4,874	6.0	20.6	43.4	30.0	0.1	4,494	5.8	18.6	41.8	33.7	0.1
	여	4,561	5.3	21.9	45.1	27.6	0.1	4,251	4.8	21.0	42.8	31.2	0.1
교 급 별	초	2,943	6.3	15.1	36.3	42.2	0.2	3,185	5.7	14.7	33.6	45.9	0.2
	중	2,844	6.1	24.1	46.0	23.8	0.0	2,986	5.6	22.1	46.1	26.1	0.1
	고	3,648	4.8	24.0	49.2	22.0	0.1	2,574	4.6	23.3	48.6	23.4	0.0

(2-4)-③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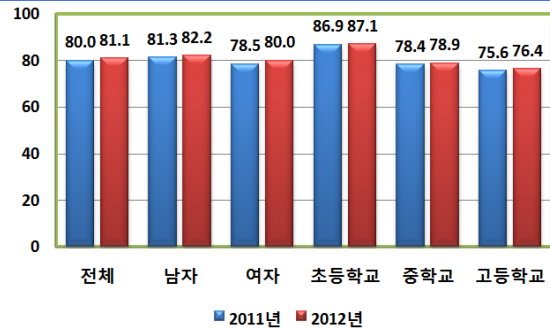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81.1%, ‘그렇지 않다’는 18.9%로 나타남**

-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1%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18.9%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먼저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2.2%)이 여학생(80.0%)보다 실패하더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긍정응답률이 87.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8.9%), 고등학생(76.4%)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1.1%)이 2011년(80.0%)에 비해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p 더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성별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미미한 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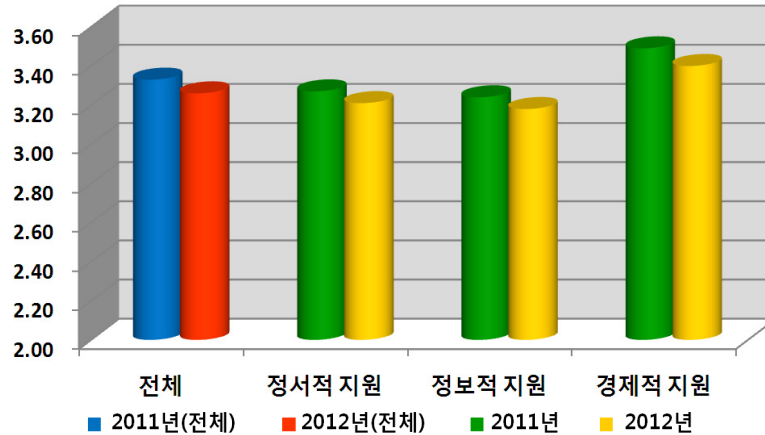
표 II-12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0	16.0	49.8	30.2	0.0	8,745	4.3	14.6	46.6	34.5	0.0
성별	남	4,874	3.9	14.7	49.3	32.0	0.0	4,494	4.4	13.4	45.2	37.0	0.0
	여	4,561	4.0	17.4	50.2	28.3	0.0	4,251	4.1	15.9	48.1	31.9	0.0
교급별	초	2,943	3.8	9.2	37.0	49.9	0.1	3,185	4.2	8.7	35.0	52.1	0.0
	중	2,844	3.9	17.6	53.0	25.4	0.0	2,986	4.6	16.4	51.7	27.2	0.0
	고	3,648	4.1	20.2	57.5	18.1	0.0	2,574	3.9	19.7	55.1	21.3	0.0

2. 가족영역

1) 부모의 지원 - 항목별 평균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경제적 지원($M=3.40$)'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M=3.21$)', '정보적 지원($M=3.18$)'의 순으로 나타난다.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모두 2011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았음. 즉,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원은 2012년에 감소하였음.



【그림 II-116】 2011~2012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평균

표 II-126 2011~2012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정서적 지원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3.23	3.17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22	3.17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40	3.32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3.17	3.12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3.34	3.28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3.26	3.20
소계			3.27	3.21
정보적 지원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3.26	3.19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3.28	3.22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3.12	3.09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3.31	3.24
소계			3.24	3.18
경제적 지원	11	용돈을 주신다	3.37	3.27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58	3.48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3.62	3.51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41	3.33
소계			3.49	3.40
부모의 지원 영역(전체)			3.33	3.2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원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27>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지원의 세부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교급별($F=106.469$, $p<.001$), 거주지별($F=7.415$, $p<.01$) 및 가족구성별($t=7.621$, $p<.001$)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광역시가 서울이나 시군지역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 각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별($t=2.583$, $p<.05$), 교급별($F=420.503$, $p<.001$) 및 가족구성별($t=9.634$,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3.24 (0.75)	3.942***	3.21 (0.77)	3.136**	3.39 (0.62)	-1.610	3.27 (0.64)	2.583*
	여자 (n=4,251)	3.18 (0.75)		3.16 (0.76)		3.41 (0.57)		3.24 (0.62)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3.49 (0.68)	389.154*** (ab,ac,bc)	3.49 (0.68)	494.165*** (ab,ac,bc)	3.52 (0.57)	106.469*** (ab,ac,bc)	3.50 (0.58)	420.503*** (ab,ac,bc)
	중학교 (n=2,986)	3.11 (0.74)		3.13 (0.75)		3.36 (0.60)		3.19 (0.62)	
	고등학교 (n=2,574)	2.98 (0.73)		2.88 (0.75)		3.29 (0.60)		3.04 (0.61)	
거주지	서울 (n=1,300)	3.20 (0.77)	1.205	3.23 (0.77)	2.742	3.37 (0.62)	7.415** (de,ef)	3.26 (0.65)	1.549
	광역시 (n=2,185)	3.23 (0.74)		3.19 (0.76)		3.44 (0.58)		3.28 (0.62)	
	시군 (n=5,260)	3.20 (0.75)		3.17 (0.76)		3.39 (0.60)		3.25 (0.6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3.23 (0.74)	7.848***	3.21 (0.76)	9.601***	3.41 (0.59)	7.621***	3.28 (0.62)	9.634***
	한부모가정 (n=709)	3.00 (0.78)		2.92 (0.81)		3.22 (0.66)		3.04 (0.67)	
전체 <i>M</i> (<i>SD</i>)		3.21(0.75)		3.18(0.77)		3.40(0.60)		3.26(0.63)	

* $p<.05$, ** $p<.01$, *** $p<.001$

*주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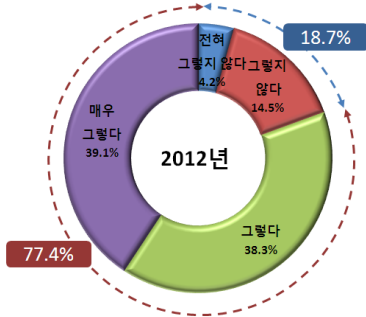
*주2: 가족구성의 조손가정은 무응답으로 처리

1)-①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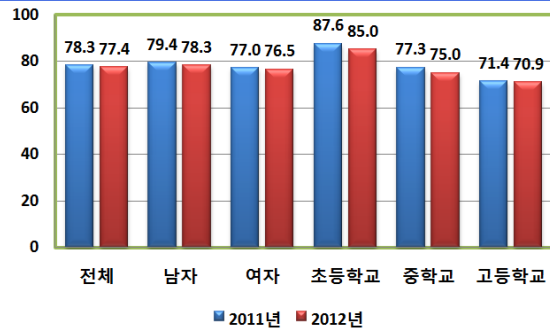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7.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77.4%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8.7%만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긍정응답률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8.3%)이 여학생(76.5%)보다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5.0%)에서 중학생(75.0%), 고등학생(70.9%)으로 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77.4%)이 2011년(78.3%)에 비해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0.9%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7】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표 II-12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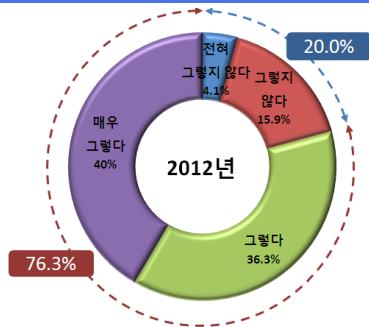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2	15.7	42.3	36.0	1.9	8,745	4.2	14.5	38.3	39.1	3.8
성별	남	4,874	4.5	14.2	41.9	37.5	1.9	4,494	4.7	12.8	37.7	40.6	4.1
	여	4,561	3.9	17.2	42.7	34.3	1.9	4,251	3.7	16.3	39.0	37.5	3.5
교급별	초	2,943	3.0	7.3	31.3	56.3	2.1	3,185	2.8	7.3	27.6	57.4	4.8
	중	2,844	4.1	16.9	45.0	32.3	1.7	2,986	4.7	16.6	42.6	32.4	3.7
	고	3,648	5.3	21.4	49.0	22.4	1.9	2,574	5.4	20.9	46.6	24.3	2.7

1)-②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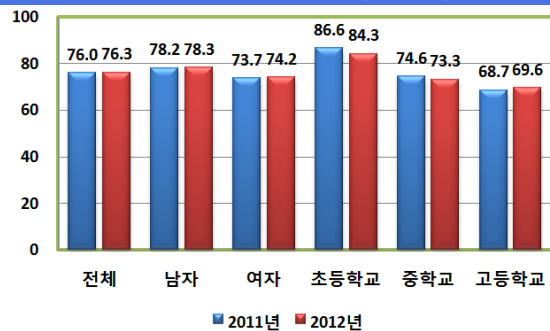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6.3%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76.3%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20.0%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8.3%)이 여학생(74.2%)보다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4.3%)에서 고등학생(69.6%)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긍정응답률을 비교해보면, 2012년(76.3%)과 2011년(76.0%)은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여학생은 0.5%p 더 높아졌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긍정응답률은 2011년에 비해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0.9%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8】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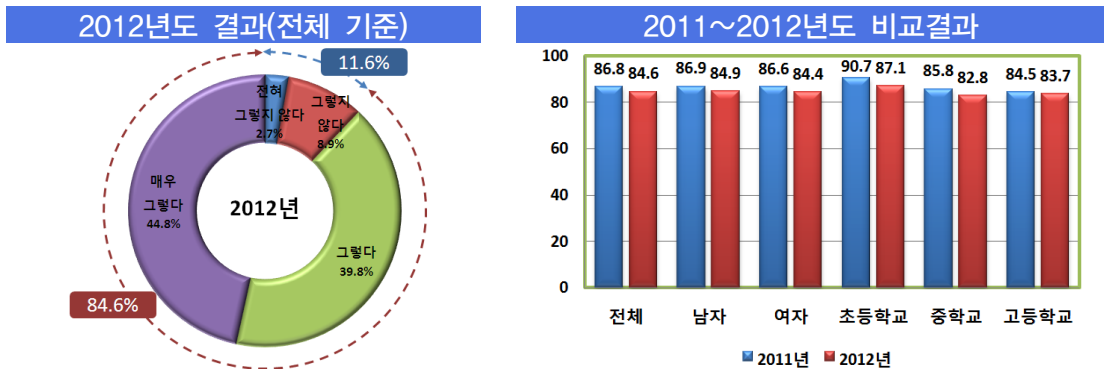
표 II-12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3	17.7	39.5	36.5	2.0	8,745	4.1	15.9	36.3	40.0	3.8
성별	남	4,874	3.9	16.0	39.5	38.7	2.0	4,494	4.2	13.5	36.0	42.3	4.1
	여	4,561	4.7	19.6	39.5	34.2	2.0	4,251	3.9	18.4	36.7	37.5	3.5
교급별	초	2,943	2.4	8.9	29.2	57.4	2.1	3,185	2.6	8.2	26.1	58.2	4.9
	중	2,844	4.3	19.4	41.5	33.1	1.8	2,986	4.6	18.5	40.1	33.2	3.6
	고	3,648	5.8	23.6	46.3	22.4	1.9	2,574	5.3	22.3	44.5	25.1	2.7

1)-③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84.6%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4.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4.9%)이 여학생(84.4%)보다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7.1%)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83.7%), 중학생(8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4.6%)이 2011년(86.8%)에 비해 부모님이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2.2%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9】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표 II-13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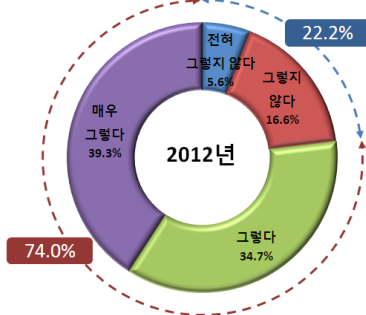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7	8.6	44.4	42.4	1.9	8,745	2.7	8.9	39.8	44.8	3.8
성별	남	4,874	2.7	8.4	43.9	43.0	1.9	4,494	3.0	8.1	38.9	46.0	4.1
	여	4,561	2.6	8.8	44.8	41.8	1.9	4,251	2.4	9.7	40.9	43.5	3.5
교급별	초	2,943	2.0	5.3	30.2	60.5	2.1	3,185	2.2	5.9	25.1	62.0	4.9
	중	2,844	2.7	9.7	46.7	39.1	1.8	2,986	2.8	10.6	44.9	37.9	3.7
	고	3,648	3.2	10.5	54.0	30.5	1.9	2,574	3.1	10.5	52.2	31.5	2.7

1)-④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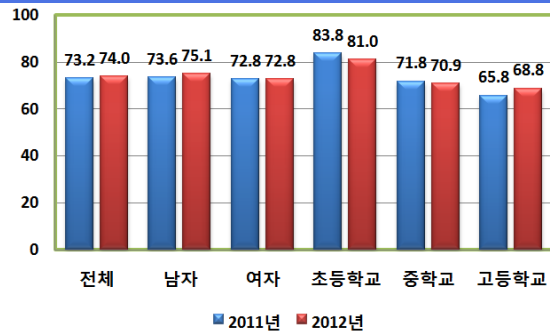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4.0%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5.1%)이 여학생(72.8%)보다 부모님께서 고민을 들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긍정응답률이 81.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0.9%), 고등학생(68.8%)의 순이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74.0%)이 2011년(73.2%)에 비해 부모님께서 내 고민을 들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0.8%p 더 높아졌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012년에 긍정응답률이 더 높아졌고, 여학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8%p와 0.9%p씩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2012년에 3.0%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0】 고민을 들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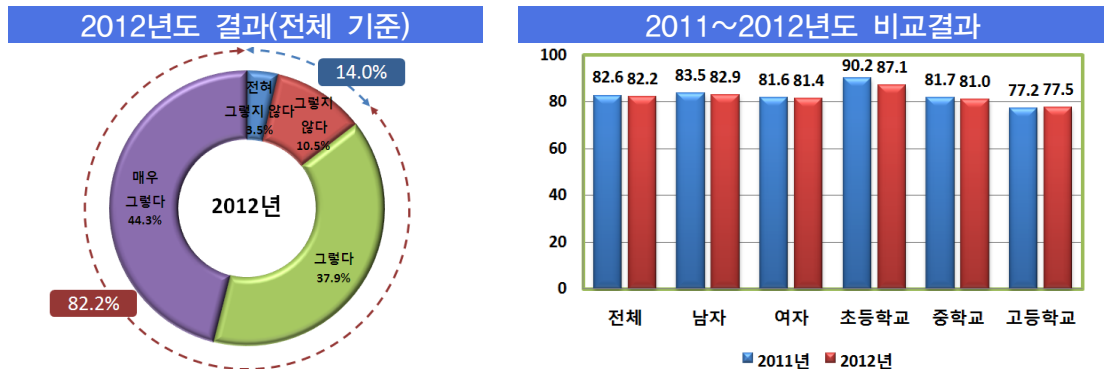
표 II-131 고민을 들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6.0	18.9	36.9	36.3	1.9	8,745	5.6	16.6	34.7	39.3	3.8
성별	남	4,874	5.9	18.5	36.6	37.0	2.0	4,494	5.9	15.0	34.3	40.8	4.1
	여	4,561	6.1	19.3	37.2	35.6	1.9	4,251	5.3	18.4	35.1	37.7	3.5
교급별	초	2,943	3.9	10.2	28.3	55.5	2.1	3,185	3.5	10.6	24.1	56.9	4.9
	중	2,844	6.5	20.0	39.2	32.6	1.8	2,986	6.2	19.4	37.9	33.0	3.6
	고	3,648	7.3	24.9	42.0	23.8	1.9	2,574	7.5	20.9	44.0	24.8	2.7

1)-⑤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82.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2.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14.0%이었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2.9%)이 여학생(81.4%)보다 부모님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87.1%)에서 고등학생(77.5%)으로 갈수록 긍정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2012년(82.2%)이 2011년(82.6%)에 비해 더 낮아졌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0.6%p 더 낮았고 여학생은 연도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 비교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응답률이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그 차이가 미미했다.



【그림 II-121】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표 II-13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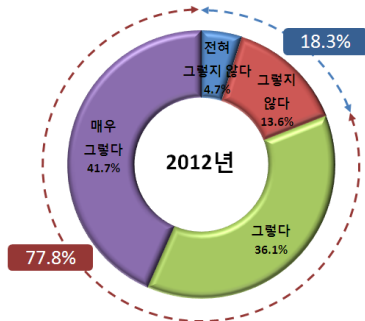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7	11.7	40.8	41.8	2.0	8,745	3.5	10.5	37.9	44.3	3.8
성별	남	4,874	3.8	10.8	40.6	42.9	2.0	4,494	3.6	9.4	36.7	46.2	4.1
	여	4,561	3.8	12.6	41.0	40.6	2.0	4,251	3.5	11.6	39.2	42.2	3.5
교급별	초	2,943	2.1	5.6	27.7	62.5	2.1	3,185	2.2	5.8	24.1	63.0	4.9
	중	2,844	4.1	12.4	43.6	38.1	1.9	2,986	3.5	11.8	42.8	38.2	3.7
	고	3,648	4.9	16.0	49.3	27.9	1.9	2,574	5.1	14.7	49.4	28.1	2.7

1)-⑥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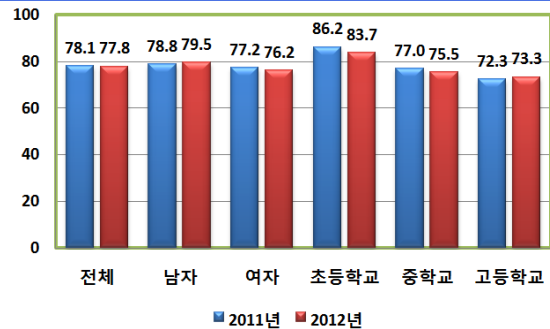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7.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8.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9.5%)이 여학생(76.2%)보다 긍정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83.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5.5%), 고등학생(73.3%)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 긍정응답률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2012년(77.8%) 및 2011년(78.1%)의 응답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012년의 결과가 0.7%p 더 높아진 반면, 여학생은 1.0%p 더 낮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조금 더 낮아진데 비해 고등학생은 1.0%p 더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2】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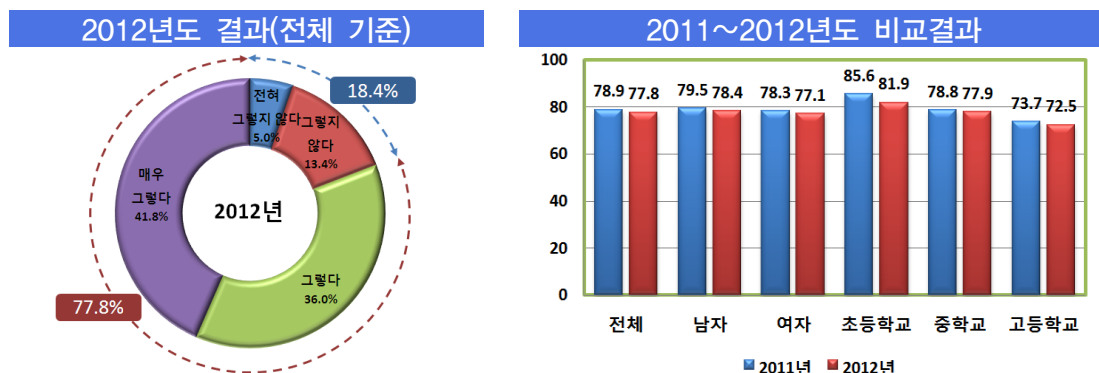
표 II-13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8	15.1	39.6	38.5	2.0	8,745	4.7	13.6	36.1	41.7	3.9
성별	남	4,874	4.6	14.5	38.9	39.9	2.0	4,494	4.6	11.8	35.7	43.8	4.1
	여	4,561	5.0	15.9	40.3	36.9	1.9	4,251	4.7	15.5	36.6	39.6	3.7
교급별	초	2,943	3.2	8.5	27.9	58.3	2.1	3,185	3.0	8.3	24.6	59.1	5.0
	중	2,844	5.2	15.9	42.2	34.8	1.8	2,986	5.1	15.7	39.4	36.1	3.7
	고	3,648	5.7	20.0	47.0	25.3	2.0	2,574	6.3	17.7	46.5	26.8	2.7

1)-⑦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7.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77.8%, ‘그렇지 않다’는 18.4%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8.4%)이 여학생(77.1%)보다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1.9%)에서 중학생(77.9%), 고등학생(72.5%)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은 점점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77.8%)이 2011년(78.9%)과 비교해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 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1.1%p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그림 II-12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표 II-13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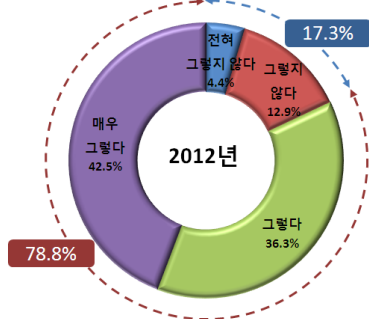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5.1	13.9	40.2	38.7	1.9	8,745	5.0	13.4	36.0	41.8	3.8
성별	남	4,874	5.3	13.3	39.5	40.0	1.9	4,494	5.2	12.3	35.0	43.4	4.1
	여	4,561	5.2	14.6	40.9	37.4	1.9	4,251	4.8	14.6	37.1	40.0	3.6
교 급 별	초	2,943	4.2	8.2	30.8	54.8	2.1	3,185	4.4	8.9	25.5	56.4	4.9
	중	2,844	4.6	14.9	41.1	37.7	1.8	2,986	4.4	14.0	39.2	38.7	3.6
	고	3,648	6.6	17.9	47.1	26.6	1.9	2,574	6.4	18.4	45.2	27.3	2.7

1)-⑧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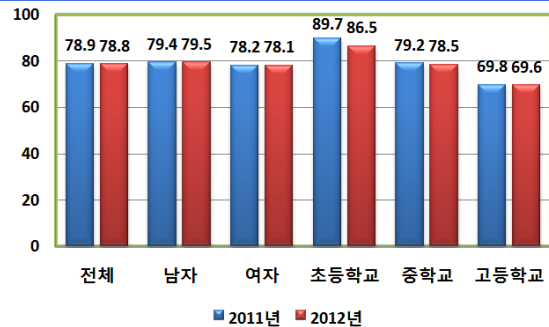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8.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9.5%)이 여학생(78.1%)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에서는 초등학교(86.5%)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78.5%), 고등학생(69.6%)으로 갈수록 부모님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긍정응답률을 비교해보면, 2012년(78.8%)과 2011년(78.9%)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긍정응답률이 조금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2011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4】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표 II-13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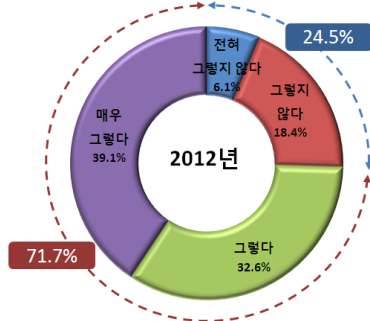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6	14.6	38.6	40.3	2.0	8,745	4.4	12.9	36.3	42.5	3.9
성별	남	4,874	4.7	14.0	37.7	41.7	1.9	4,494	4.7	11.7	35.1	44.4	4.1
	여	4,561	4.5	15.3	39.4	38.8	2.0	4,251	4.1	14.2	37.5	40.6	3.6
교급별	초	2,943	2.6	5.6	28.0	61.7	2.1	3,185	2.4	6.1	24.5	62.0	5.0
	중	2,844	4.2	14.9	41.6	37.6	1.8	2,986	4.4	13.4	40.8	37.7	3.7
	고	3,648	6.5	21.7	44.6	25.2	2.0	2,574	6.8	20.8	45.6	24.0	2.8

1)-⑨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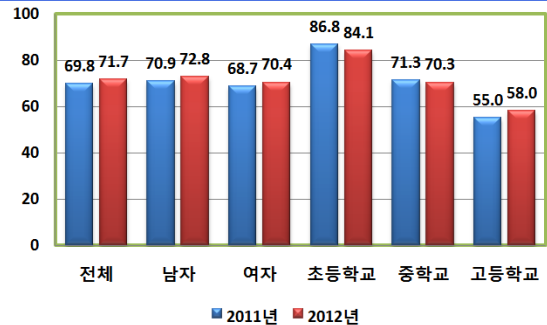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1.1%가 ‘그렇다’라고 응답**

-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1.7%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24.5%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2.8%)이 여학생(70.4%)보다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4.1%)에서 고등학생(58.0%)으로 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의 긍정응답률과 비교해보면, 2012년(71.7%)이 2011년(69.8%)에 비해 1.9%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긍정응답률이 각각 2.7%p, 1.0%p씩 더 낮아졌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0%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5】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표 II-13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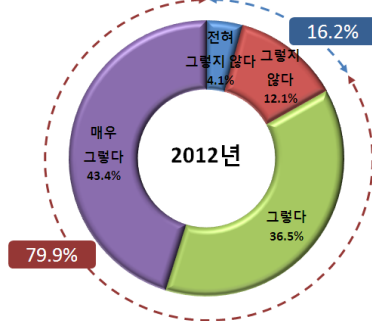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6.9	21.3	34.6	35.2	1.9	8,745	6.1	18.4	32.6	39.1	3.8
성별	남	4,874	7.2	20.0	33.8	37.1	1.9	4,494	6.4	16.6	31.7	41.1	4.1
	여	4,561	6.7	22.6	35.5	33.2	1.9	4,251	5.8	20.2	33.5	36.9	3.6
교급별	초	2,943	3.2	7.8	28.3	58.5	2.1	3,185	2.8	8.3	24.4	59.7	4.9
	중	2,844	6.2	20.7	38.6	32.7	1.8	2,986	6.5	19.6	36.7	33.6	3.6
	고	3,648	10.6	32.6	36.7	18.3	1.9	2,574	9.9	29.4	38.0	20.0	2.8

1)-⑩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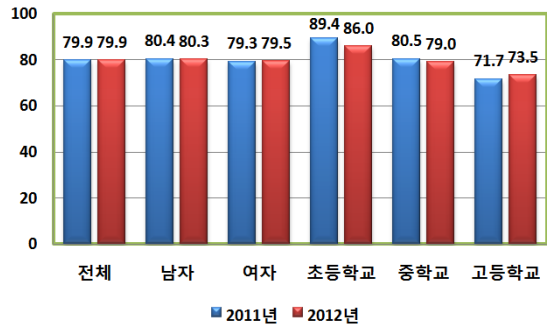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79.9%가 ‘그렇다’, 16.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16.2%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0.3%)이 여학생(79.5%)보다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86.0%)에서 중(79.0%)·고등학생(73.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 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긍정응답을 비교해보면, 2012년(79.9%)과 2011년(79.9%) 응답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비교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미미하였다. 교급별 비교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2011년과 비교해 긍정응답률이 더 낮아진데 비해 고등학생은 1.8%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6】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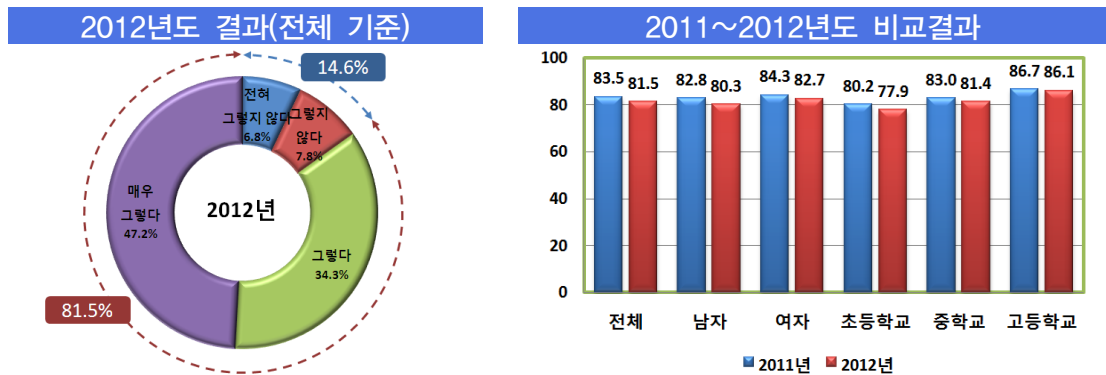
표 II-13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7	13.4	38.5	41.4	2.0	8,745	4.1	12.1	36.5	43.4	3.9
성별	남	4,874	4.9	12.8	38.4	42.0	2.0	4,494	4.3	11.2	35.6	44.7	4.2
	여	4,561	4.4	14.3	38.5	40.8	2.0	4,251	3.8	13.1	37.5	42.0	3.6
교급별	초	2,943	2.5	5.9	28.3	61.1	2.1	3,185	2.4	6.6	25.1	60.9	5.0
	중	2,844	4.4	13.2	41.6	38.9	1.9	2,986	4.1	13.2	40.0	39.0	3.7
	고	3,648	6.6	19.8	44.2	27.5	2.0	2,574	6.1	17.6	46.7	26.8	2.8

1)-⑪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81.5%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의 경우에는 14.6%이었다.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82.7%)이 남학생(80.3%)보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77.9%)에서 중학생(81.4%), 고등학생(86.1%)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높았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1.5%)이 2011년(83.5%)에 비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p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7】 용돈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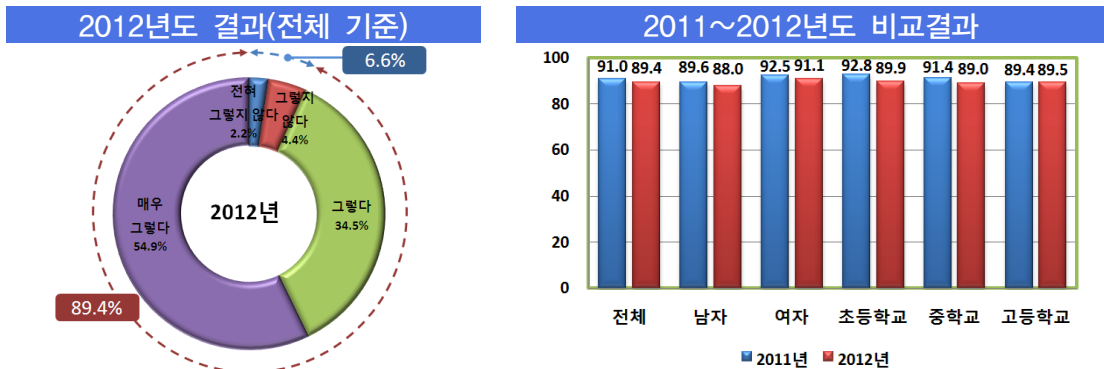
표 II-138 용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6.4	8.1	36.9	46.6	1.9	8,745	6.8	7.8	34.3	47.2	3.9
성별	남	4,874	7.4	7.7	36.6	46.2	2.0	4,494	8.1	7.5	33.0	47.3	4.1
	여	4,561	5.4	8.5	37.2	47.1	1.9	4,251	5.6	8.1	35.6	47.1	3.6
교급별	초	2,943	8.8	8.9	28.2	52.0	2.1	3,185	8.9	8.1	25.5	52.4	5.1
	중	2,844	6.6	8.6	36.3	46.7	1.8	2,986	6.9	8.1	34.9	46.5	3.6
	고	3,648	4.4	7.0	44.4	42.3	1.9	2,574	4.2	7.0	44.6	41.5	2.7

1)-⑫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89.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4%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6.6%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91.1%)이 남학생(88.0%)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89.9%)이었고 고등학교(89.5%), 중학생(89.0%)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 2012년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9.4%)이 2011년(91.0%)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1.6%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긍정응답률이 조금 낮아진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2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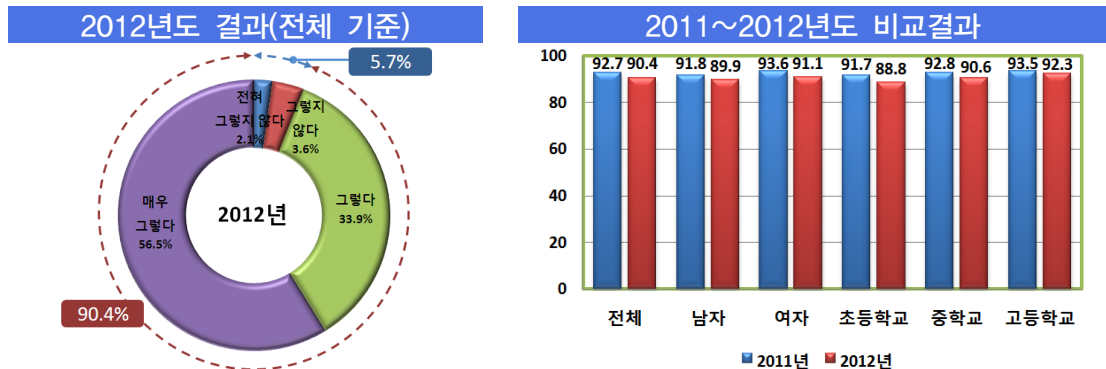
표 II-13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0	5.0	36.5	54.5	2.0	8,745	2.2	4.4	34.5	54.9	3.9
성별	남	4,874	2.4	5.9	36.6	53.0	2.1	4,494	2.9	4.9	33.8	54.2	4.2
	여	4,561	1.4	4.1	36.3	56.2	1.9	4,251	1.4	4.0	35.4	55.7	3.6
교급별	초	2,943	1.7	3.2	28.1	64.7	2.4	3,185	1.6	3.5	24.6	65.3	5.0
	중	2,844	1.8	5.1	37.9	53.5	1.8	2,986	2.4	4.7	37.0	52.0	3.8
	고	3,648	2.2	6.5	42.2	47.2	1.9	2,574	2.5	5.3	44.0	45.5	2.7

1)-⑬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0.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90.4%가 ‘그렇다’ , 5.7%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91.1%)과 남학생(89.9%)이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88.8%)에서 중학생(90.6%), 고등학생(92.3%)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90.4%)이 2011년(92.7%)에 비해 부모님께서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2.3%p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9】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표 II-14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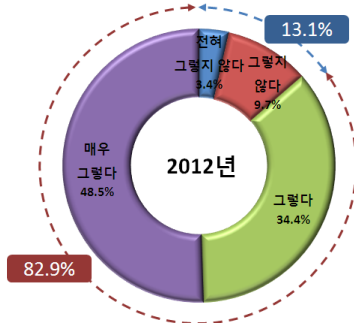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9	3.4	35.6	57.1	2.0	8,745	2.1	3.6	33.9	56.5	3.9
성별	남	4,874	2.5	3.7	35.7	56.1	2.0	4,494	2.7	3.4	33.8	56.1	4.1
	여	4,561	1.4	3.0	35.5	58.1	2.0	4,251	1.4	3.8	34.1	57.0	3.7
교급별	초	2,943	2.5	3.5	25.2	66.5	2.2	3,185	2.4	3.6	22.4	66.4	5.1
	중	2,844	1.7	3.8	36.5	56.3	1.8	2,986	2.0	3.8	36.7	53.9	3.7
	고	3,648	1.7	2.9	43.4	50.1	1.9	2,574	1.7	3.2	44.9	47.4	2.7

1)-⑭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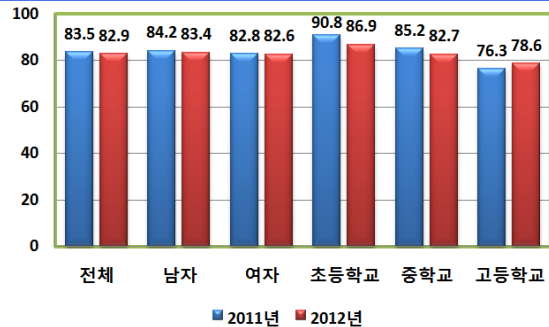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9%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2.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13.1%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긍정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3.4%)이 여학생(82.6%)보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6.9%)에서 중(82.7%)·고등학생(78.6%)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2.9%)이 2011년(83.5%)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0.6%p 더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비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응답률이 2.3%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0】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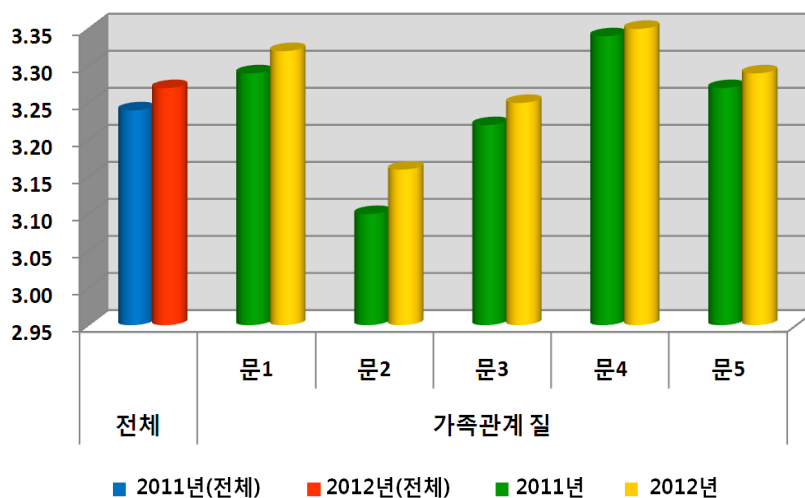
표 II-141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4	11.1	36.5	47.0	2.0	8,745	3.4	9.7	34.4	48.5	3.9
성별	남	4,874	3.4	10.4	36.6	47.6	2.0	4,494	3.5	8.9	33.6	49.8	4.2
	여	4,561	3.6	11.8	36.3	46.5	1.9	4,251	3.3	10.5	35.4	47.2	3.6
교급별	초	2,943	1.9	5.1	27.0	63.8	2.1	3,185	2.6	5.7	23.0	63.9	5.0
	중	2,844	3.0	10.0	39.8	45.4	1.8	2,986	3.6	10.0	38.5	44.2	3.8
	고	3,648	5.1	16.7	41.5	34.8	1.9	2,574	4.3	14.4	44.0	34.6	2.7

2) 가족관계 질 - 항목별 평균

가족관계 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M=3.35)’가 가장 높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M=3.32)’,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M=3.29)’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2011년에 비해 더 높아져, 2012년의 경우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1】 2011~2012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표 II-142 2011~2012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3.29	3.32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10	3.16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3.22	3.25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3.34	3.35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27	3.29
가족관계 질 영역(전체)		3.24	3.2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14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와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항목에 대해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항목의 경우에는 성별($t=2.249$, $p<.05$), 교급별($F=237.955$, $p<.001$) 및 가족구성별($F=33.400$,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3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서로 아껴줌		함께 시간을 보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i>n</i> =4,494)	3.33 (0.75)	1.035	3.16 (0.87)	0.053	3.27 (0.79)	2.249*
	여자 (<i>n</i> =4,251)	3.31 (0.72)		3.16 (0.86)		3.23 (0.80)	
교급별	초등학교 (<i>n</i> =3,185)	3.53 (0.68)	214.068*** (ab,ac,bc)	3.44 (0.77)	309.777*** (ab,ac,bc)	3.48 (0.73)	237.955*** (ab,ac,bc)
	중학교 (<i>n</i> =2,986)	3.23 (0.75)		3.08 (0.86)		3.17 (0.79)	
	고등학교 (<i>n</i> =2,574)	3.17 (0.73)		2.91 (0.88)		3.05 (0.80)	
거주지	서울 (<i>n</i> =1,300)	3.32 (0.73)	0.831	3.16 (0.86)	0.100	3.25 (0.80)	1.768
	광역시 (<i>n</i> =2,185)	3.34 (0.71)		3.16 (0.86)		3.28 (0.77)	
	시군 (<i>n</i> =5,260)	3.31 (0.75)		3.15 (0.87)		3.24 (0.8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i>n</i> =7,681)	3.34 (0.72)	34.653*** (gh)	3.18 (0.85)	31.659*** (gh)	3.27 (0.78)	33.400*** (gh)
	한부모가정 (<i>n</i> =709)	3.11 (0.79)		2.92 (0.91)		3.02 (0.84)	
	조손가정 (<i>n</i> =147)	3.24 (0.83)		3.05 (0.96)		3.17 (0.87)	
전체 <i>M</i> (<i>SD</i>)		3.32(0.74)		3.16(0.86)		3.25(0.80)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밀함		서로에게 관심이 많음		가족관계 질 (전체)	
		<i>M</i> (<i>SD</i>)	<i>t, F</i> (Sheff��)	<i>M</i> (<i>SD</i>)	<i>t, F</i> (Sheff��)	<i>M</i> (<i>SD</i>)	<i>t, F</i> (Sheff��)
성별	남자 (n=4,494)	3.35 (0.77)	0.113	3.31 (0.80)	2.530*	3.28 (0.71)	1.377
	여자 (n=4,251)	3.35 (0.76)		3.26 (0.81)		3.26 (0.70)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3.56 (0.68)	199.308*** (ab,ac,bc)	3.49 (0.74)	173.751*** (ab,ac,bc)	3.50 (0.63)	288.350*** (ab,ac,bc)
	중학교 (n=2,986)	3.27 (0.79)		3.21 (0.81)		3.19 (0.71)	
	고등학교 (n=2,574)	3.19 (0.78)		3.12 (0.81)		3.09 (0.70)	
거주지	서울 (n=1,300)	3.34 (0.76)	0.320	3.29 (0.79)	0.603	3.27 (0.70)	0.700
	광역시 (n=2,185)	3.36 (0.76)		3.30 (0.79)		3.29 (0.69)	
	시군 (n=5,260)	3.35 (0.77)		3.28 (0.81)		3.27 (0.7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3.37 (0.75)	32.273*** (gh,gi)	3.31 (0.78)	37.882*** (gh)	3.30 (0.69)	42.677*** (gh)
	한부모가정 (n=709)	3.14 (0.84)		3.05 (0.87)		3.05 (0.75)	
	조손가정 (n=147)	3.22 (0.87)		3.16 (0.93)		3.18 (0.79)	
전체 <i>M</i> (<i>SD</i>)		3.35(0.76)		3.29(0.80)		3.27(0.70)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항목에서는 교급별($F=199.308$, $p<.001$) 및 가족구성별($F=32.273$, $p<.001$)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항목의 경우에는 성별($t=2.530$, $p<.05$), 교급별($F=173.751$, $p<.001$), 가족구성별($F=37.882$,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으며, 양부모가정이 다른 유형의 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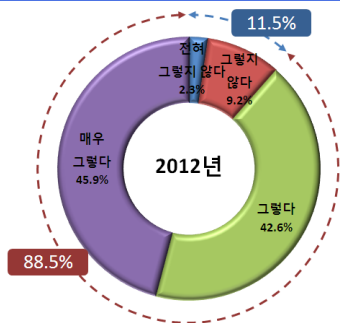
가족관계 질의 각 항목을 합산한 전체의 경우, 교급별($F=288.350$, $p<.001$) 및 가족구성별($F=42.677$, $p<.001$) 변인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평균의 차이와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43>에 제시되어 있다.

2)-①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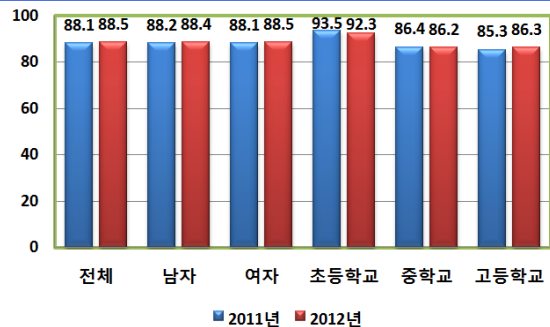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5%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88.5%가 ‘그렇다’, 1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88.4%)과 여학생(88.5%)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92.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86.2%)과 고등학생(86.3%)의 응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8.5%)이 2011년(88.1%)에 비해 긍정응답한 비율이 0.4%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미미하게나마 낮아졌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 응답률이 1.0%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2】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표 II-144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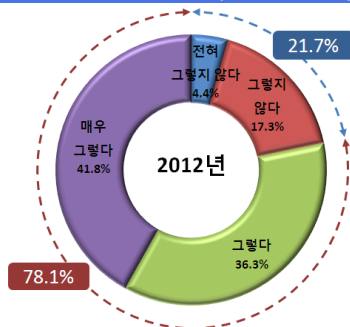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5	9.3	44.8	43.3	0.1	8,745	2.3	9.2	42.6	45.9	0.1
성별	남	4,874	2.8	8.9	43.6	44.6	0.1	4,494	2.7	8.8	41.3	47.1	0.1
	여	4,561	2.3	9.6	46.1	42.0	0.1	4,251	1.9	9.5	44.0	44.5	0.1
교급별	초	2,943	1.5	5.0	32.6	60.9	0.1	3,185	1.5	6.0	30.5	61.8	0.2
	중	2,844	2.9	10.8	47.9	38.5	0.0	2,986	2.7	11.1	46.9	39.3	0.1
	고	3,648	3.1	11.5	52.2	33.1	0.1	2,574	2.9	10.8	52.5	33.8	0.0

2)-②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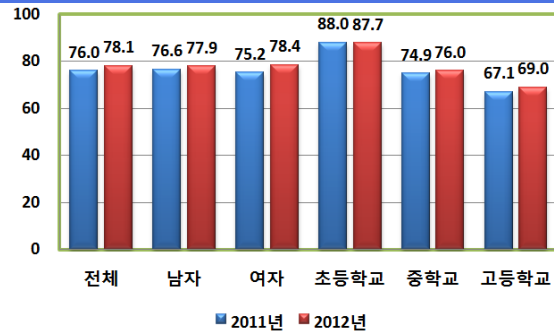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1.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78.4%)이 남학생(77.9%)보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87.7%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76.0%), 고등학생(69.0%)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78.1%)이 2011년(76.0%)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1%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3】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표 II-145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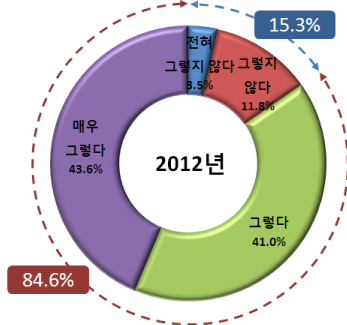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8	19.1	37.5	38.5	0.1	8,745	4.4	17.3	36.3	41.8	0.1
성 별	남	4,874	4.9	18.3	38.2	38.4	0.1	4,494	4.6	17.4	35.7	42.2	0.2
	여	4,561	4.6	20.1	36.7	38.5	0.1	4,251	4.2	17.3	37.0	41.4	0.1
교 급 별	초	2,943	2.5	9.3	30.9	57.1	0.2	3,185	2.7	9.5	29.3	58.4	0.2
	중	2,844	4.6	20.5	40.0	34.9	0.0	2,986	4.6	19.3	39.8	36.2	0.1
	고	3,648	6.7	26.1	40.9	26.2	0.1	2,574	6.3	24.7	41.1	27.9	0.0

2)-③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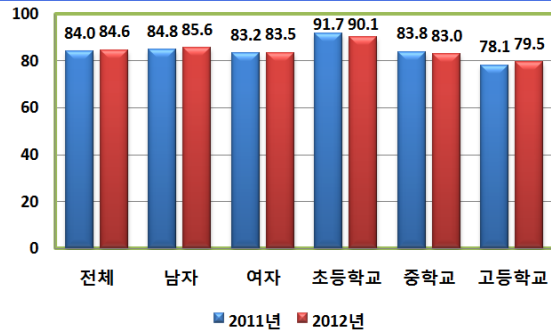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6%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의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4.6%,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15.3%로 나타났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의 경우 남학생(85.6%)이 여학생(83.5%)보다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0.1%)에서 중학생(83.0%), 고등학생(79.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84.6%)이 2011년(84.0%)에 비해 가족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는 응답률이 0.6%p 높았고,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도 전체결과와 비슷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 2012년에 긍정응답률이 조금씩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응답률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4】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표 II-146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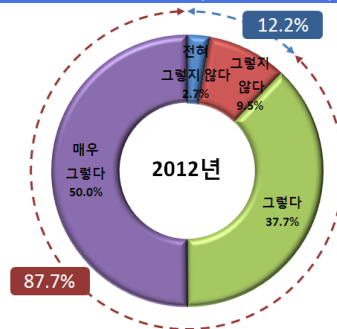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4	12.5	43.7	40.3	0.1	8,745	3.5	11.8	41.0	43.6	0.2
성별	남	4,874	3.4	11.7	43.8	41.0	0.1	4,494	3.6	10.6	41.1	44.5	0.2
	여	4,561	3.4	13.4	43.5	39.7	0.1	4,251	3.4	13.0	40.9	42.6	0.1
교급별	초	2,943	1.7	6.5	32.7	59.0	0.1	3,185	2.4	7.3	30.3	59.8	0.2
	중	2,844	3.8	12.4	46.5	37.3	0.0	2,986	3.7	13.1	45.2	37.8	0.2
	고	3,648	4.4	17.3	50.3	27.8	0.1	2,574	4.7	15.7	49.3	30.2	0.1

2)-④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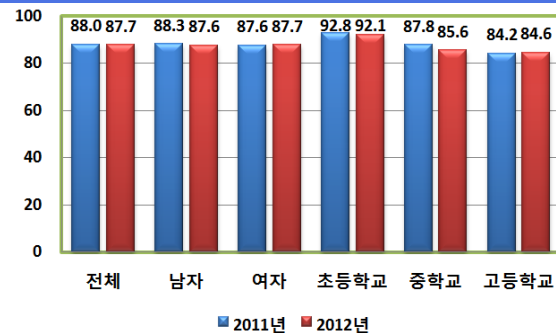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7.7%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7.7%가 ‘그렇다’ , 12.2%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87.6%)과 여학생(87.7%)이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2.1%)에서 중(85.6%)·고등학생(84.6%)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7.7%)과 2011년(88.0%)의 긍정응답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는 2012년에 0.7%p 더 낮아진데 비해 여자는 연도별 긍정응답비율이 비슷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2년에 긍정응답률이 조금씩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0.4%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5】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표 II-147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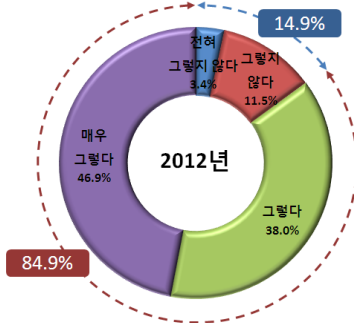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7	9.2	40.1	47.9	0.1	8,745	2.7	9.5	37.7	50.0	0.1
성별	남	4,874	2.9	8.7	41.1	47.2	0.2	4,494	2.9	9.3	37.4	50.2	0.1
	여	4,561	2.5	9.8	39.0	48.6	0.1	4,251	2.5	9.7	38.0	49.7	0.1
교 단 별	초	2,943	1.6	5.6	28.6	64.2	0.1	3,185	1.4	6.3	27.3	64.8	0.2
	중	2,844	2.5	9.6	43.5	44.3	0.1	2,986	3.3	11.0	41.0	44.6	0.1
	고	3,648	3.8	11.8	46.7	37.5	0.2	2,574	3.6	11.8	46.7	37.9	0.0

2)-⑤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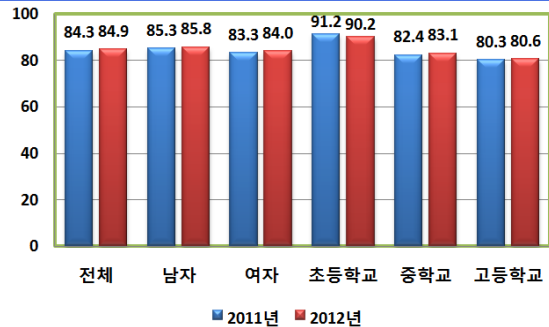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4.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성별비교를 먼저 살펴보면, 남학생(85.8%)이 여학생(84.0%)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0.2%)에서 중학생(83.1%), 고등학생(80.6%)으로 올라갈수록 가족이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84.9%)이 2011년(84.3%)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0.7%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긍정응답률은 2012년에 1.0%p 더 낮아진 반면, 중학생은 0.7%p 더 높아졌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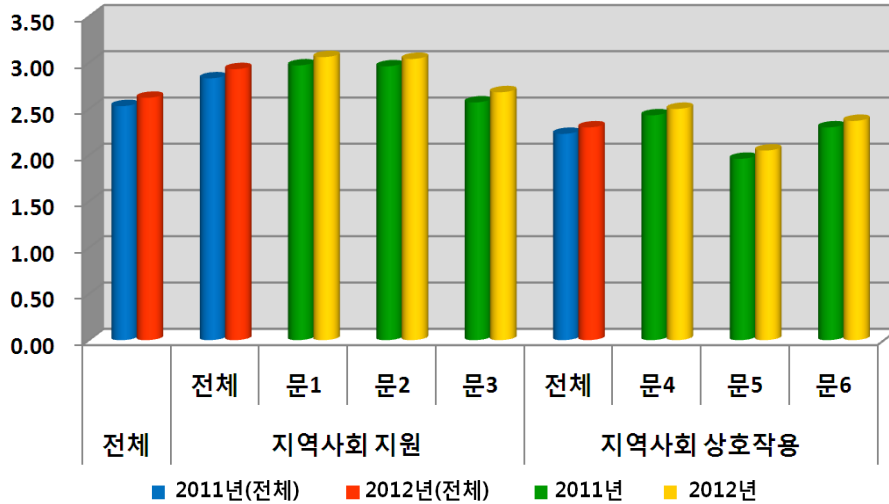
【그림 II-13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표 II-14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2	12.4	39.4	44.9	0.1	8,745	3.4	11.5	38.0	46.9	0.1
성별	남	4,874	3.2	11.5	39.5	45.8	0.1	4,494	3.4	10.7	37.7	48.1	0.1
	여	4,561	3.2	13.5	39.3	44.0	0.1	4,251	3.4	12.5	38.4	45.6	0.1
교급별	초	2,943	2.2	6.6	29.6	61.6	0.1	3,185	2.7	7.0	29.3	60.9	0.1
	중	2,844	3.2	14.4	40.9	41.5	0.0	2,986	3.7	13.1	41.1	42.0	0.1
	고	3,648	4.0	15.6	46.1	34.2	0.2	2,574	4.0	15.3	45.3	35.3	0.0

3. 지역사회 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사회 지원(M=2.93)’, ‘지역사회 상호작용(M=2.30)’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7】 2011~2012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표 II-149 2011~2012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지역사회 지원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2.97	3.06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96	3.04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2.57	2.68
소계		2.83	2.93
지역사회 상호작용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43	2.50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96	2.05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2.30	2.37
소계		2.23	2.30
지역사회 영역(전체)		2.53	2.6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0>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지원의 경우, 성별($t=7.977$, $p<.001$), 교급별($F=381.084$, $p<.001$), 가족구성별($F=16.335$, $p<.001$) 각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M=3.00$)이 여학생($M=2.86$)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생($M=3.22$)에서 중($M=2.86$)·고등학생($M=2.65$)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호작용에서는 교급별($F=188.351$, $p<.001$) 및 가족구성별($F=4.164$, $p<.05$)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각 세부 요인별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0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영역(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3.00 (0.82)	7.977***	2.31 (0.88)	0.786	2.66 (0.73)	5.222***
	여자 (n=4,251)	2.86 (0.85)		2.30 (0.78)		2.58 (0.69)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3.22 (0.79)	381.084*** (ab,ac,bc)	2.52 (0.87)	188.351*** (ab,ac,bc)	2.87 (0.71)	381.995*** (ab,ac,bc)
	중학교 (n=2,986)	2.86 (0.81)		2.23 (0.79)		2.55 (0.67)	
	고등학교 (n=2,574)	2.65 (0.81)		2.12 (0.76)		2.38 (0.66)	
거주지	서울 (n=1,300)	2.94 (0.86)	0.180	2.32 (0.85)	0.329	2.63 (0.73)	0.250
	광역시 (n=2,185)	2.92 (0.85)		2.30 (0.85)		2.61 (0.72)	
	시군 (n=5,260)	2.93 (0.83)		2.30 (0.82)		2.62 (0.7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2.94 (0.83)	16.335*** (gh)	2.31 (0.83)	4.164* (gh)	2.63 (0.71)	12.886*** (gh)
	한부모가정 (n=709)	2.76 (0.81)		2.21 (0.78)		2.48 (0.67)	
	조손가정 (n=147)	2.92 (0.91)		2.32 (0.88)		2.62 (0.77)	
전체 <i>M</i> (<i>SD</i>)		2.93(0.84)		2.30(0.83)		2.62(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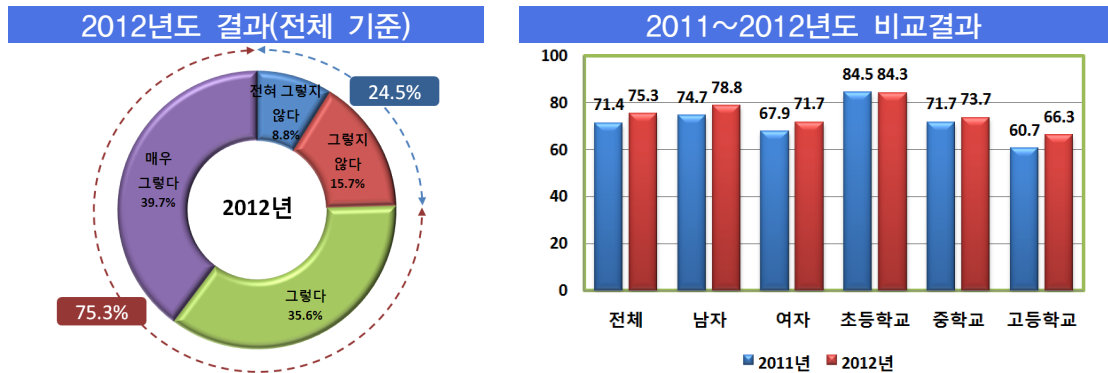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5.3%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5.3%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24.5%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비교의 경우, 남학생(78.8%)이 여학생(71.7%)보다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84.3%)에서 고등학생(66.3%)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및 성별에서는 2012년이 2011년에 비해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고등학생은 2011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진데 반해, 초등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38】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표 II-15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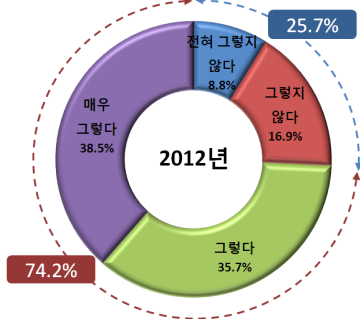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1.2	17.3	35.3	36.1	0.0	8,745	8.8	15.7	35.6	39.7	0.1
성 별	남	4,874	10.3	15.0	37.5	37.2	0.0	4,494	7.7	13.3	36.4	42.4	0.1
	여	4,561	12.2	19.8	33.0	34.9	0.0	4,251	9.9	18.3	34.8	36.9	0.1
학 년 단 위	초	2,943	6.5	9.0	32.3	52.2	0.0	3,185	6.3	9.3	29.6	54.7	0.1
	중	2,844	10.1	18.2	37.4	34.3	0.0	2,986	9.0	17.3	39.8	33.9	0.0
	고	3,648	15.9	23.3	36.2	24.5	0.1	2,574	11.6	21.9	38.3	28.0	0.2

1)－②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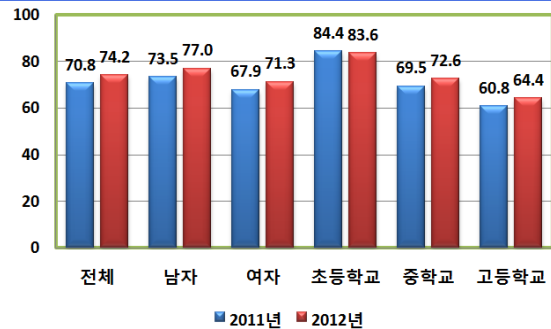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2%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2%가 ‘그렇다’ , 25.7%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77.0%)이 여학생(71.3%)보다 친지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3.6%)에서 중학생(72.6%), 고등학생(64.4%)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74.2%)이 2011년(70.8%)에 비해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긍정응답률이 2011년에 비해 0.8%p 더 낮아진데 비해 중·고등학생은 각각 3.1%p 및 3.6%p씩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9】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표 II-15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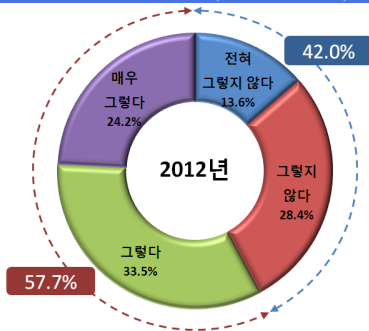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0.7	18.4	35.3	35.5	0.1	8,745	8.8	16.9	35.7	38.5	0.1
성별	남	4,874	10.1	16.4	37.5	36.0	0.1	4,494	8.0	14.8	36.1	40.9	0.2
	여	4,561	11.5	20.5	32.8	35.1	0.1	4,251	9.6	19.1	35.3	36.0	0.0
교급별	초	2,943	5.7	9.8	31.8	52.6	0.1	3,185	6.4	9.8	30.2	53.4	0.2
	중	2,844	10.1	20.4	36.8	32.7	0.0	2,986	8.8	18.5	38.7	33.9	0.1
	고	3,648	15.4	23.7	36.8	24.0	0.1	2,574	11.7	23.8	39.0	25.4	0.0

1)－③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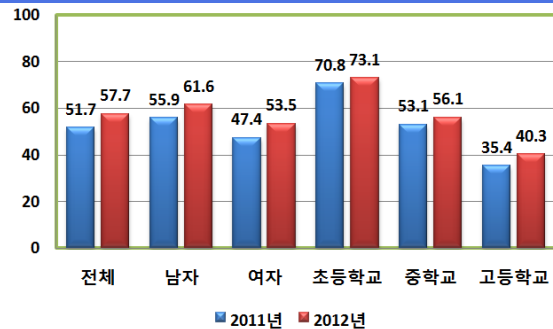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57.7%, ‘그렇지 않다’는 42.0%로 응답**

-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57.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42.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 긍정응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61.6%)이 여학생(53.5%)보다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3.1%)에서 중학생(56.1%), 고등학교(40.3%)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57.7%)이 2011년(51.7%)에 비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p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0】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표 II-15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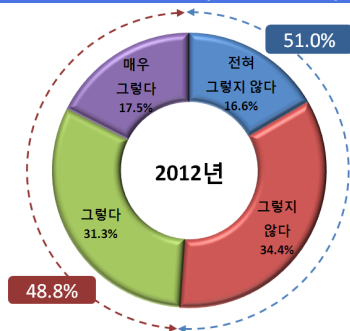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6.7	31.3	31.3	20.4	0.3	8,745	13.6	28.4	33.5	24.2	0.3
성별	남	4,874	16.4	27.4	33.5	22.4	0.3	4,494	13.4	24.7	33.8	27.8	0.4
	여	4,561	17.1	35.3	29.0	18.4	0.2	4,251	13.9	32.3	33.1	20.4	0.3
교급별	초	2,943	9.7	19.1	33.8	37.0	0.4	3,185	9.5	17.0	34.2	38.9	0.4
	중	2,844	15.4	31.3	35.1	18.0	0.2	2,986	13.5	30.0	36.2	19.9	0.3
	고	3,648	23.5	41.0	26.4	9.0	0.2	2,574	18.9	40.5	29.3	11.0	0.3

2)-① 지역사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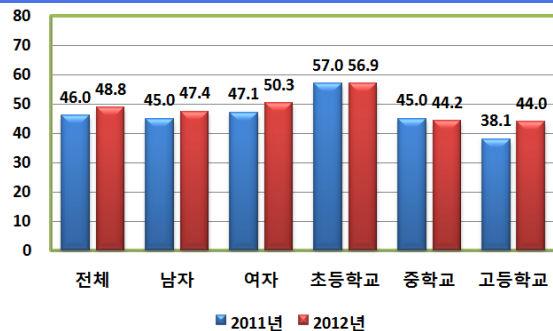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는 48.8%, ‘그렇지 않다’는 51.0%가 응답**

-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48.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51.0%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50.3%)이 남학생(47.4%)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이 56.9%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44.2%)과 고등학생(44.0%)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보면, 2012년(48.8%)이 2011년(46.0%)에 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p 높았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중학생은 긍정응답률이 0.8%p 더 낮아진 반면, 고등학생은 5.9%p 더 높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1】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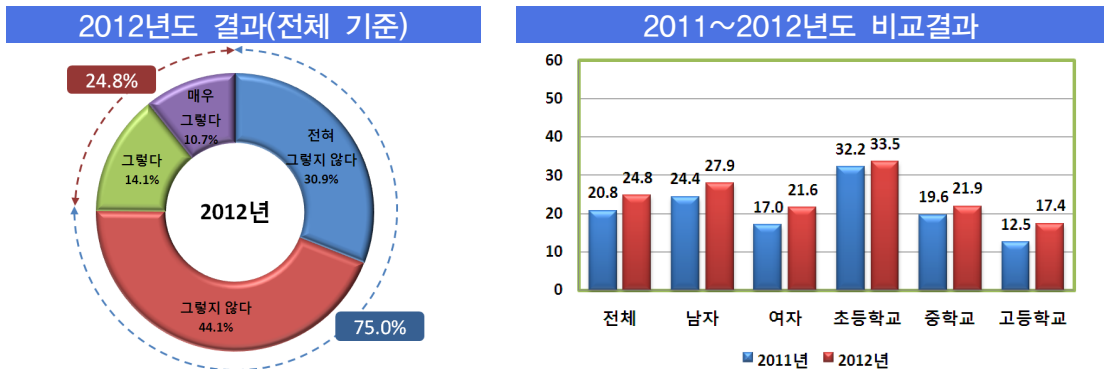
표 II-15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8.2	35.7	31.4	14.6	0.1	8,745	16.6	34.4	31.3	17.5	0.2
성별	남	4,874	20.0	34.9	29.3	15.7	0.1	4,494	18.6	33.8	28.8	18.6	0.3
	여	4,561	16.1	36.6	33.6	13.5	0.1	4,251	14.5	35.1	33.9	16.4	0.1
교급	초	2,943	13.9	29.1	33.2	23.8	0.1	3,185	14.7	28.1	31.2	25.7	0.3
	중	2,844	18.0	37.0	31.5	13.5	0.0	2,986	16.6	39.0	30.7	13.5	0.2
	고	3,648	21.7	40.1	29.9	8.2	0.2	2,574	18.9	36.9	31.9	12.1	0.2

2)-②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4.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4.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75.0%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27.9%)이 여학생(21.6%)보다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고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33.5%)에서 고등학생(17.4%)으로 올라갈수록 상기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24.8%)이 2011년(20.8%)에 비해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p 높았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림 II-142】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표 II-15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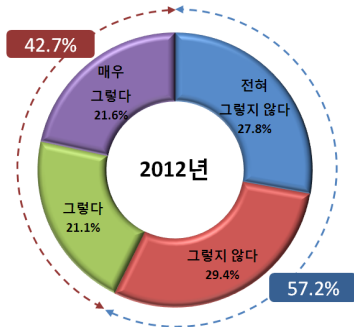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4.6	44.4	12.0	8.8	0.1	8,745	30.9	44.1	14.1	10.7	0.2
성별	남	4,874	35.1	40.3	13.9	10.5	0.1	4,494	32.2	39.7	14.9	13.0	0.2
	여	4,561	34.2	48.8	10.1	6.9	0.1	4,251	29.6	48.7	13.3	8.3	0.1
교급별	초	2,943	27.3	40.3	15.9	16.3	0.2	3,185	28.2	38.0	17.1	16.4	0.3
	중	2,844	35.4	45.0	11.8	7.8	0.0	2,986	31.6	46.4	13.2	8.7	0.1
	고	3,648	40.1	47.2	9.1	3.4	0.2	2,574	33.6	49.0	11.5	5.9	0.2

2)-③ 지역사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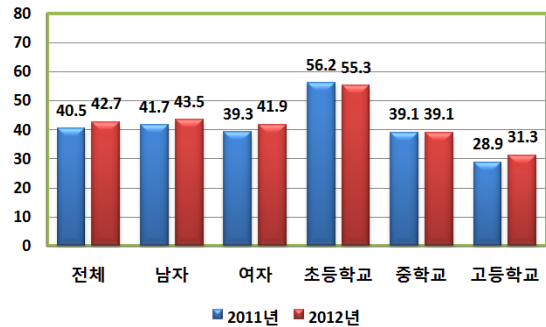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42.7%, ‘그렇지 않다’는 57.2%로 응답**

-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57.2%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3.5%)이 여학생(41.9%)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55.3%)에서 고등학생(31.3%)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았다.
- 2011년도와 비교해보면, 2012년(42.7%)이 2011년(40.5%)에 비해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p 더 높았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조금 더 낮은 긍정응답률이 나타났고 중학생은 같았으며 고등학생은 긍정응답률이 2012년에 2.4%p 더 높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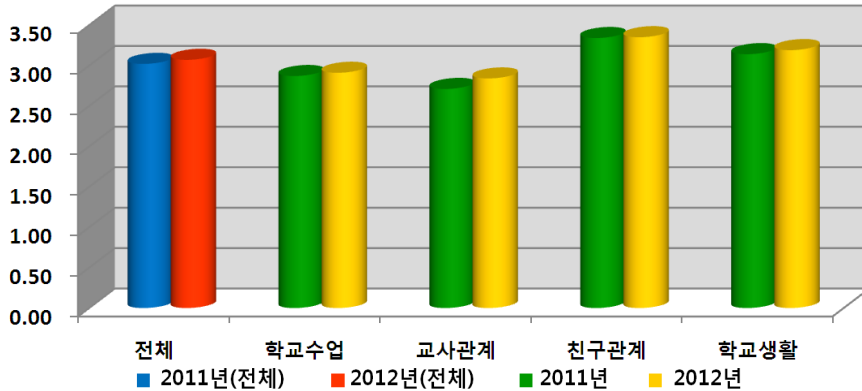
【그림 II-143】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15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9.6	29.8	21.7	18.8	0.1	8,745	27.8	29.4	21.1	21.6	0.1
성 별	남	4,874	31.2	27.1	22.1	19.6	0.1	4,494	29.7	26.6	20.6	22.9	0.2
	여	4,561	27.9	32.8	21.3	18.0	0.0	4,251	25.7	32.3	21.7	20.2	0.1
교 급	초	2,943	20.5	23.2	25.2	31.0	0.0	3,185	22.8	21.7	22.0	33.3	0.2
	중	2,844	31.6	29.3	21.9	17.2	0.0	2,986	27.9	32.8	21.5	17.6	0.1
	고	3,648	35.4	35.6	18.7	10.2	0.1	2,574	33.7	35.0	19.7	11.6	0.0

4. 학교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친구관계(M=3.3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M=3.19)’, ‘학교수업(M=2.91)’, ‘교사관계(M=2.84)’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2012년에 학교에서의 적응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



【그림 II-144】 2011~2012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평균

표 II-157 2011~2012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학교 수업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16	3.21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2.78	2.81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2.65	2.71
소계			2.87	2.91
교사 관계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89	3.00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56	2.69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70	2.82
소계			2.71	2.84
친구 관계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3.36	3.37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31	3.32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36	3.37
소계			3.34	3.35
학교 생활	10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14	3.17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3.00	3.09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3.29	3.30
소계			3.14	3.19
학교영역(전체)			3.02	3.0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의 경우에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 및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으며,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에서는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졌으며,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영역(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494)	2.89 (0.71)	-2.757 **	2.87 (0.84)	4.182 ***	3.35 (0.68)	-0.289	3.17 (0.66)	-1.968 *	3.07 (0.58)	0.107
	여자 (n=4,251)	2.93 (0.66)		2.80 (0.85)		3.35 (0.66)		3.20 (0.62)		3.07 (0.55)	
교급별	초등학교 (n=3,185)	3.17 (0.65)	422.957 *** (ab,ac, bc)	3.23 (0.77)	628.169 *** (ab,ac, bc)	3.51 (0.64)	187.068 *** (ab,ac, bc)	3.35 (0.60)	177.936 *** (ab,ac, bc)	3.32 (0.55)	566.048 *** (ab,ac, bc)
	중학교 (n=2,986)	2.80 (0.67)		2.65 (0.83)		3.33 (0.66)		3.11 (0.66)		2.98 (0.54)	
	고등학교 (n=2,574)	2.71 (0.64)		2.56 (0.77)		3.18 (0.66)		3.07 (0.62)		2.88 (0.49)	
거주지	서울 (n=1,300)	2.95 (0.70)	4.278* (df)	2.85 (0.86)	0.324	3.36 (0.69)	1.358	3.23 (0.65)	5.267** (df)	3.10 (0.58)	3.256* (-)
	광역시 (n=2,185)	2.92 (0.69)		2.85 (0.84)		3.37 (0.65)		3.20 (0.63)		3.08 (0.55)	
	시군 (n=5,260)	2.89 (0.68)		2.83 (0.85)		3.34 (0.67)		3.17 (0.64)		3.06 (0.5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7,681)	2.93 (0.68)	52.994 *** (gh,gi)	2.85 (0.84)	19.092 *** (gh,hi)	3.37 (0.66)	20.696 *** (gh)	3.21 (0.63)	45.079 *** (gh,gi)	3.09 (0.56)	48.867 *** (gh,hi)
	한부모가정 (n=709)	2.66 (0.66)		2.65 (0.83)		3.20 (0.70)		2.98 (0.66)		2.88 (0.55)	
	조손가정 (n=147)	2.78 (0.77)		2.88 (0.87)		3.29 (0.78)		3.05 (0.69)		3.01 (0.62)	
전체 <i>M</i> (<i>SD</i>)		2.91(0.69)		2.84(0.85)		3.35(0.67)		3.19(0.64)		3.07(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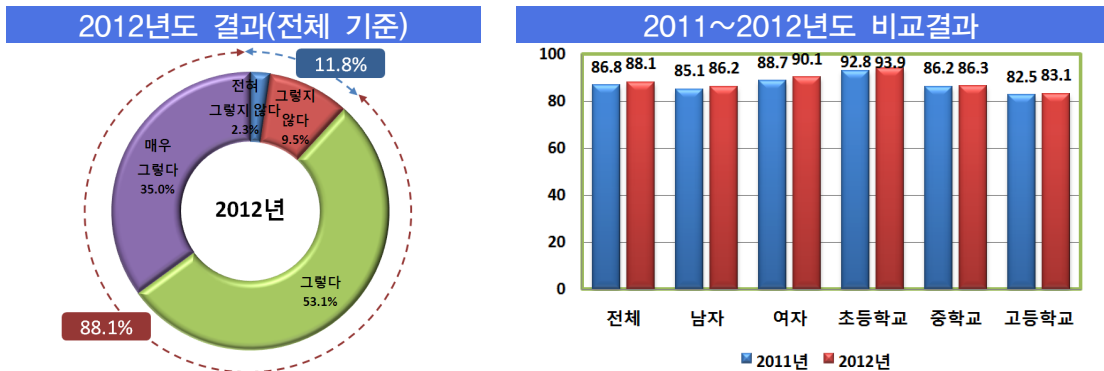
*p<.05, **p<.01,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학교수업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8.1%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11.8%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90.1%)이 남학생(86.2%)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3.9%)에서 고등학생(83.1%)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8.1%)이 2011년(86.8%)에 비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연도별 비교를 교급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초·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응답률이 조금씩 높아진 것에 반해, 중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 II-14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표 II-15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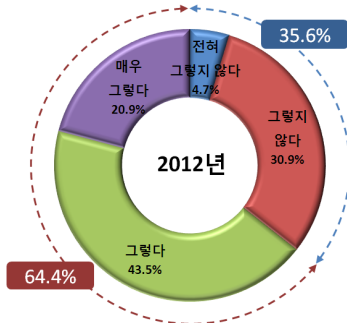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4	10.7	55.3	31.5	0.1	8,745	2.3	9.5	53.1	35.0	0.0	
성 별	남	4,874	3.0	11.9	54.9	30.2	0.1	4,494	3.2	10.5	51.8	34.4	0.1
	여	4,561	1.8	9.5	55.8	32.9	0.0	4,251	1.4	8.5	54.4	35.7	0.0
교 급 별	초	2,943	1.3	5.8	44.3	48.5	0.0	3,185	1.4	4.7	41.2	52.7	0.1
	중	2,844	2.6	11.3	57.5	28.7	0.0	2,986	3.0	10.7	58.6	27.7	0.0
	고	3,648	3.1	14.3	62.5	20.0	0.1	2,574	2.7	14.1	61.3	21.8	0.0

1)-② 학교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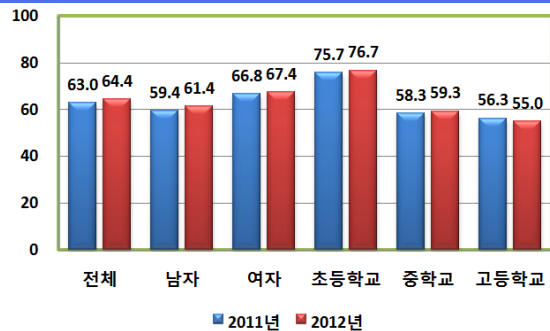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4%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64.4%,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35.6%로 나타났다.
- 성별비교에서는 여학생(67.4%)이 남학생(61.4%)보다 긍정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59.3%), 고등학생(55.0%)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상기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64.4%)이 2011년(63.0%)에 비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p 더 높아졌고, 성별비교에서도 남녀 모두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중학생의 ‘그렇다’ 응답률이 2012년이 더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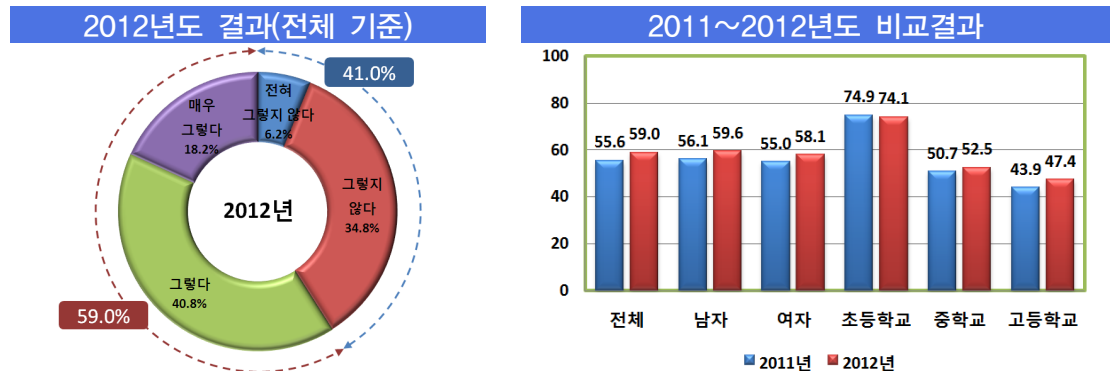
표 II-16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4.5	32.4	43.6	19.4	0.1	8,745	4.7	30.9	43.5	20.9	0.1
성별	남	4,874	5.5	35.0	40.8	18.6	0.1	4,494	5.9	32.5	40.9	20.5	0.1
	여	4,561	3.5	29.6	46.7	20.1	0.1	4,251	3.4	29.2	46.2	21.2	0.0
교급별	초	2,943	2.5	21.6	42.7	33.0	0.1	3,185	3.0	20.3	43.5	33.2	0.1
	중	2,844	5.1	36.5	42.7	15.6	0.1	2,986	5.7	34.9	43.6	15.7	0.1
	고	3,648	5.7	38.0	45.1	11.2	0.1	2,574	5.7	39.4	43.4	11.6	0.0

1)-③ 학교수업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는 59.0%, ‘그렇지 않다’는 41.0%로 응답**

-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9.0%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41.0%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비교에서는 남학생(59.6%)이 여학생(58.1%)보다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74.1%)의 긍정응답률이 중학생(52.5%)과 고등학생(4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59.0%)이 2011년(55.6%)에 비해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4%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남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과 비교하여 0.8%p 더 낮아진 응답률을 보인데 반해 중·고등학생은 긍정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그림 II-147】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표 II-161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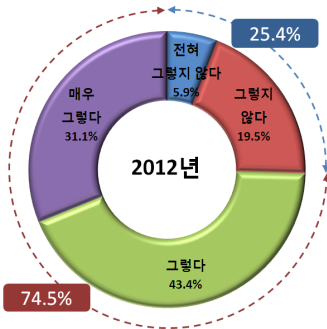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성 별	전체	9,435	6.7	37.6	40.4	15.2	0.1	8,745	6.2	34.8	40.8	18.2	0.1
	남	4,874	6.8	36.8	39.9	16.2	0.1	4,494	6.1	34.1	40.4	19.2	0.1
교 급 별	여	4,561	6.5	38.4	41.0	14.0	0.1	4,251	6.2	35.6	41.1	17.0	0.0
	초	2,943	2.6	22.4	47.4	27.5	0.1	3,185	3.1	22.7	45.3	28.8	0.1
	중	2,844	7.1	42.1	39.0	11.7	0.1	2,986	7.5	39.9	38.6	13.9	0.1
	고	3,648	9.6	46.4	36.0	7.9	0.1	2,574	8.4	44.1	37.5	9.9	0.0

2)-①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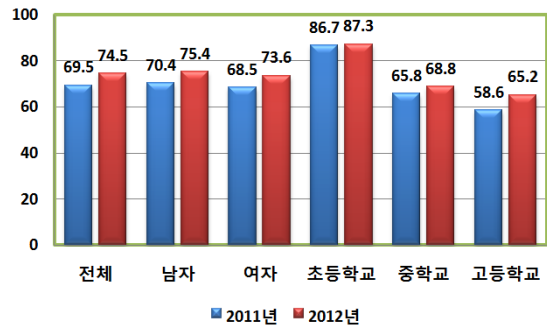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5%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5.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5.4%)이 여학생(73.6%)보다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87.3%)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68.8%), 고등학생(65.2%)으로 갈수록 학교에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74.5%)이 2011년(69.5%)에 비해 학교에서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p 더 높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8】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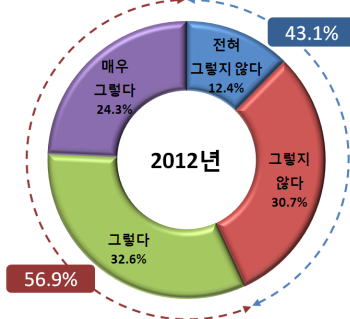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7.5	22.9	43.2	26.3	0.1	8,745	5.9	19.5	43.4	31.1	0.1
성 별	남	4,874	7.3	22.1	43.6	26.8	0.1	4,494	6.0	18.5	43.8	31.6	0.1
	여	4,561	7.7	23.7	42.8	25.7	0.0	4,251	5.8	20.7	43.0	30.6	0.0
교 급 별	초	2,943	3.7	9.5	38.9	47.8	0.1	3,185	3.0	9.6	36.1	51.2	0.0
	중	2,844	8.6	25.7	44.9	20.9	0.0	2,986	7.9	23.2	46.4	22.4	0.1
	고	3,648	9.8	31.5	45.4	13.2	0.1	2,574	7.1	27.5	48.8	16.4	0.1

2)-②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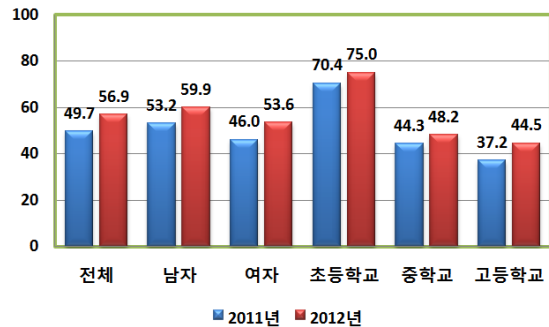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56.9%, ‘그렇지 않다’는 43.1%로 응답**

-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6.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43.1%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응답을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59.9%)이 여학생(53.6%)보다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75.0%로 중학생(48.2%) 및 고등학생(4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56.9%)이 2011년(49.7%)에 비해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9】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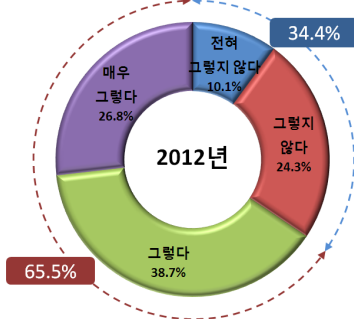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5.3	34.8	29.2	20.5	0.1	8,745	12.4	30.7	32.6	24.3	0.1
성별	남	4,874	14.3	32.3	31.7	21.5	0.1	4,494	11.4	28.6	34.6	25.3	0.1
	여	4,561	16.4	37.5	26.6	19.4	0.1	4,251	13.4	32.9	30.4	23.2	0.0
교 급 별	초	2,943	7.7	21.8	32.1	38.3	0.1	3,185	6.8	18.1	33.6	41.4	0.1
	중	2,844	17.0	38.7	28.8	15.5	0.0	2,986	15.5	36.2	31.6	16.6	0.1
	고	3,648	20.3	42.3	27.2	10.0	0.1	2,574	15.7	39.8	32.4	12.1	0.0

2)-③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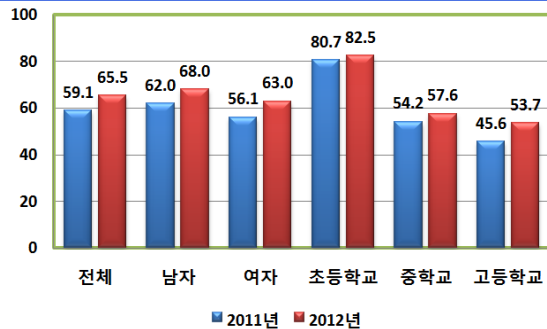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5.5%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65.5%가 ‘그렇다’ , 34.4%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68.0%)이 여학생(63.0%)보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82.5%로 중(57.6%)·고등학교(5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65.5%)이 2011년(59.1%)에 비해 학교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0】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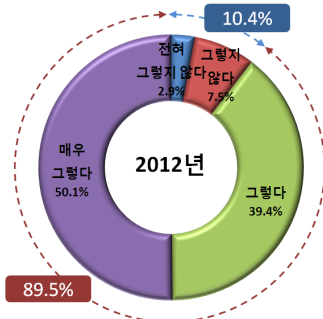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12.8	28.0	36.8	22.3	0.1	8,745	10.1	24.3	38.7	26.8	0.2
성별	남	4,874	12.0	25.9	38.9	23.1	0.1	4,494	9.3	22.5	39.7	28.3	0.2
	여	4,561	13.5	30.3	34.6	21.5	0.1	4,251	10.8	26.1	37.7	25.3	0.2
교급별	초	2,943	5.2	14.0	37.8	42.9	0.1	3,185	4.9	12.4	36.2	46.3	0.2
	중	2,844	14.4	31.4	37.6	16.6	0.1	2,986	12.9	29.3	39.3	18.3	0.3
	고	3,648	17.6	36.7	35.5	10.1	0.1	2,574	13.1	33.1	41.1	12.6	0.1

3)-①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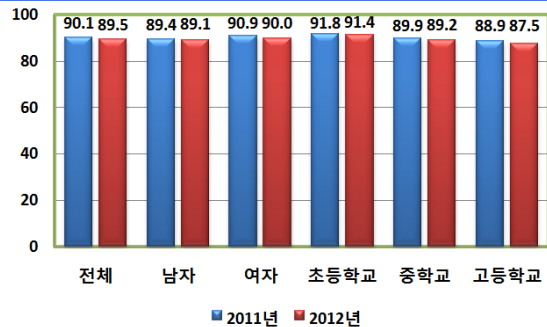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5%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5%가 ‘그렇다’ 고 응답한 반면, 10.4%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90.0%)이 남학생(89.1%)보다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1.4%)에서 고등학생(87.5%)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비율이 낮아졌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9.5%)이 2011년(90.1%)에 비해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6%p 더 낮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전체적으로 2012년에 학교에 자신이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1년도에 비해 비교적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표 II-165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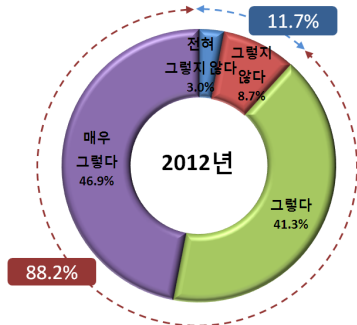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9	6.9	41.5	48.6	0.1	8,745	2.9	7.5	39.4	50.1	0.0
성별	남	4,874	3.4	7.2	42.9	46.5	0.0	4,494	3.2	7.7	39.3	49.8	0.1
	여	4,561	2.4	6.6	40.1	50.8	0.1	4,251	2.7	7.4	39.6	50.4	0.0
교급별	초	2,943	2.8	5.4	30.9	60.9	0.0	3,185	2.5	6.1	28.6	62.8	0.1
	중	2,844	3.1	6.9	42.6	47.3	0.0	2,986	3.1	7.6	42.6	46.6	0.1
	고	3,648	2.9	8.1	49.3	39.6	0.1	2,574	3.2	9.2	49.1	38.4	0.0

3)-②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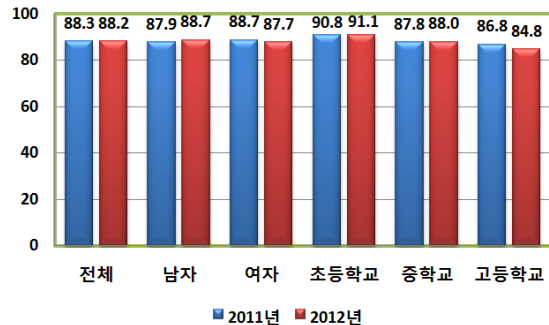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2%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8.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11.7%이었다.
-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8.7%)이 여학생(87.7%)보다 긍정응답비율이 1.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1%)에서 고등학생(84.8%)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에서는 2012년(88.2%)과 2011년(88.3%)의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 성별비교에서 남자는 긍정응답비율이 2012년에 0.8%p 더 높아진 반면, 여자는 1.0%p 더 낮아졌다. 교급별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고등학생은 2012년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률이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2】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표 II-166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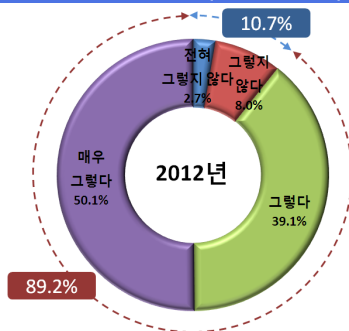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9	8.7	43.8	44.5	0.1	8,745	3.0	8.7	41.3	46.9	0.1
성별	남	4,874	3.2	8.8	44.4	43.5	0.1	4,494	3.0	8.1	41.4	47.3	0.2
	여	4,561	2.6	8.5	43.1	45.6	0.1	4,251	3.0	9.3	41.2	46.5	0.1
교급	초	2,943	2.5	6.5	32.0	58.8	0.1	3,185	2.5	6.2	30.8	60.3	0.1
	중	2,844	3.0	9.2	43.7	44.1	0.0	2,986	3.3	8.6	43.8	44.2	0.1
	고	3,648	3.2	10.0	53.4	33.4	0.1	2,574	3.2	11.8	51.4	33.4	0.2

3)-③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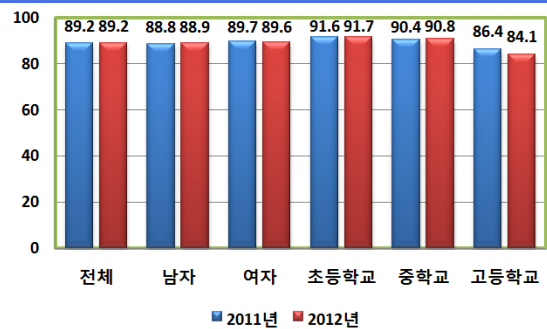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89.6%)이 남학생(88.9%)보다 긍정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4.1%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생(91.7%)의 경우 가장 높은 긍정응답비율이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89.2%)과 2011년(89.2%)의 긍정응답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비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2011년과 2012년의 긍정응답률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중학생은 2012년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0.4%p 더 높아진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2.3%p 더 낮아졌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표 II-167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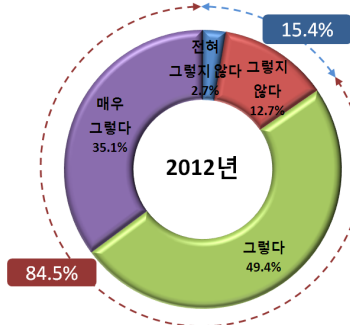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7	7.9	41.1	48.1	0.2	8,745	2.7	8.0	39.1	50.1	0.1
성 별	남	4,874	2.8	8.1	42.2	46.6	0.2	4,494	2.8	8.2	38.9	50.0	0.2
	여	4,561	2.5	7.7	39.9	49.8	0.1	4,251	2.6	7.9	39.4	50.2	0.0
교 급 별	초	2,943	2.5	5.7	29.2	62.4	0.2	3,185	2.8	5.3	28.3	63.4	0.2
	중	2,844	2.3	7.0	41.4	49.0	0.2	2,986	2.4	6.7	41.4	49.4	0.1
	고	3,648	3.0	10.4	50.4	36.0	0.1	2,574	3.0	12.9	49.8	34.3	0.0

4)-①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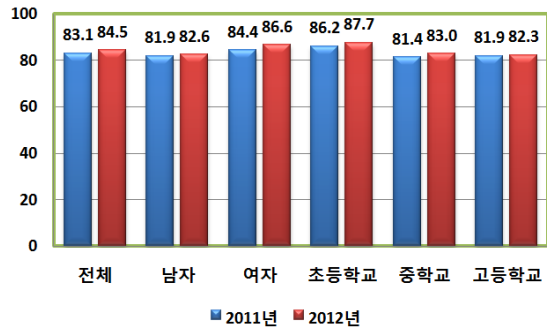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의 8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5.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86.6%)이 남학생(82.6%)보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7.7%)에서 중학생(83.0%) 및 고등학생(82.3%)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다.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4.5%)이 2011년(83.1%)에 비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4】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표 II-168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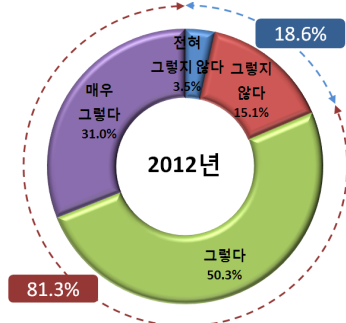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2.5	14.2	51.2	31.9	0.1	8,745	2.7	12.7	49.4	35.1	0.1
성별	남	4,874	3.1	14.9	49.8	32.1	0.1	4,494	3.1	14.1	47.4	35.2	0.2
	여	4,561	1.9	13.5	52.7	31.7	0.2	4,251	2.2	11.2	51.6	35.0	0.0
교급별	초	2,943	1.8	11.8	46.7	39.5	0.3	3,185	1.9	10.3	44.3	43.4	0.1
	중	2,844	3.0	15.4	51.4	30.0	0.1	2,986	3.2	13.5	51.0	32.0	0.1
	고	3,648	2.8	15.2	54.7	27.2	0.1	2,574	3.0	14.6	53.9	28.4	0.1

4) - ②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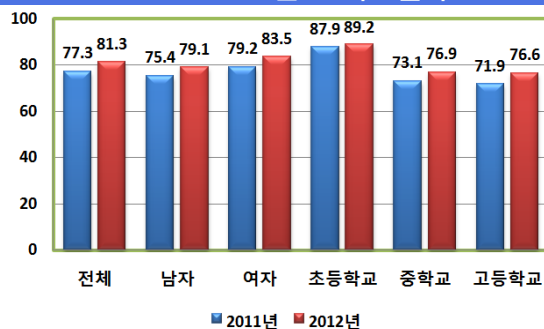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8.6%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83.5%)이 남학생(79.1%)보다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9.2%)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76.9%) 및 고등학생(76.6%)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011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81.3%)이 2011년(77.3%)에 비해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p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5】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표 II-169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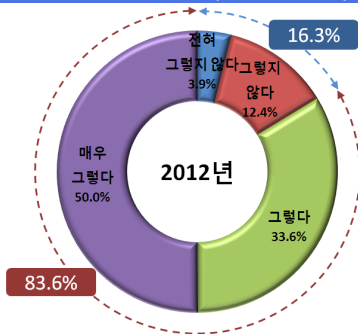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9	18.7	51.0	26.3	0.1	8,745	3.5	15.1	50.3	31.0	0.1
성별	남	4,874	4.7	19.8	48.7	26.7	0.1	4,494	4.3	16.3	47.5	31.6	0.2
	여	4,561	3.1	17.6	53.5	25.7	0.1	4,251	2.6	13.9	53.2	30.3	0.1
교급별	초	2,943	1.8	10.2	45.2	42.7	0.1	3,185	2.1	8.5	43.0	46.2	0.2
	중	2,844	5.2	21.7	50.7	22.4	0.0	2,986	4.5	18.6	51.8	25.1	0.0
	고	3,648	4.7	23.3	56.0	15.9	0.1	2,574	3.9	19.3	57.6	19.0	0.2

4) - ③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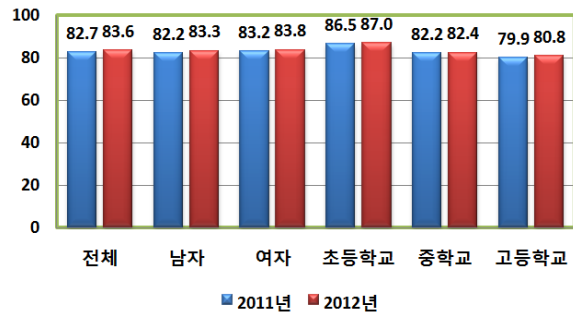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3.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 를 중심으로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83.8%)이 남학생(83.3%)보다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87.0%)에서 고등학생(80.8%)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와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83.6%)이 2011년(82.7%)에 비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9%p 높아졌고, 이는 성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고등학생은 2012년이 2011년에 비해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는데 반해 중학생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2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6】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표 II-170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2011년						2012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9,435	3.9	13.4	32.8	49.9	0.1	8,745	3.9	12.4	33.6	50.0	0.1
성 별	남	4,874	4.5	13.3	32.1	50.1	0.0	4,494	4.4	12.1	32.1	51.2	0.2
	여	4,561	3.2	13.5	33.5	49.7	0.1	4,251	3.4	12.7	35.1	48.7	0.0
교 급 별	초	2,943	2.5	11.0	29.4	57.1	0.0	3,185	2.8	10.0	28.9	58.1	0.2
	중	2,844	4.4	13.4	34.0	48.2	0.0	2,986	4.9	12.8	35.4	47.0	0.0
	고	3,648	4.6	15.3	34.5	45.4	0.1	2,574	4.3	15.0	37.3	43.5	0.0

.....

부록

부 록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인재 박사

(02)2188-887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매우 자주 했기 때문에 ‘④’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① 나는 슬프지 않다 ② 나는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③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③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평소 우는 것 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즘은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려야 울 기력조차 없다

번호	문 항
11)	① 나는 평소 짜증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①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①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정신건강-2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 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①	②	③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①	②	③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①	②	③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①	②	③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①	②	③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①	②	③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①	①	②	③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①	①	②	③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①	②	③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①	②	③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①	②	③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①	②	③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①	①	②	③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①	②	③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①	②	③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①	①	②	③

정신건강-3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①	②	③	④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4

문 4.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4-1.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 5로 이동

문 4-2.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경제적 문제 ② 학업·진로문제 ③ 건강문제
④ 학교폭력 ⑤ 외모문제 ⑥ 가정불화(부모와의 관계 등)
⑦ 이성문제 ⑧ 기타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문 4-3.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정신건강-5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1)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2)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4) 신체건강	①	②	③	④
5) 심리건강	①	②	③	④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①	②	③	④
8) 이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9) 선·후배 관계	①	②	③	④
10)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①	②	③	④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정신건강-6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①	②	③	④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7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경제적인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7) 학업성적	①	②	③	④
8) 건강	①	②	③	④

정신건강-8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9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1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2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3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배경질문

배문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㉔ (서초)시/군/㉕ (우면)읍/면/㉖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㉔ (아산)시/군/구 (배방)읍/면/㉖으로 표기함

배문 8. 전반적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한 편이다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Statistics

It developed survey instrument to underst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conducted nationwide survey. This year of 2012 is the second year surve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repetitive cross-sectional research is planned to be conducted in 2013.

Population for the surve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a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is to conduct nationwide sampling investigation with annals of educational statistics as the sampling frame by using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Population is boys and girls elementary school students(elementary school 4th ~ 6th grade), middle school (1st ~ 3rd grade), and high school students (1st ~ 3rd grade) including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16 cities and provinces of nation.

Investigation area composing the survey instrument is classified into 4 large areas such as personal, family, school, and local community area. The personal area in the large area was composed of negative elements with depression, anxiety, game addiction, suicide, stress, and misdeed and positive elements with life satisfaction, self-respect, self-efficiency, emotional control, and optimism. Family area was composed of parents' support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local community area comprised support of local community and interaction of local community. At last, school area comprised school classes,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school life.

The investigation result will be accumulated as a time series cross-section data and also monitoring materials to understand changes of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efficient policy and set up promotion direction.

Key words: actual situation of mental health, repetitive cross-section investigation, aspect of changes, sampling investigat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중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홍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심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연구보고 12-R15-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조사 결과 자료집**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630-0 94330

978-89-7816-603-4 (세트)

